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 호 6 월 15 일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1호 (33)

1949년6월15일

내 용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자

조국의 완전통일독립과 국토완정을 위한 공화국인민의 구국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달성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성과들을 보위하며 더한층 공고히 하는것은 우리당원과 인민들에게 부과된 민족적 과업이다.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제반 민주건설의 성과는 첨예한 국제 국내정세 하에서 항상 원쑤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며 침범과 파괴의 대상이 되어있다. 조국과 인민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으려고 날뛰고 있는 리승만 괴뢰「정부」도당들이 찬란한 우리들의 민주건설의 성과를 야수적 흉모로서 항상 침범하며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죽어가는 계급이 자원적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간 그러한 경우는 아직도 력사에 있은적이 없다. 죽어가는 부르죠아지가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체의 모든 나머지 힘을 다 써보지않은 그러한 경우는 아직도 력사에 있은적이 없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 내의 우경에 대하여」)고 일찌기 쓰딸린은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말마적으로 발광하고 있는 매국노들의 일체 파괴공작, 도발행위, 허구선전, 날조, 암해공작, 리간공작, 정탐공작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예리한 무기가 되는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는 과업은 오늘 우리당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일찌기 제二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동지는「우리당은 어느때든지 계급적 원쑤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항상 조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우리당은 우리의 승리가 점점

더 굳어질수록 우리를 반대하는 일체 매국적 반동도당들이 더 심하여 가리라는것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적에 대한 관대성과 자만심, 안일성이 있을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정치적 경각성이다。一九三四년 十二월 一일 끼로브의 암살사건에 대하여 당단체들에 보낸 쏘련볼쉐위끼당중앙위원회의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우리의 힘이 증대함에 따라서 적은 점점 온순해지고 점점 무해(無害)하게 되리라는것과 같은 그릇된 예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기회주의적 관대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러한 예상은 철두철미 오유이다……승리를 향락하거나 멍하니 하고 있는것은 결코 볼쉐위끼의 할일이 아닌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관대가 아니라 경계심이며 진정한 볼쉐위끼적 혁명적 경계심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적이 절망상태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들은 쏘베트정권과의 투쟁에 있어서 운명의 진(盡)한 자의 유일한 수단으로서「최후의 수단」으로 나오리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경계심을 굳게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상한 정치적 경각성은 우리조선인민의 애국적 위업을 성취하는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며 적의 침범과 파괴로부터 인민의 전취물을 방위하는 예리한 무기로 되는것이다。

고상한 정치적 경각성은 고상한 당성에서 출발되는것이다。

당성을 높은 수준으로 제고하는것은 오늘 우리당단체와 당원들이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는 기본적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고상한 당성은 철저한 당적 비판을 통하여 전취된다。 그러므로 비판과 자기비판을 소홀이 여기며 형식적으로 실행하며 그를 무자비하게 전개함을 두려워하는 일부의 옳지못한 경향들을 급속히 퇴치하여야 할것이다。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 까지 무자비한 비판과 자기비판만이 당 실지사업에서 결점과 오유를 제때에 폭로 퇴치 함에 도움을 주며, 이색분자의 당내 잠입을 방지하며, 당의 순결성을

능히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만약 우리당원들이 당의 강철같은 규률과 당의 순결성에 대하여 등한하며, 당적 호상 비판을 게을리한다면 적들의 잠입과 암해공작에 기회를 주는 가능성을 가져올것이다。

만약 우리당원들이 고상한 사상적, 정치적 리론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벌써 적의 반동사상과, 반동적 책동에 동요하며, 굴복하며, 위협받을 약점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고상한 당적 경각성을 제고함에 있어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는 우리에게 당원간에 있어서의 당력사의 학습, 당력사에 있어서의 모든 종류의 반당적 단체에 대한 연구, 당로선에 반대하는 적들의 투쟁방법과 그 전술을 깊이 연구하며 당이 그들과 투쟁한 그 수법과 전술을 연구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은 근로자들의 모든 적들―지주, 자본가, 부농, 해독분자, 스파이와 기타 일체 제국주의 주구배들과의 혁명적 투쟁가운데서 강대하여졌으며 단련되었다。

十월혁명후 쏘련에서는 자본주의국가들의 공개적 공격을 위시하여 외국 밀정, 파괴분자들의 침범과 부단한 투쟁을 하였다。二十년간에 걸쳐 뜨로츠키, 지노비예브, 까메네브, 부하린, 뤼꼬브도배들이 조직한 레닌과 끼로브, 고리끼, 꾸이비세브 등 인민의 지도자들에 대한 테로와 쏘베트국가에 대한 파괴공작은 一九三七년에 세상에 드러난바와 같이 적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외국탐정들이 국내 반혁명분자와 결탁하였으며, 음밀한 투쟁을 계속하였는가를 가르치는것이다。 이 모든 흉악한 원쑤들에 대한 볼쉐위끼당의 승리적 투쟁에서 우리는 정치적 경각성의 모범을 볼수 있는것이다。

볼쉐위끼당이 외국자본주의국가의 공연한 또는 음연한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방위하였으며, 좌경과 우경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에서 어떻게 당과 국가를 고수하였으며, 발전시키였는가하는 력사는 즉 우리당단체와 당원의 당적 경각성을 제고하는 위대한 교훈이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는 우리에게 「당사의 지식과 리해는 당원의 혁명적 경각심을 완전히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란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맑쓰—레닌주의 백과사전인 볼쉐위끼당사는 우리에게 적에 대한 정치적 계급적 분석의 무기를 주며, 적의 온갖 기만과 허구와 술책을 폭로하는 무기를 준다。

정치적 경각성은 전체 언민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매국노들은 우리인민의 사상적 약점, 정치적 의식의 박약을 엿보고 있다。 인민속에있는 무관심성, 승리와 행복에 도취하는 안일성등은 모두 적의 리용대상이 되는것이며, 말공부쟁이, 아는체 하는자, 멍하고 있는자, 「사람좋은자」, 룸펜, 부랑자, 회의(懷疑)분자등도 모두 적의 리용대상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인민을 각성시키며, 교육주며, 애국주의 사상을 침투시키는것은 적의 정체를 볼줄 알며, 적의 기만을 적발하며, 적에 대한 증오심과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써 인민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 전체인민속에 전개된 대중 정치교양사업을 더 광범하게 더 철저하게 전개할것이며, 끊임없는 폭로, 해설사업을 더욱 계속할것이다。 매국노들의 허구선전을 끝까지 폭로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해석할것이다。

당과 정권기관, 군대, 내무기관에 복무하는 일군들은 자기의 사무질서,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소한 무관심, 사소한 태만, 사소한 방심이라도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적은 항상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엿보는것이며, 안일과 태만의 그림자를 찾고 있는것이다。 기관과 군대들의 사소한 문건, 대소롭지않은 말들, 조그만한 변천, 위치, 수량등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나 적에게는 그것이 모두 정탐자료가 되며 파괴공작의 자료가 되는것이다。

당과 정권기관, 군대, 내무기관 일군들의 고상한 경각성은 한놈의 정탐, 한놈의 해독분자라도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잠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벽이 되며, 예리한 무기로 되는것이다。

원쑤들은 우리 북반부의 민주건설을 내부에서 파괴하기 위하여 우리의 당과, 정권기관에 기어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원쑤들은 온갖 가면과 민주주의적 언사를 써가면서 민주건설사업에 해독을 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다。 쏘련에서의 경험은 이 사실을 증시한다。 一九二八년 싸흐트에서 석탄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건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옳지못한 채굴방법과 또는 폭발 방화들을 조직하며 로동자의 물질적 생활상태의 개선을 고의로 방해하고 로동보호에 관한 쏘베트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부르죠아 기술자들의 해독사업은 이것을 말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생산기관내 일군들은 항상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어 원쑤들의 해독사업으로 부터 공장, 광산, 기업소들을 방위함으로써 二개년인민경제 계획실행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당원들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인민에게 해설하며 그 정책을 정확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당과 정부의 말단기관일군들이 만약 정책실시에 있어서 조그마한 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과 정권기관과의 리탈을 초래할 위험성을 줄것이다。

우리들은 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과 투쟁함으로써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할것이다。 오늘 인민과 고립된 리승만 괴뢰「정부」는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썩어져가기는하나 아직 방대한 군사력을 가진 미제국주의의 비호가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레닌이 말씀한바와같이 놈들은 최초의 중대타격이 있은 후에는 十배의 정력, 광포한 열정, 백배나 더한 증오심을 가지고 투쟁에 루신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 × ×

국제 국내정세의 첨예한 조건하에서 공화국 인민은 매국노들의 음모를 항상 경계하면서 모든 기관과 생산직장, 철도, 학교등을 비롯하여 가두와 농촌과 가정에서 정치적 경각성을 발휘할것이며, 고상한 애국주의로써 무장할것이며, 사상정치적 교양에 힘을 집중할것이다。

당과 정권기관의 일군들을 비롯하여 전체인민은 자기와 자기 주위에 대하여 조그마한 부주의와 안일과 무관심과 불필요한 언사가 없는가, 항상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것이다。 당단체와 전체당원은 당내규률을 엄수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행하며, 호상 비판의 무기로써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며, 전체인민에게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시키며, 인민을 김일성장군을 수반으로한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집시켜야 할것이다。

당단체 자신및 당원자신의 정치적 맹목을 근절하며、자신의 정치적 부주의를 근절하며、자신의 경각성을 제고하여야 할것이다。

전체 인민이 조국의 통일 완전독립을 위한 길에 총돌진하고 있는 오늘의 조건하에서 당단체들과 당원은 조국방위의 예리한 무기의 하나인 경각성을 어느때보다도 더 높이 제고하여야 할것이다。

「당을 안심시킬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경각성을 발휘하여야 할것이요、당으로 하여금 잠자게 할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전투적 준비의 상태에 처하여 있게할것이요、무장을 해제시킬것이 아니라 무장시켜야 할것이요、해이시킬것이 아니라 당으로 하여금 늘 동원상태에 처하여 있게 하여야 할것이다」(쓰딸린—쏘련공산당(볼쉐위끼) 제十七차당대회 보고에서)

생활과 밀접히 련결된 선전선동사업을 위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부부장 윤 군 창

우리당이 당원들과 광범한 인민대중들속에서 부단히 진행하고 있는 선전선동사업은 매 력사적 계단에서 당 앞에 제기되는 기본과업들에 항상 종속하고있다。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은 반드시 그때 그때의 당의 정치로선에 정확히 의거하여야하며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들이 옳게 집행되도록 당간부들과 당원들과 인민대중들을 교양하고 그들에게 해설하며 그들을 투쟁에 추동시키는 자기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당 선전선동사업의 특징의 하나는 그것이 실생활과 현 모멘트와 현실과 가장 밀접히 련결되어있으며 또 련결되어야한다는 거기에 있다。 리론문제의 해명에 있어서의 추상성、또는 실천으로부터의 리론의 분리、선동사업과 실지생활과의 분리등 이 모든것처럼 우리당 선전선동사업의 기본 정신에 모순되는것은 없다。

당원들과 당간부들에게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교양주는 우리당 선전의 전투적 성격은 사회생활의 제현상과 주위의 현실을 인식함을 도와주는 모든 실지행동에 대한 지도로되는 사명을 가진 맑쓰—레닌주의적 혁명리론의 본질 자체에서 나오는것이다。

사회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맑쓰—레닌주의리론은 곧 프로레타리아트의 실지 혁명적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이 법칙을 적용할것을 가르쳐주며 온갖 과학과같이 부단히 발전하며 완성되며 또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론과 명제들로 개별적인 낡은 명제와 결론들을 바꾸는것을 두려워하지않는 그러한 력량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맑쓰—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의 모든 리론적 로작

들은 항상 투쟁의 현실적 제요구와 관련하여 저술된것이며 또 우리시대의 가장 절실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대답을 준것이다。맑쓰—레닌주의 리론을 투쟁의 무기로 생각하지않고 실지생활과 투쟁과 관계없는 무감각한 『고찰』과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당 선전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것이다。이러한 태도는 곧 맑쓰주의를 속악화하며 맑쓰주의로 부터 혁명적 정신을 빼없샐것을 원하는 자들에게만 유리한것이다。

진정한 맑쓰—레닌주의자들은 리론을 독경자(讀經者)식으로 취급하지않고 또 그것을 굳어버린 독설(獨說)로 보지않고 그것을 실제경험의 자료에 기초한 새로운 결론으로 풍부히 하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당선전과 당교양은 진실로 그가 실지생활과 현실과 밀접한 련결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것이다。

× × ×

우리당 선전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간부들을 맑쓰—레닌주의리론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이다。

쓰딸린대원수는 일찌기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만일 우리가 모든 사업부문의 인재를 사상적으로 준비시키었고 국내 및 국제환경에 대하여 그들이 자유로 방향을 정하기에 능숙하도록 정치적으로 단결시키었다면, 만일 우리가 그들로하여금 국가령도문제에 있어서 심오한 과오가 없이 해결하기 능한 완전히 성숙한 맑쓰—레닌주의자로 만들었다면 벌써 우리의 모든 문제의 十분의九는 해결되었다고 인정할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으리라는것을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이는 곧 간부들의 교양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과 동시에 간부들의 교양사업도 실생활, 실제현실과의 련결속에서만 확립되며 그 사명을 달성할수있다는것을 가르쳐주는것이다。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습득은 비상한 노력과 또는 서적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연구하는것을 요구한다。일상적으로 독습할데 대한 욕망은 우리 간부들의 뇌리에 가득차 있어야한다。왜냐하면 혁명적 리론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나는 리론을 다 연구하였다。인제는 책을 더 읽지않아도 좋다」고 단언할수 있는 그러한 순간은 결코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연구하는가에 있는것이다。

문제는 리론을 취급함에 있어서 다만 추상적으로 리해하고 기억하는데 그칠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리론을 실천에, 실생활에 리용할줄 알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섭취하는가에 달려있다。

당단체들은 우리간부들이 항상 자기 리론수준을 제고시키며 자기의 사상적 장성을 가져오게하기 위하여 그들이 맑쓰—레닌주의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읽도록 도와주는 사업에 심각한 주의를 돌리는 동시에 간부들의 자기학습에 있어서 맑쓰—레닌주의 혁명적 리론을 한개의 추상적 독설에까지 떨어뜨리지 말도록 충분한 지도를 주어야 한다。

간부들의 교양사업은 반드시 그들이 맑쓰—레닌주의를 연구함에 있어서 실생활로부터의 유리가 허용되지 않도록 또는 어떠한 일군의 맑쓰—레닌주의적 준비의 정도는 그가 『학자식』문구들을 토할줄아는것으로 결정될것이 아니라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들의 정당성을 믿으며 그 정책의 의의를 철저하게 리해하며 또 그리함으로써 당의 지시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 환경과 조건들에 알맞게 창발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혁명적 투사의 확신성으로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조직되어야한다。

간부들의 이러한 맑쓰—레닌주의적 자각은 그들이 어느곳에서 사업하든지간에 그들의 사업을 더욱 효과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당 선전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정치사상적 수준이 비교적 높지 못한 광범한 당원들에 대한 집체적 교양사업 즉 세포학습회 사업이다。우리조국이 반세기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지 불과 四년도 되지 못하고 우리당의 력사가 극히 짧으며 투쟁경험이 선진적 프로레타리아트 정당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제조건들로 말미암아 오늘 절대다수의 우리 당원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이 낮은 형편에 처하여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맑쓰—레닌주의리론을 독자적으로 학습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당원들을 위하여 광범하게 세포학습회들을 조직하여 비교적 준비되고 검열된 간부들로하여금 세포학습회사업을 지도케하는것이 필요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 세포학습회들에 망라된 당원들은 그 전부가 오늘의 제반 건설사업 및 투쟁에 선봉적으로 참가하는 실천자, 투쟁자로 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하다。그렇기때문에 당선전을 실지생활과 련결시키는것은 실로 세포학습회사업에서 절실하고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세포학습회사업을 실지생활과 긴밀히 련결시키기 위하여는 학습회제강을 현실생활과 부합되게 작성하는것과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이 학습회 진행시에 일상적으로 현실과 련결시키는 창발적이고 구체적이며 내용이 풍부한 해석과 설명을 주는것과 학습회에 망라된 당원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 요

구현된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세포학습회 제강이 면밀한·검토밑에 각 도국에는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에 대한 교양 및 단련과 세포학습회 지도자들 자신의 능동적 사업 여하가 학습회 사업 수준과 학습회와 실지생활과의 련계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는것이다。

당원들과 당외군중들앞에서 조직되는 각종의 강연사업도 청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하기 위하여는 각종서적들과 신문에 있는 문구들을 그냥 외우는 무감각한 내용으로 진행할것이 아니라 현실과 현 모멘트와 실지생활과 유기적으로 련결된 풍부한 산 내용으로서 진행하여야 하며 강연이 끝난후에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자세한 대답을 주는 사업들을 반드시 조직하여야 한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에게 정치 시사를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모든 투쟁 및 건설에 추동시키는 군중선동사업이 실생활과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한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일이다。 실생활과 련계없는 그러한 추상적인 해설사업으로서 군중들을 투쟁에 이끌어 나간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며 한개의 망상에 불과한것이다。 출판사업을 비롯한 기타 선전선동체계들에 있어서도 사태는 동일하다。 실로 실생활과 현 모멘트와 현실과 련계없는 선전선동사업은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것이다。

지난 二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우리당 선전선동사업에 있는 부분적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이 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제고시키며 당단체들로 하여금 당선전사업 특히 당내 정치교양사업을 당의 전체적 중요사업의 하나로서 진행케할데 대한 대책들을 결정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후에 당중앙상무위원회는 당교양체계의 개선에 대한 결정과 매개 교양체계에 있어서의 새 유일학습제강들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우리당 교양체계는 일층 당원들의 욕망과 의식수준에 알맞게 조직되게 되었으며 당교양사업에 있던 부분적 번잡성이 제거되고 당교양사업의 당성이 일층 제고되었으며 매개 교양체계의 유일학습제강들은 현실 및 실생활과의 더 깊은 련계를 확보하고 당원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적에 대한 적개심을 일층 앙양시킬수 있게 개선되었다。

이와함께 지방당단체들의 선전선동사업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제고되고 있다。

최근 지방당단체들은 간부들을 맑쓰—레닌주의리론으로 교양하는 문제들에 더 깊은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간부들과 자출당원들의 자체교양을 도와주며 그들이 맑쓰—레닌주의를 어떻게 연구할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많이 지도하고 있다。 정치사상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당원들을 위한 세포학습회사업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세포학습회는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별에 의하여 상하 二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세포학습회들에는 절대다수의 당원들이 망라되고 있다。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에 대한 리론적 원조와 방법적인 지도를 위하여 각 시 군당단체들에서 매월 一차씩 쎄미나르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시 군들에서는 一一六개소의 시 군야간당학교(六개월)들이 조직되어 당열성자들을 교양하고 있으며 이미 근 四만명의 학생들을 졸업시켰다。

중앙 및 각도 시들에는 당학교들이 조직되어있으며, 중앙당학교에서는 二년반 一년반 三개월반별로, 七개소의 도당학교들에서는 六개월반 三개월반별로, 十개소의 시당학교들에서는 三개월기간으로 각각 당간부들과 열성자들에 대한 교양및 단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맑쓰—레닌주의 리론 및 정치 시사에 대한 강연사업이 강화되고 더욱 군중속 깊이 침투하게되었다。

신문과 잡지들은 전전, 선동적 론문 기사들을 더욱 많이 또는 더욱 자주 게재하게 되었다。

선전선동사업이 자기체계를 정돈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방면에서 확실히 진척을 가져왔다。

그러나 세포학습회, 당학교들이 그만큼 조직되었다는것, 강연사업이 그만큼 진행되고 있다는것, 그만큼 출판물에 론문 기사들이 게재되었다는것등의 사실만으로서는 지방당단체들에서 선전선동사업을 어떻게 조직하고있는가를 완전히 특징지을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세포학습회와 당학교들에서 교수사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당원들에게 어떤 사상적 내용을 주며 우리의 론문, 소책자 및 서적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는데에 있는것이다。

당단체들이 사업의 량적면을 등한시할수 없다는것은 물론이다。 앞으로도 강연이 더 많이 있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우리당 선전선동사업의 달성된 범위는 아직 퍽 불충분하다。 당내에 八〇여만명의 청소한 당원들이 있다는것과 국내에는 수많은 인테리, 사무원들이 있다는것과 로동자와 농민들속에서는 정치에 대한 열성과 맑쓰—레닌주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것, 특히 우리조국이 아직도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여 공화국남반부에서는 반동도배들이 온갖 매국적 책동을 다하고 있으며, 인민들을 무지와 몽매에 빠뜨리는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는것, 전체인민들이 한결같이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것등을 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당단체들의 주의와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할 문제는 선전선동의 사상 정치적 내용이며 그의 지도성이며 현실성이다. 당단체들의 선전선동지도에 있어서의 큰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일부 당단체들에서의 선전선동조직은 오늘날의 요구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당단체들의 선전선동조직은 당원들과 인민대중들에게 적에 대한 적개심과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제고시키며, 그들을 온갖 건설 및 투쟁에 추동시킴에 있어서 당을 불충분하게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우선 이 당단체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점 즉 실생활로부터의 유리, 리론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의 추상성, 리론연구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등과같은 결점들로써 설명된다.

우리의 일부 선전선동간부들은 조국발전의 현계단에 있어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전투적인 날카로운 문제들을 피하고 가끔 머나먼 력사적 과거에 대한 제목만을 택하거나 이 제목을 현실과 련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선전선동일군들은 그가 자기의 선전선동으로서 무엇을 증명하며, 무엇을 설복시키며, 무엇을 주장하며, 무엇을 폭로하려고 하는가를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제목에 대한 강연까지도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무감각한것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매개 선전선동일군들은 그가 출판물에 무엇을 썼거나, 강연을 하였거나, 혹은 보고를 하였거나 자기가 준 선전선동의 내용에 기초하여 대상자들이 독자적으로 사색하도록, 정신적활동을 하도록 고무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가 교양하는 대상자들은 좋은 경우에야 제때에 필요한 문구들을 인용할줄아는 독경자로가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는 우리 공화국의 열렬한 애국자들로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도배들을 가장 증오하며, 복잡한 국내 및 국제정세속에서 옳은 방향을 정하며, 우리에게 제기되어 있는 과업을 철저히 리해하며,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할수있는 사람들로 반드시 되어야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은 심히 복잡하다.

지난해 八월二十五일 남북조선 지역에서 다수 종간 우익세력들까지 포함하여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세력들과 전체인민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 우리조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력사에서 처음으로 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통일적 정부인 공화국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쏘련정부는 전조선인민의 의사와 욕망을 접수하여 자기군대를 공화국북반부로부터 완전히 철거하였고 오늘 우리공화국과 쏘련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국가들간에 외교 및 경제적 관계가 설정되어 우리조국은 세계민주진영의 대렬에 동등권있는 일원으로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조선인민의 의사를 거역하여 자기군대를 계속 공화국남반부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공화국남반부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예속화할 책동을 날이 갈쑤록 더욱더 로골화하며, 공화국남반부를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로 화할 정책을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와 사수밑에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등 망국도배들은 공화국남반부에서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들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날이 갈쑤록 더욱더 공화국남반부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매도할데 대한 흉악한 책동을 로골화하고 있으며, 틈만 있으면 우리공화국을 파괴하려고 시도할뿐만 아니라 실지 파괴분자 정탐분자들을 공화국북반부에 파견하고 있다.

공화국북반부내에 있는 반동분자들은 리승만도배들의 조종밑에 부단히 동요분자들을 규합하려고 애쓰며, 리승만도배들이 파견한파괴분자 정탐분자들과 합력하여 각종 파괴공작을시도하고 있다.

오늘 우리당의 선전선동사업은 반드시 조국의 현실과 실생활과의 깊은 련결 밑에 진행되어야 하며, 그 전투적 성격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전선동일군들은 부분적 당단체들과 당원들속에 있는 온화적이며, 안일한 기분과 이미 얻은 승리에 도취하고있는 결점들을 시급히 제거하고, 당원들과 인민대중들에게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일층 앙양시키며, 그들이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제반 건설사업 및 투쟁을 진행하도록 그들을 교양하고, 그들에게 해설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전선동일군들은 당내 정치교양사업에 있어서나, 각종강연사업에 있어서나, 출판물사업에 있어서나, 군중선동사업의 모든 형식에 있어서 항상 당원들과 인민대중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의 조국식민지화 음모와 공화국남반부의 군사기지화정책을 폭로하며, 리승만도배들의 반동성과 그들의 모든 매국적 망국적 책동을 남김없이 폭로하여 더욱더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유·엔신조선위원단」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에 불과하다는것을 널리 해설하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당원들과 인민들속에서 원쑤들에 대한 적개

심과 증오심을 높이며, 인민들을 미국군대를 하루바삐 우리조국강토로부터 철거시키며, 「유·엔신조선위원단」을 배격하며, 리승만도배들을 타도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더 추동하도록 우리 선전선동일군들은 힘써야한다.

또한 선전선동일군들은 리승만도배들이 파견한 파괴분자 정탐분자들이 우리당단체들과 정권기관 및 생산기관들에 잠입하여 파괴사업을 진행하여 당과 정권기관을 부분적 인민들로부터 탈리시킬수 있는 기회와 조건들을 지어주지 말도록 당원들과 인민들속에서 적에 대한 경각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에 항상 높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의 선전선동일군들은 반드시 당원들과 인민대중들이 공화국북반부의 민주주의적 기지를 일층 견고히 축성하는 사업에 더높은 열성으로서 동원되게 하도록 노력하며, 이 사업과의 깊은 련계밑에 온갖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일군들은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투쟁,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사업들에 당원들과 인민들을 더욱 고무하며, 추동시킬것을 잊지말아야한다.

공화국북반부의 제반민주건설에서 이미 얻은 승리에 도취되지말며, 우리의 생산기관들과 모든 국가재산들을 원수들의 파괴로부터 보호하며, 각방면에서 우리의 건설사업을 일층 높은 수준으로 제고시키도록 높은 주의를 돌릴것이다.

당선전선동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우리당의 위신을 인민대중속에서 제고시키며, 당주위에 더욱 굳게 인민들을 결집시키도록 힘써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모든 건설사업 및 투쟁에 있어서 선봉적 역활을 다하고, 일상생활과 사업에서 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며 인민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의 의사와 욕망을 만족시켜주도록 노력하는 고상한 사업작풍을 확립하며, 특히 우당 당원들과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세력들과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며,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의 정치적 의의를 인민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도록 노력할것이다.

당선전선동일군들은 항상 당원들과 인민대중속에서 쏘련의 모든 정당한 정책들을 해설하고, 쏘련인민과 조선인민과의 친선의 정신을 강조하며, 쏘련을 선두로하는 세계민주진영의 승리적 전진을 해설하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새전쟁조발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전세계인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전세계 민주력량이 항상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우리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여준다는것을 깊이 해석 선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쏘련정부의 온갖 정책과 투쟁, 평화옹호세계대회의 성과,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월남인민들의 투쟁, 중국정세 일본정세등등 일련의 중요한 국제시사들을 인민들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모든 선전사업을 이러한 국제시사와 밀접히 련결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할것이다.

우리 선전선동일군들은 인민대중들속에 국토를 보위하며, 공화국북반부의 제민주성과들을 반동들과 원쑤들의 침습으로부터 수호하는 중대한 사명을 질머진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들에 대한 해설사업을 더욱깊이 침투시키며, 인민군대의 위신을 제고시켜주며, 인민들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애호심을 앙양시키고, 인민군대 전사 하사들의 부양가족원호에 대한 공화국내각결정의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침투시키며, 이 결정의 정확한 실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민군대군무자들의 가족에 대한 인민들의 사회적 원조사업을 일층 강력히 진행하고 인민군대가족들의 사회적 위신과 영예를 높여주는 온갖 사업들에 높은 관심을 돌려야한다.

우리당 선전선동일군들은 모든 부문의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오늘의 환경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러한 당면과업들과 긴밀히 련결시켜야 하며 이러한 련결을 짓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매개 당단체들의 사업환경과 시기와 대상자들의 수준, 의사등 제반 국제적 조건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 조건들에 적합하게 현실을 반영시켜야한다.

우리당 선전선동일군들은 우리의 전진을 촉진시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상투쟁전선의 제一선에 있는것이다. 그들은 결코 순전히 아카데미적으로 준비된 그리고 「학자」적 학습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인것이 아니라 투사이며, 정치적 활동가이라는 의식으로 침투되어 있어야한다.

실생활로부터의 유리는 선전선동의 내용에뿐만 아니라 선전선동일군들의 말과 태도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선전선동일꾼들이 공식만을 말하고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것을 피하며, 산말는 하지않는다면 그의 말은 항상 죽은 말로, 감각없는 말로 될것이다. 어떤 선전일꾼들은 강연을 류창하게하며 또 그 강연내용이 다 옳으나 전체로보아 그 강연이 무기력한 실증이 나는 인상을 주는 일이 있다.

이러한 강연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지못할것이며, 그들의 기억에 남지않고 곧 사라지고 말것이다.

선전선동일군들이 자신이 느낀것을 말할때 또 그가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로 대상자들을 흥분시키

논 때에는 문제가 다르다。 이려한 때라야만 그는 추상적인 론증이 아니고 필요한 말과 자기의 말을 하게될것이며、 자기자신도 창발적인 연구에 열중하게되어 대상자들의 열성을 북돋아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선전선동사업에는 단지 리론적으로 준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실생활을 알며、매지방의 풍습과 언어에 익숙할줄 알며、각층의 대상자 ㅣ로동자、농민、인테리、기업가등등ㅣ들의 감정을 포착하고 그들의 말을 사용할줄아는 능숙한 일꾼들을 참가시켜야한다。

실생활과의 선전선동사업의 긴밀한 련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선전선동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며、각급당부선전선동부의 조직적 역할을 강화할것이 요구된다。 일부 당부 선전선동부의 개별적 일꾼들은 하부당단체로부터 유리되어 당선전선동사업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으며、선전선동의 가장중요한 문제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창발성을 발휘하지 않으며、주로 개별적인 당면위임을 단편적으로 실행하고 있을뿐이다。 각급당부 선전선동부들은 하부당단체들과 잘 련결되어야하며、그 일꾼들이 항상 지방에 가서 어떻게 초급당단체들이 생 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지금 선전선동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와 함께 선전선동부에 대한 원조와 일상적인 지도가 요구된다。일부당단체들에서는 선전선동부의 활동이 당단체의 전체사업과 약하게 련결되어있다。 이러한 사태는 일부 당부 위원장들이 선전선동사업의 제문제들을 불충부하게 연구하며、당단체들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해결하는데에 선전선동일꾼들을、사용하지않는것으로 설명된다。

각급당부 위원장들은 당조직사업、경제전설 협조사업을 지도하며、동시에 선전선동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가진다。그렇기때문에 각급당부 위원장들은 모든 사업부문의 력량을 부산시키지말고 선전선동사업을 당단체들의 전체적 중요사업의 하나로서 다른 부문들의 사업과의 밀접한 호상 련결밑에 진행하도록 일상적인 지도사업을 강화할것이다。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후 농촌경리발전과 금후의 전망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농민부 부부장 김 정 일

一、공화국북반부에 있어서의 토지개혁과 그 성과

근 반세기 동안 일제의 간악한 통치밑에서 온갖 착취와 란포한 전횡으로 말미암아 빈궁과 기아의 암흑속에서 헤매고있던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쏘련군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해방되었다。

해방후 쏘련군대의 성의있는 방조와 우리민족의 민족적 영웅 김일성장군의 올바른 지도밑에서 수립된 진정한 인민정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첫 민주과업으로 一九四六년 三월五일에 토지개혁법령을 실시하였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무상분여하여 주는것이 이 법령의 기본으로 되였다。 토지개혁은 로동계급의 지극적 협력밑에서 세기사적으로 류례없는 단시일(二十五일)에 승리적으로 수행되였다。

토지개혁전 북조선농촌경리의 실상을 보면 토지의 대부분이 일본제국주의자 및 그들과 야합한 토착지주들의 소유로 되어있었다。 즉 一九四三년도 우리북반부 농경지면적은 一、九八二、四三一정보였던바 그중에서 五八・二%의 토지를 전농가호수의 四%에 불과한 지주들이 차지하고있었으며 전농가호수의 四五・四%의 농민이 순소작농 및 고용농으로 되어있었다。 이러한 토지소유는 절대다수의 농민들을 빈궁과 암흑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농촌경리를 여지없이 파탄시켰으며 지주와 소작인간의 계급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조국의 민주발전에 큰 장애물로 되었으니 이것은 다만 토지개혁으로만 완전히 청산할수있었다。토지개혁에 의하여 몰수된 토지는 다음과 같다。

몰수된 토지

분류별	정보	%
일본국가및 일본인소유	一〇〇、五〇〇정보	九·五%
민족반역자의 소유	二一、六八三정보	二·一%
조선인 지주의 소유	六五〇、〇〇〇정보	六二·〇%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로지	二六三、〇〇〇정보	二五·〇%
교회당 및 승원의 소유	一四、八五五정보	一·四%
합 계	一、〇五〇、〇三八정보	

또한 경지를 몰수한 이외에 그들에게서 몰수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종 목	수 량
과수원	七一、七七〇정보
산림	三、四三二、九三六정보
관개시설	一、一六五개소
건축물	一四、四七七동
소	四、六五三두
말	一一六두

몰수된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여되었다。

고농	一七、一三七호	二二、三八七정보
순소작농	四四二、九七五호	六〇三、四〇七정보
토지적은농민	二六〇、五〇一호	三四五、九七四정보
타군에서 자경하려는 지주	三、九一一호	九、六二二정보
합 계	七二四、五二四호	九八一、三九〇정보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들로부터 몰수된 토지는 로지없는 농민、로지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였으며 우리북반부의 농촌경리는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분 류	개혁전	개혁후
자작농	二〇%	一〇〇%
자소작농	三〇%	—
순소작농	五〇%	—

북반부에는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밭갈이하는 농민으로서 토지없는 농민이 하나도 없으며 농민들은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었다。

근로대중의 선봉대인 우리당(전신당인 공산당)은 조국창건을 위한 민주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과업의 하나인 토지개혁 사업에 전당을 동원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우리당은 첨예화된 지주와 소작농 고농들간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우수한 당원들을 농촌에 파견하였으며 빈농을 중심으로하여 一만一천五百여개의 농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조국전선의 주도적 부대인 로동자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농민을 계급투쟁에서 방조하여주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전당의 우수한 선전원들을 동원하여 토지개혁의 력사적 의의를 광범한 농민대중들속에 해석천명함으로써 그들의 경각성을 제고시키었으며 지주들과 기타 일체 반동분자들의 반동적 요열과 악선동을 제때에 폭

로 분쇄하였다」(제二차전당대회에서 김일성동지의 보고)

조선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인 토지개혁의 실시는 조선농촌의 민주발전에 있어서 일대 장애물로 되었던 봉건적인 소작관계를 일소하고 민주조국창건을 방해하며 파괴하려는 친일과 민족반역자등 일체반동분자들의 경제적 토대를 근절하였으며 전체농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게되었다。토지개혁의 실시는 농민들의 농업증산의 욕을 제고시켜 농촌경리발전의 앞길을 열어주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농민들의 헌신성과 애국열을 고무하였으며 북조선에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수있게 하였다。토지개혁의 실시는 즉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더욱 굳게하였다。

농민들은 식량과 섬유 유지등 경공업원료를 보장함으로써 북반부의 산업발전을 촉진시킴에 유력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방으로 로동자들은 비료 농기구 가타 농촌의 필수품을 충족시킴으로써 농촌경리발전을 촉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이처럼 우리북반부에서 실시된 력사적인 토지개혁은 조선인민의 민주발전의 길을 열어준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동방제국의 약소민족과 식민지 인민들의 앞길을 가리켜 주는 모범으로 되었다。

진정한 인민정권 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실시후 계속하여 농민들을 기아와 암흑에서 신음하게하던 량곡공출제도와 가렴잡세를 철폐하고 공정한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였다。이 농업현물세제의 실시는 토지개혁의 성과를 더욱 튼튼히 보장하였다。

북반부 농민들은 토지개혁과 농업현물세제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농민들의 생활상면모를 일신하는 전변을 가져왔다。

이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길에 들어선 북반부 농민들은 로동계급들과 굳은 동맹밑에서 민주조국창건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왔으며 또 하고있다。

현재 북반부 농민들은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二、二五九명이 피선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남북조선농민 一九四명이 참가하고있다。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의 주인이된 북반부 농민들앞에 제기된 국가적 중대한 임무는 조국창건을 위한 애국적인 농업증산으로써 국가식량을 보장하는 문제이다。우리당은 전체농민들이 일제시대에 황폐되었던 토지를 회복하며 신규개간등을 실시하여 경지면적을 확장하며、토지개량사업、경종법개선、자급비료、증산등으로써 정보당수확을 높임에 온갖 애국적 증산의욕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그들을 고무 추동하여 왔으며 또한 우리당원들의 책

심적 역할에 의하여 농업증산에 높은 승리적 성과를 쟁취하였다。즉 파종면적을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七년에는 一一五·九%、一九四八년에는 一二二·八%로 확장하였으며、총수확고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에는 一四〇·六%로 증수하였으며 이것은 농산액의 최고 생산고인 一九三九년 생산고를 초과하고 있다。이로써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로 자급자족할수있는 지대로 전변하였을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이 급진적으로 향상되게 되었다。

(토지개혁후 농촌문화 향상 (一九四八년 六월현재로 증가된 숫자)

농우	一一七、八〇八두
탈곡기	二六、二〇四대
우차	三二、三九二대
화물자동차	四五대
제초기	五三、七〇〇대
신축가옥	一〇一、四四九호
라디오	二三、九四一개
전축	七三六개
전등가설	二五九、二二一호

이렇게 북반부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근본적으로 전변되었으며 어느 농민을 물론하고 여유있는 행복한 농민으로 되었다。

이제 개별적 농가의 실례를 들면 평남도 안주군 대리면 리서리 안광식 농민은 토지개혁전에 지주의 밭 五、〇〇〇평、논 九、〇〇〇평을 소작하였다。안광식 농민의 말에 의하면 「농사는 대농을 하였으나 먹을것이 없어 죽과 초근목피로 八—九인이나 되는 식구가 근근히 연명하여왔다。벼와 잡곡을 합하여 九十여가마니를 생산하였으나 五十가마니는 소작료로 빼앗기고 二十여가마니는 강제공출로 탈취당하고나니 불과 十여가마니를 가지고 수다한 가족이 춘경기를 넘기기가 곤난한 형편이였던것이다。당시의 비참한 생활을 지금에 상상만 하여도 몸서리나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토지개혁으로 논 一一、〇〇〇평、밭 五、〇〇〇평을 분여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게된 결과 一九四七년에 기와집 五간、초가 四간을 신축하였으며 농우 二두、우차 一대、탈곡기 一대、제초기 三대、선풍기 一대、양복장 한바리、이불장 한바리、재봉침 一대、찬장 一개、전등 四등、돼지 二두를 구입하였으며 과거에는 자기동생들과 아들 딸들을 소학교에도 변변히 못보내던것을 지금에 와서는 농업전문학교 一명、중학교 一명、인민학교 一명이 취학하고있으며 해방전에 문맹자가 二명이였던것이 지금은 완전히 퇴치되어 신문잡지를 읽는 정도로까지 되였다。

× × ×

그러나 이런 반면에 남반부에 불법적으로 계속주둔하고있는 미군은 상륙하는 첫날부터 인민들이 이미 창설하여놓은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여 놈들의 앞잡이로하는 일방 조선인민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투옥 학살하면서 식민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남반부에서는 토지개혁은 고사하고 일제시대의 동척을 「신한공사」로 다시 「토지중앙행정처」라고 간판을 바꾸었을뿐이고 토지는 점점더 지주의 손에 집중되고있다。이제 남반부의 토지소유관계를 보면 전경지면적의 六三%가 전체농호의 三·四%에 불과한 지주들의 손에있으며 절대다수인 九六·六%의 농민이 불과 三七%의 토지를 소유하고있다。이처럼 반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계속하고있는 남반부의 농촌경리는 여지없이 파탄되고있다。즉 一九三五—一九三九년 五개년간의 평균 경지면적에 비하여 一九四六년에는 七九%로、一九四七년에는 七一%로 감소되었으며 곡물총생산고는 一九四六년도에 七一%로 감소되었다。이렇게 농촌경리가 파탄되고있는 리유는 살인적인 소작료와 가렴잡세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반인민적인 망국적 괴뢰 「정부」의 소위 「미곡매입법」에 의한 강도적 략탈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농촌으로부터 구축당하고 있기때문이며 또 농민들이 농업재생산을 할수있는 경제력을 상실한데있다。오늘 남반부는 미군통치 三년의 결과로 공장은 파괴되고 농촌은 황폐되였고 인민은 무권리와 빈궁과 기아에 헤매고있으며 오늘에 三〇〇만명이상의 실업자는 가두를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침략정책과 망국적 리승만 괴뢰「정부」의 매국매족의 행위에 극도로 분개한 남반부 농민들은 로동계급을 선두로한 전체인민과 함께 공화국 기치를 높이들고 장엄한 구국투쟁에 총궐기하고있다。

그리하여 공화국내각은 공화국헌법과 정부정강에 기초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있어서도 속한 시일내에 북반부에서와 같이 토지개혁을 실시하여야할 필요를 인정하고 남반부에 실시할 토지개혁 법령초안을 작성하기위한 법령기초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내각 결정 四六호를 지난 五월九일에 채택하고 기초위원회는 자기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 결정은 중세기적 암흑속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농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적 대책으로 되는것이며、남반부농민들은 공화국 정부정강대로 토지개혁이 반드시 남반부에도 실시될것을 고대하고 있으며、머지않는 장래에 실현될것이다。

二、북반부 농촌경리 발전의 전망

일제는 조선민족자본의 발전을 조해하면서 반봉건적 소작관계를 확립함에 따라 조선농업은 영세화

되였으며 또 인민의 생활받도는 주로 농업생산에 의거하게되었다。一九三八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인구의 八一%가 농촌경리 및 림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업로동자는 四—五%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의 비률은 일본에 비하여 二배, 미국에 비하여 四배나 더높다。이렇게 농업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경리 총생산액은 전체 산업생산 총액의 四六·四%에 불과하다。이러한 사실들은 조선경제가 락후한 농업경제라는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또한 일제의 탄압밑에서 조선의 농촌경리가 여지없이 피폐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이제 우리 농민들의 앞에는 이처럼 피폐된 농촌경리를 급속히 향상발전시켜야할 중대한과업이 제기되고있으며 또한 토지개혁후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쟁취하였다。우리북반부의 전체농민들이 농촌경리를 각분야에 걸쳐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과거의 농촌경리형태를 충분히 분석하여보는것이 필요하다。一九三八년의 조선농촌경리 생산액의 비률은 다음과 같다。

벼	六〇%
공예작물	五%
야채와 감자류	八·五%
실과류	一·二%
기타곡물	一八·〇%
축 산	六·〇%
잠 견	一·三%
합계	一〇〇·〇〇%

농촌경리발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공업원료생산은 공예작물과 잠견생산을 합하여 六·三%이며 축산이 六%에 불과하다。이것은 조선농촌경리 발전의 기형적인 불균형성을 말하고있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체농민들이 농촌경리 발전에 애국적 열성을 바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섬유 경공업 원료생산과 축산을 발전시킬데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앞으로 북반부의 농민들은 이러한 결함을 급속히 시정하고 농촌경리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새二개년 농업생산부문의 계획을 전분야에 걸쳐 승리적으로 완수함에 있다。새二개년계획은 과종면적을 四三、五九七정보를 더확장하며, 특히 공예작물과종면적은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五二·六%를 더확장시킬것이다。축산에 있어서 소는 一九五〇년에, 九七二、〇〇〇두, 돼지 七八八、六三〇두로 증식시키며, 잠견은 二개년간에 一〇、三四〇톤을 예정하고 있다。북반부전체농민들이 새二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넘쳐 완수할것은 의심할바없으며, 또 이 계획의 승리적 완수는 공화국의 식량기지를 더욱 튼튼히함과 동시에 국가의 의료품을 해결하는 섬유원료를 충족시키며 인민의 보건에 필요한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게 될것이다。그러면 이 계획을 승리적으로 보장할수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떠한것들인가?

첫째로 우리북반부에 있어서 농업생산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경지면적확장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조선의 경지면적은 一九三八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면적의 二〇·五%를 차지하고있다。우리조선은 지세의 기복(起伏)에있어서 이태리와 흡사하다。이태리에서는 三二·二%의 면적이 경작되고 一八·六%가 목장으로 리용되고있다。

이것은 전면적의 五〇·八%가 농촌경리에 리용되고 있음을 말한다。공화국북반부의 형편을 보면 전면적의 一五·一%를 농촌경리에 리용하고있다。

이것을 도별로 보면

황해도	三二·四%	평북도	一三·八%
평남도	二八·一%	강원도	一五·〇%
함북도	九·八%	함남도	一〇·八%

로 되어있다。

북반부에 있어서 경지면적을 一九四八년에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一〇·六%로 확장하였으며 토지리용률은 一九四五년에 비하여 一三一%로 제고하였다。그러나 공화국북반부는 아직도 해안지대 간사지, 습지, 황무지, 휴간지 등을 앞으로 개간하여 경지면적을 확장시킬수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에서 채택된 새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의 농산부문 계획은 一九四九년도에는 파종면적을 一八、五七九정보로, 一九五〇년도에는 四三、五九七정보를 더 확장시킬것을 예견하였다。

북반부농민들이 이 국가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리용률을 고도로 높이는 사업과 아울러 해변가에 방파제와 하천정리 또는 간사지 습지의 배수공사등을 실시하여 휴간지, 황무지를 한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개간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로 농업증산에 있어서 자연피해를 극복하고 농업증산을 계속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이다。농산물의 자연피해는 주로 한재, 수재, 병충해들인바 이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들이 필요하다。특히 우리조선은 농산물 총수확고의 六〇%나 차지하고있는것이 벼이므로 한재의 피해를 많이 받게된다。우리나라는 주기에 따라 한재에 대한 손해도 막대하였다。즉 一九一一—一九一九—一九二四—一九三八년에 있어서 한재의 피해면적은 [illegible] 二十[illegible]

아상에 달하며 매년 二백여만석의 손실을 당하였다。또한 一九三八년의 한재는 더욱 심하였으며 피해면적은 一六九만여정보에 달하며、평년수확고에 비하여 九백여만석의 손실을 당하였으며、이에따르는 리재호수는 一九만호에 달하였던것이다。(조선경제년보) 이렇게 수리불완전한 논을 그대로 두고서는 높은 수확을 계속적으로 보장할수없다。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개혁 이후 많은 수리관개공사를 실시한결과 四四、五四三정보를 수리안전답으로 만들었다。앞으로도 새二개년계획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一九四九년에 실시되는 평남관개공사를 비롯하여 三十개소의 계속공사를 완수함으로써 七、三四○정보를 새로 개답하며、一九五○년도에는 신규로 十一개소와 계속공사 十개소를 실시하여 七、三○一정보를 관개할것을 예견하고있다。북반부 전체 농민들은 앞으로 더욱 국가의 관개공사 사업을 적극 추진시킴과 동시에 곳곳마다 저수지를 설치하며 또한 인수로를 충분히 수리완비하여 물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 함으로써 한재의 방비에 대처하여야 할것이다。

자연피해 극복에 있어서 두번째문제는 수해의 방지인바 수해 역시 한재에 못지않는 위험한 재해인 것이다。우리나라는 이 수해로 말미암아 농경지의 매몰、인축의 살상、도로·교량의 파괴·풍동의 막대한 손실을 받고있다。특히 一九三六년도에 三남지방 일대의 수재 참상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거니와 一九四七년 황해도 평북등지의 농작물의 피해도 막대하였던 것이다。이 수해는 수원지를 파괴함으로써 한재를 격화케되며 수원을 마르게하는 반작용을 하게되어 농산물에 더욱 심한 피해를 준다。이로부터 수해의 방지는 곧 한재의 방지로 된다。

이 재해를 방비하는 대책으로 사방공사와 제방공사、하천정리、배수공사등등을 튼튼히 건설함과 동시에 조림 식수사업을 광범히 실시함으로써 한수재 방비에 대처할것이다。공화국북반부에 있어서는 금번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새二개년계획에 예견된 바와 같이 사방공사를 四、三○○정보를 실시하며 조림 식수를 一九四九년에 八만정보에다 一억七천六○만주、一九五○년에는 一五만정보에다 三억一천三백만주를 각각 식수하게 되였다。전체북반부농민들은 이 국가적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함은 곧 한수재를 방비하는 대책으로된다。

다음으로 농산물증산에 있어서 자연피해 극복의 세번째문제는 병충해 방지인 것이다。농산물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벼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곡을 소독하여 파종하면 이 재해를 받지않는다。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것을 광범히 보급하기에 노력하고있으나 지난해의 경험에 의하면 아직도 일부 완고한 농민들은 이것을 접수하지 않고 리용하려 하지않은 경향들이있다。앞으로 이러한 낡은 보수성을 극복하고 종곡의 소독 또는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약등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병충해의 피해를 능히 극복할수있다。

셋째로 정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다수확 경종법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이다。이것은 과거 두해동안에 열성농민들의 창안에 의하여 정당수확고를 고도로 높인 사실들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준다。一九四八년도에 있어서 다수확 열성농민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一九四八년도 다수확농민

도 군 별	다수확농민	정당생산량	종류
강원도철원군	리화석	一二톤六三六K	벼
평북박천군	강상훈	九톤四七七K	벼
황해도재령군	유여배	四톤三四九K	밀
"	강지갑	二톤二九七K	면화
평북의주군	강영해	五톤八二○K	옥수수
함남영흥군	강계원	七톤一二○K	마령서
황해도벽성군	한계춘	四○、○○○관	배채
함북도학성군	김순복	一、五○○관	마령서
황해도해주시	모덕훈	一六、五○○관	고구마
함남북청군	김명철	五○、○○○관	고구마
평양특별시	김재하	평당 一·四승	수수
함남신흥군	리재언	三五석	조
함북온성군	김봉태	평당 一K	연초

벼는 평년작의 三九四%、밀은 三二一%、옥수수 四九○% 고구마는 五七八%로 각각 정당수확고를 높이였다。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공화국의 농업생산의 새기원으로되는 것이며 앞으로 무한히 발지될수있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초보적이며 부분적인 현상이다。우리북반부에서 지난해에 열성농민들의 다수확 경험은 보편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왔으나 아직도 미약하다。만약 우리가 다수확 영농법을 전반적으로 보편화하였다면 보다더 높은 수확을 거두었을 것이다。앞으로 북반부 전체농민들은 새로운 과학적 영농법을 습득하며 다수확 열성농민들의 고귀한 경험을 광범히 보급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보편화함으로써 논에 一五○%、밭에 二○○%의 목표를 넘쳐완수하게 될것이다。농민들이 정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낙후한 경종법을 시급히 개선하고 계통적으로 조리있게 새로운 다수확 경종법을 전반적으로 적용함에 있다。

그러기 위하여 매농호에서 우량종 선택과 국가적 종곡경산사업을 적극 방조하여 우량종곡을 전반적으

로 도급해주도록 할것이다。 또한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농기구의 개선인 것이다。 조선농민들이 사용하고있는 농기구는 아직도 작업농률이 극히 낮은 목제품 쟁기등 아주 락후한 봉건적 농기구의 형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낡은 농기구를 그대로 가지고는 작업농률을 제고시킬수없으며 또 증산할수도없다。 앞으로 조선농민들은 낡은 농기구를 버리고 반드시 개량된 농기구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오늘 우리북반부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작업 농률을 높이며 증산할수 있는 새로운 농기구들이 점차로 발전되고 있는것이다。

그 실례로 발갈이에 있어서 심경할수있으며 작업농률이 높은 「부라우」보습 또는 사람의 노력대신에 축력에 의하여 제초할수있는 축력제초기 및 기타 새로운 농기구들이 발전되고 있는 현상들은 앞으로 조선농업에 있어서 농기구가 발전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있다。 특히 농촌당단체에서는 이처럼 작업농률이 높은 개량된 농기구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며 따라서 새로운 농기구를 광범히 보급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농업생산력 발전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또한 농민들이 증산에 필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는 것은 결핍한 시비량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일제시대에 화학비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토질이 척박하여졌다。 척박하여진 지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퇴비의 증산이다。 퇴비를 화학비료와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시비함으로써 정당수확고를 높이게된다。

넷째로 경공업원료의 생산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전체인민의 의류(衣類)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된다。 우리 북반부에서는 인민 생활에 중요한 섬유원료 증산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一九四八년도에 면화는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三배, 대마는 一二九·五%, 아마 一〇五·五%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이며 농민들중에는 아직도 공예작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앞으로 농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어 새二개년계획에 예견된 바와같이 공예작물 파종면적을 一九四九년에 四三·四%, 一九五〇년도에는 五二·六%를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의류품을 해결하는 수준에까지 증산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김일성수상의 말씀을 더욱 높이 받들어 금년부터는 면화적작지를 선택하여 전면적에 집약화함으로써 면화의 생산고를 고도로 높일 것이며 그 재배에 있어서도 낡은 경종법을 버리고 새로운 과학적 다수확 경종법을 적용함으로써 정당수확고를 높이게 될것이다。

다음으로 경공업원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는것은 잠견생산이다。 양잠은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로 보아 가장 적당하며 또한 년년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발전에 있어서 수공업적이며 아주 락후한 양잠법을 계속하고있다。 앞으로 양잠업에 있어서의 치잠의 공동사육을 장려하며 사육방법을 개선하며 병해의 방지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게 때문이다。 또한 각 농촌에서는 양잠의 사료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농호에서 전답주변에 상목재배를 실시할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양잠업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게 될것이다。 또한 우리 조선은 야잠여 매우 유망하다。 특히 평북 자강도를 비롯한 각도에는 기후 풍토로 보아 적당하며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것이다。 야잠적작지의 농민들을 공동사육림을 창설하며 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야잠림 창설을 적극 방조하여 잠견생산발전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다섯째 농촌경리발전에 중요한 목축업 발전인 것이다。 과거에 우리조선의 목축업이 발전되지못한 리유는 명백한것이다。 반봉건적 소작관계를 맺게됨을 따라 농민들은 일정한 농터에 고착되어 있지못하고 년년이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느라고 가축을 사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가축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것이다。 아직도 일부농민들속에는 가축을 사양하지 못하던 습관의 잔재가 남아있으므로 가축사양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결함을 급속히 청산하고 매농호마다 소, 돼지, 면양, 닭등의 가축사양에 큰관심을 돌려야할것이다。 이것은 농촌에서 축력을 보장하며 자급비료를 증산하며 모직물, 피혁, 유락등등의 경공업원료에 대한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농촌의 부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축산업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것은 북반부의 지세로 보아 초원이 많으므로 건초의 채취와 다즙사료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업발전은 앞으로 큰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북반부 농촌경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새二개년계획을 넘쳐완수하게 될것이다。 새二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는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의 총의로써 이룩된 인민공화국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남반부에 불법적으로 주둔하고있는 미군을 철퇴시키고 매국역도의 무리들을 타도분쇄하고 국토완정을 하루속히 쟁취할수있는 강대한 력량으로 된다。 또한 이 계획의 승리적 완수는 북반부 전체농민들의 물질문화 생활향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완정이후 남반부의 황폐된 공장 기업소 농촌경리를 부흥 발전시킴에 커다란 의의를 갖고있다。

며 따라서 남반부농민들에게 앞으로 농촌경리 발전에 대한 훌륭한 모범으로 될것이다。또한 북반부 전체 농민들은 농촌경리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에 의하여 생겨나는 농촌경제 여유력을 무엇에 투자할것인가 하는문제이다。과거 실례에 의하면 일부농민들은 경제적 여유력을 랑비함으로써 일하기 싫어하는 라타한 건달군들을 농촌에 조장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었다。농촌당단체들은 이러한 사상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전체농민들을 민주주의적 애국사상으로 교양하며 또한 근로정신을 더욱 북돋아주며 경제적 여유력을 농업확대재생산을 위한 생산력발전에 투자하는 일방 농촌문화사업에 리용하도록 전체농민들을 지도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농촌당단체와 당원들이 핵심적 역할을 놀아야할것이다。

즉 농민들의 영농에 있어서 노력은 적게들고도 생산을 많이낼수있는 개량농기구와 축력등을 구입하여 농업생산력을 일층 발전시키도록하며 가축사료를 충분히 저장하여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싸이로(家畜飼料貯藏庫)를 건축하며 부락적으로 새끼 가마니 기타 농촌부업을 공동적으로 할수있는 공동적 작업장을 설치함에 노력할것이다。또한 렵곡(粒穀)을 제분(製粉)하여、농민들이 식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제분소등을 설치함에 노력할것이다。이렇게 농민들이 농업확대재생산과 공동리용시설에 농촌경제여유력을 투자하는 동시에 농촌문화향상에도 많이 리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농촌에있어서 전체농민의 오락장이며、위안소이며、문화전당인 구락부를 발전시키며 기타 전체농민들이 다같이 즐길수있는 집체적인 문화시설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아직도 우리농촌에는 위생보건시설이 불충분하다。앞으로 우리농촌에는 부락마다 많은 목욕탕을 설비하며 각부락마다 의료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문명한 농촌을 건설함에 노력할것이다。

그러기위하여 북반부 전체농민들은 있는 로력을 총동원하여 새二개년계획의 농산 부문을 넘쳐완수함에 총집중하여야 할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 인민공화국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견고히 축성하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남반부에 비법적으로 주둔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철퇴케하고 망국적 괴뢰정부를 타도분쇄하고 하루속히 국토완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남반부에도 토지개혁을 급속히 실시함으로써 부강한 민주조국을 쟁취하게될것이다。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반동파의 최후발악

승 민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쏘련은 자기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로부터 자기군대를 철수한지 이미 오래다。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우리 공화국남반부를 자기의 식민지화 군사기지화 하려는 야욕에 날뛰고있다。

투루맨 대통령은 국회에 보내는 一九四五년 十二월 十九일부 자기교서에서 「전승이 아메리카에게 세계지도의 책임을 지웠다」라고하여 거만하게도 그의 야망을 로정하고 있는바 이 세계재패의 야몽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는 실로 광분하고 있다。제二차세계대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또 전후 국제 문제 처리를 위하여 협정된 제국제협정을 의곡、태공、묵살하여 국제협조대신에 일방적 지령을 강행시키려하며 제二차대전의 동맹자였으며 대전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다한 쏘련을 말대하여 진출하고있으며 전쟁으로 약화된 우방들을 딸라에 예속시키고 있으며 약소민족의 독립을 위협하고있다。헨리・월레스가 「우리아들들의 피가 전쟁터에서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평화의 적들은 벌써 제三차세계대전을 준비하고있다」고 일찌기 경고한바는 지금 미제국주의를 선두로 실행에 옮겨지고있다。「반공산주의」라는 구호밑에서 인민의 자유를 최후의 한조각까지 박탈하고있으며 소위 「아메리카」의 「방위」를 위하여 세계도처에 그 군대를 파치고있다。그리하면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목적을 엄폐하기 위하여 갖은 가면과 온갖 분식을 안출하고있다。그러나 민주의 향도이며 평화의 성새인 사회주의국가 쏘련을 반대하며 자유애호인민탄압에 전력을 경주하고있는 사실은 그 목적이 딸라에 의한 세계재패에 있음을 웅변으로 말한다。

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정책도 또한 그 세계

제국주의의 열망하는것이니 남반부에서 리승만망국괴뢰「정부」를 조작하여 미군의 장기주둔을 획책함은 독일에서 나치체제를 재건하며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것과같이 그 구체적 표현에 불과한것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조선인민들의 자발적 창의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탄압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반부인민들로부터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하고 미군정의 독재를 인민에게 강제 실시하였다。

그들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등용하여 그것을 자기의 앞잡이로 육성하고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인민들의 애국적 운동들을 여지없이 탄압하여 남반부를 경찰 테로 천지로 만들어 놓았다。조선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적 국가부흥을 예견한 모쓰크바 三상결정과 조선인민들의 리익과 의사에 가장 부합되는 쏘련정부의 쏘 미 량군 즉시철퇴, 조선인 자체에 의한 자주정부 수립안도 미제국주의자의 반대로 채 실시되지못하였다。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비법적으로 끌고가서 자기의 거수기를 리용하여 소위 유•엔위원단을 조직파견하여 그들 감시하에 학살과 탄압으로 소위 五•十단선을 강행하였다。결과로써 매국노 리승만을 괴수로한 미국의 괴뢰정권을 조작하여 우리조국분할을 고정화하고 남반부를 자기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영구화하려는 자기의 침략계획을 남조선에서 시종일관하게 실시하고있다。실로 망국적 五•十단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일관한 침략방법인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흉악한 방법을 미제국주의자가 조선에서 로골적으로 구체화한것이다。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남조선괴뢰단독「정부」를 조작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분활식민지화정책을 수행하는데있어 새로운 단계를 짓는것이였다。여기에서 딸라의 노예들로 구정한 소위 「유•엔위원단」의 방조하에서 망국적 五•十단선의 광극을 연출하였던것이다。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은 五•十단선을 강제실시하기 위하여 갖은 탄압, 위협, 기만, 협잡의 수단을 다하였으며 미군자신을 비롯하여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경찰, 향보단, 각종테로청년단, 각종 각급의 군정기관들을 총출동하고 비행기, 군함, 탕크, 기관총, 심지어 야구방맹이, 몽둥이 까지도 총동원하여 남반부전지역의 교통을 차단하여 전시적 계엄상태에 집어넣고 탄압 학살을 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이 혈안이 되어 날뛰던 소위 五•十단선은 북반부인민들의 힘찬 성원과 애국적 건설사업에 고무되는 남반부인민들의 영웅적 구국투쟁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실패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가지고있던 뿌로그람대로 소위 리승만괴뢰「정부」를 조작하여냈다。이때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군정의 명목으로서가 아니라 소위 리승만괴뢰「정부」의 배후에 숨어서 그의 주구인 소위 리승만괴뢰「정부」의 명의로 그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수행하고있다。제二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 련석회의에서 박헌영선생이 자기보고에서 지적한바와같이 「미국인들은 그들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五•十단선……필자 주)의 목적을 감출수가없다……그 목적은 미국인의 수중에서 무기의 역할을 놀는 단독괴뢰「정부」를 남조선에 수립함에 있는것입니다。미국인들에게는 이러한「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정책을 조선인의 손을 통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아시는바와같이 미국인들의 로골적 통치는 조선인민의 전체적 반항을 일으키고 있는것입니다。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간섭은 안하는것같이 보이면서 자기에게 충실한 주구를 통하여 의연히 전과같이 지배를 계속하려는것입니다。또한 미국인들은 그 지배를 계속할뿐만아니라 조선인을 통하여 자기정책을 더 용이하게 진행시킬수 있는것입니다。례하면 미국인들에게는 남조선애국세력 및 민주세력을 [illegible]을 통하여 탄압하는것보다 조선인으로 구성된 괴뢰「정부」를 통하여 탄압하는것이 더 나을것입니다。또한 미국인들에게는 남조선경제를 자기손에 집어쥐며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함에 있어서 이것을 자기들이 직접하는것보다 조선인민의 손을 통하여 하는것이 더 유리할것입니다。다음으로 미군인들이 단독「정부」를 필요로하는것은 그에 의거하여 조선에서 철퇴하지 아니하려함에 있습니다。미국인들은 마치 자기들은 조선에서 철퇴하려하지마는 조선인들자체—「조선정부」(소위 리승만괴뢰정부—필자 주)—의 요청에 의하여 남아있는 것처럼 표시하려는것입니다」。이같은 소기의 목적을 끝까지 추구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더욱 광분하고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비호육성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망국매족적 집단으로 구성된 리승만괴뢰정권은 전체인민의 폭풍같은 분노의 항거앞에 풍전등화같은 자기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 연장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자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천추만대에 씻지못할 매족적 죄악을 거듭하며 단말마적 광태를 연출하고 있다。매국노 리승만괴뢰정권은 인민을 탄압 학살하고 미제국주의의 「외인부대」를 만들기 위하여 소위「국군」과 경찰을 미국적으로 무장시킬 목적으로 우선「한미[illegible]」을 체결하였다。이「협정」의 내용은 「[illegible]」 미주둔군의 공동[illegible] (경찰,

통위부, 해안경비대)의 통할권과 통수권을 가급적 급속히 점진적으로 이양」할것과 「협정기간중에는 미군이 통위부와 해안경비대의 훈련과 장비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원조를 계속」할것과 「대한민국에서 철퇴를 완수하기까지 미군주둔중에 소용되는 지역과 기구의 사용」(一九四八년八월二十六일부 경향신문)을 규정하였다고 한다。이렇게 미제국주의자는 반인민적 리승만괴뢰정권을 통한 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고있다。

그다음에 매국노 리승만괴뢰정권은 자기상전인 미제국주의자에게 더욱 영합하기 위하여 미군대에게 뿐만아니라 일반 미국인의 리익에 복무되고 미국인의 마음에 드는것이면 「동산 또는 부동산, 유체 또는 무체를 막론하고」 그 소유권까지 합께 영구히 미국인들이 취득하게하는 소위 「재정 및 재산양도에 관한 한미협정」을 체결하고있다。

다음에 만들어낸것이 작년 十二월十일에 체결된 소위 「한미경제원조협정」인바 이것은 남반부 전경제권을 미제국주의자가 자기수중에 수탈하고 남반부 인민들의 내정을 무제한으로 간섭하는 특권을 보장한것이다。리승만 괴뢰정권의 매국협정체결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않는다。소위 리승만괴뢰정권은 절정방화에 광분하는 미제국주의자의 일본재무장정책에까지 이바지하기 위하여 「년一천六백만불의 미와 四백만불의 군수공업용 광석을 일본인들에게 주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한일통상조약」 체결을 획책하고있으며 (四월十三일부 서울신문) 미국경제협조처 한국국장 쫀손은 「명년四월까지 일본에 미국二천九백만불파를 수출」할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발표하고있다。(五월十八일부 합동통신)

× × ×

그러나 우리민족의 민족적 영웅이시며 지도자이신 김일성장군을 수반으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전조선인민의 국토완정과 통일독립달성을 위한 영웅적 구국투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정책과 리승만매국도당들의 망국정책을 무찌르면서 전진하고있다。

망국적 五·十단선을 파탄시킨 투쟁에서와같이 八·二五총선거에서, 위대한 쓰딸린대원수에게 드리는 전조선인민의 감사문서명 투쟁에서 공화국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한 또 지방주권기관의 토대를 일층 공고히 하는 三·三十지방주권기관선거를 위한 북반부인민들의 전설투쟁에서, 남반부인민들의 十一월三十일 총파업투쟁에서, 절해고도 제주도의 무력유격투쟁으로부터 광범한 지역에서 전개되고있는 모든 영웅적 유격투쟁에서 전조선인민들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공화국정부의 정강 정책을 높이 받들고 자기의 투쟁을 더욱 과감히 진행시키고있음을 보여준다。

전조선인민들의 이와같은 거족적 구국투쟁앞에 그 운명이 며칠남지않은 괴뢰「정부」의 망국도당들은 자기들의 잔명을 일각이라도 더 연장하여 보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국토완정을 쟁취하기 위하여 영웅적 투쟁에 총궐기한 남반부인민들에 대하여 무제한한 대량학살과 무조건 대중탄압의 단말마적 발악으로써 전 남반부지역을 애국투사의 묘수장으로 만들고있다。미국인의 수중에서 도구의 역할을 놀며 조선인민을 학살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의 고용교형리 (雇傭絞刑吏) 인 리승만과 그 도당들은 여수「국군」의 반란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진면목을 더욱 명백히 나타내고있다。

일부의 실례를 몇가지 들면 작년十월二十二일에는 순천(順天)에서 二十二명의 애국인민을, 十월三十일에는 순천에서 또다시 七十명(주로 남녀중학생)을, 그리고 여수에서는 十三명을 총살하였으며 (十一월二일부 자유신문), 十월二十일부터 十一월十일까지 사이에는 실로 三천九백三十八명의 인민을 「폭동협의자」라는 명목으로 전부 학살하였다。十一월四일에는 량산군(梁山郡)에서는 애국자 박도홍, 홍기현 량씨를 발견즉시 사살하였으며 十一월八일 남원(南原)에서는 十명의 애국자들 검거총살하였다。정읍(井邑)에서는 남로당 군당부 부위원장외五명을 체포하자 무조건 사살하였으며(전주十一월十五일합동) 十一월十九일에는 구례(求禮)부근에서 소위「국군」은 애국투사 四五〇명을 체포하여 그중 二백三명을 현장에서 총살하였다 (十一월二十三일부 서울신문)。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위「군법회의」라하여 애국인민들을 무조건 체포 학살하고 있는것이다。불충분하고 무분적인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제二차 순천「군법회의」에서 二백六十八명을 사형에 처하였으며 제三차 여수「군법회의」에서 . 二백八十명을 사형, 二백二十六명을 장기징역에 처하고 대전「군법회의」에서는 二백二十四명을 사형, 백十명을 무기징역에 처한것을 비롯하여 (十一월十八일 및 二十七일부 민주일보) 대구, 광주(光州), 여수, 순천등 각지의 「군법회의」에서 무고한 인민들 一천수백명을 사형, 무기, 혹은 유기의 혹형에 처하고 있는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망국적 살인귀들은 인민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기 위하여 각지에 「계엄령」을 실시하고 (「반란지구」에는 두말할것도없고 十一월一일에는 전라남북도 중요지구에, 十一월二十三일에는 제주도에, 十二월二十四일에는 목포, 무안(務安)일대에) 十一월十一일에는 남반부전지역에서 오후六시이후의 방문객에 대한 무조건사살령, 十一월三十일에는 미

라산포자에 대한 사살명을 발하였으며 十二월一일부터는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놓은 「국가보안법」을 실시하여 무제한 탄압 학살을 그나마 합법화해보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들은 이와같은 중세기적 팟쇼적 수단과 방법으로써 남반부각지에서 닥치는대로 애국인사와 무고한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 하고있는데 十월중 서울에서만도 一천九백명을, 검거하였으며 전남지방에서는 十一월三일부터 十一일까지에 三천五백三十九명 그후에 계속하여 수백명을 검거 투옥하였다。(十一월十七일부 민주일보) 매국 「국회」 의원 김옥주(金沃周)까지도 「「폭동군」이 부락에 내려와서 밥을 얻어먹고가면 그후에 「국군」이와서 반군에 협력했다고 처벌」 한다고 말한바와같이 (十一월十五일 합동) 그들은 유격대에게 밥을 지어준 가족은 물론 그 친척까지도 협력자라하여 가혹한 보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동매국노들이 제아무리 가혹한 탄압과 도살을 감행한다하더라도 조국의 국토완정과 통일독립을 지향하는 남반부애국인민들은 그들의 구국투쟁을 잠시도 중지하지않을뿐만아니라 날로 더욱 격화시키고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미군 즉시 철퇴와 리승만괴뢰 「정부」 타도를 부르짖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은 이와같은 탄압과 학살에 의하여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층 격화되고있다。특히 우리의 해방의 은인인 위대한 쏘련군대의 완전철거, 우리공화국의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과의 국제적 관계 추진 및 공화국북반부의 인민경제계획의 혁혁한 성과등에 고무된 남반부인민들은 더욱 치렬한 구국투쟁을 전개하게되었다。이리하여 남반부인민들의 조국통일과 민주독립을 위한 투쟁은 남반부의 거의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점점 더 확대되고있다。

이와같이 나날이 치렬화하는 인민들의 반대투쟁에 당황한 리승만괴뢰「정부」의 매국반역도당들은 오늘날 문자 그대로인 단말마적 발악으로써 경찰, 「국군」, 테로단들을 총동원하여 가장 악랄하고도 비렬한 방법으로 애국인사들과 일반 인민대중을 검거, 투옥, 고문, 학살하고있다。

그들은 다만 남로당, 민애청, 민주주의정당 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그 한가지의 리유로써 무조건적으로 대량 검거 투옥하고있으며 또 이미 진부한 상투수단인 「三·一절기념폭동음모」 「요인암살계획」 「五·一절기념폭동음모」 동을 허구날조하여 탄압, 도살을 강행하고있다。또 소위 「범인의 자백에 의한 현장조사」 라 하여 산중으로 끌고가서는 「제지(制止)」에 불응하기때문」 이라는 구실로 총살하고있으며 「폭도」의 소재를 안내하라고 다리고

가서는 현장에 「폭도」 가없다는 리유로 그 자리에서 총살한다。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폭도」에 협력한다는 리유로 산악근방촌락을 송두리채 방화하여버리는 사실이며 또 평화인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토벌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최전선」에 강제동원하여 총바지로 삼으려는 한편 무장항쟁부대와 인민을 리간시키려는 흉책을 쓰고있으며 이에 응하지않으면 「폭도」를 원조하는것이라하여 더욱 잔인한 학살을 조직하고 있는것이다。

일반에 알려진 최근의 실례를 다음에 몇개 들어보기로하자。(그러나 이것은 불충분한 자료에 의한것이며 따라서 실제사건의 극소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금년二월한달동안 서울경찰국이 검거한 「정치범」의 수는 동국이 발표한 숫자에만 의하더라도 四백二十四명의 다수에 달하며 그들은 전부 남로당, 민애청, 또는 민주학련에 가입한 애국자들이라고한다。(대동신문 三월十일) 三·一절을 전후하여 례의 상투수단인 소위 「모종음모사건」을 「미연에 탐지」하였다는 서울시 경찰국 관하 각경찰서에서는 二월二十七일에 남로당, 민애청, 민주학련등 관계자 四백二十五명을 검거하였는데 그중에서 이미 송청한자 二백四十一건에 달하며 취조중이 一백八十四건이라고한다。(조선중앙일보 三월十一일) 또 二월二十三일에는 연희대학생 四十여명을 검거하였다。특히 三월二일에는 하룻동안에 남로당원 三백여명을 검거하였다。(국제신문 三월四일) 또 三월一일부터 十三일까지에 민애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환기, 동조직부장 리명복, 선전부장 김영기, 민애청 서울시위원장 고광옥등 제동무를 비롯하여 五十여명의 청년을 검거하여 살인적 고문끝에 三월二十五일에는 고광옥동무등、十二명을 이미 송청하였다。(동아일보 三월二十六일) 또 동기간중에 「유·엔신위원단」 반대협의로 남로당원 三十九명이 검거되었다。(자유신문 三월十七일) 三월二十四일에는 서울에서 리태찌외 五명을 남로당원이라하여 검거하였으며 三월二十九일에는 량산(梁山) 경찰서 무장경관 二〇명이 동군 원동면(院洞面) 남로당 아지트를 습격하여 二명 사살, 一명 체포하고 가옥四동을 파괴하였고 (四월五일 평화일보) 三월三十일에는 경기중학생 김위영등 수명을 민주학련에 가입하였다는 리유로 검거하였으며 그외에도 광주(光州) 사범학교에서 一백五十명을 검거하여 그중 五十명은 이미 송청되었으며 三월三十一일에는 서울에서 리경상씨외 三十一명을 남로당원 또는 민애청원이라하여 검거하였다。四월一일에는 서울의 최용섭씨등 六명의 남로당원과 대구에서 十六명의 남로당원을 검거하였으며 (평화일보 四월五일)、四월八일에는 경복 영

영덕군병곡면(盈德郡柄谷面)에서 十여명의 인민을 총살하였으며, 경주군견곡면(慶州郡見谷面)에서는 청년들이 집회하였다는 리유로 장성화외 八명을 총살하고 동군 약복면에서는 二명을 리유없이 총살하였다. 동일 전라남도 함평군해보면(咸平郡海保面)에서는 비밀집합소를 알려주지않는다는 리유로 김당근을, 총살하고 보성군보성면에서는 똑같은 리유로 박규남외 四명을 총살하였으며 四월十일에는 경북 영덕군축산면(盈德郡丑山面)에서 三十一명의 남로당원을 총살하였으며 동일 서울에서는 동국대학학생 七명을 민주학련세포(細胞)혐의로 검거하였으며(조선중앙일보四월十三일), 四월十一일에는 전남해남군(海南郡)에서 二〇여명과 광산군(光山郡)에서 一명을 총살하였으며, 四월十二일에는 역시 해남군에서 一명을 학살하였으며, 四월十三일에는 역시 동군에서 十九명을 학살하였고, 四월十四일에는 대구에서 북녀중학생 三十六명과 사범대학 부속중학생 二十二명을 검거하였으며(대구十八일발 합동통신), 四월十五일에는 대구녀상학생 十九명을 검거하였고, 四월十六일과 十七일에는 전남 령광군(靈光郡)에서 五명, 함평군(咸平郡)에서 一명을 각각 학살하였다.

조국의 국토완정과 통일독립을 갈망하는 수다한 애국자와 무고한 인민의 선혈로 물들여지고있는 남반부전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더욱 혹심 극악하여가는 망국적 리승만괴뢰「정부」의 발악상은 그 례를 이루 다 매거할수없다.

끝으로 대표적인 몇가지 례를 더 들어보자. 四월五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서는「五·一절에 제하여 시위를 단행할 기색이 보였다」는 리유로 남로당원 六十명이 검거되었으며(동아일보 五월十二일) 四월二十五일에는 전남 해남군(海南郡)에서 당년 六十四세나는 김대금이란 늙은 할머니가 녀성동맹원이라는 리유밑에 총살당하였다. 지난 五월五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소위 무기공장사건이란 명목을 붙여 불법 검거한 박성만씨등 九명의「공판」시에 피고들이 일제이「우리들은 괴뢰정권인「대한민국」을 인증하지않는다. 그러므로 그「법률」의 적용을 받지않겠다」고 항거하자 이에 당황한 괴뢰「정부」「재판관」은 아무런 사실 심리도없이 김주명씨등 四명에게 사형을, 기타三명은 무기징역에, 나머지 二명에게는 장기징역으로 각각 극형에 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五월十일) 또 五월十一일부 동아일보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五·一절을 계기하여 지난 四월중순부터 검거가 시작되고있었는데「서울시경찰국」을 비롯하여 각「경찰서」「파출소」의 경관, 형사, 간첩들이 총동원하여 가택을 수색하며 매일같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검거에 광분하고있어

영동포에서는 五월九일현재 一백五十명이나 검거되었다고 한다. 또 지난 五월十五일에는 교육자협회관계자라고하여 최대원씨를 비롯하여 서울시내 진보적교원 四十여명을 검거투옥하였다. (五월十九일발 합동통신)고 하며 기타 교원의 파면정도는 부지기수다.

또하나 천인공노할 사실은 무고한 보성지구 청년들의 학살이다. 즉 지난 四월二十八일 남반부 유격항쟁부대가 경전서부선 명봉(鳴鳳)역과 동경찰지서의 기습소탕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둠에 대하여 당황한 순천(順天)지구「국군」은 보성군로동면(盧洞面)일대에서 조종안외 十五명의 무고한 청년들을 검거하여 온갖 악독한 고문을 자행한끝에 지난 六일오전十시경 로동면 명봉리에서 총살하였다한다.

다음에 절해의 고도 제주도의 영웅적 인민들의 구국항쟁에 대한 매국노들의 탄압, 학살정책은 특히 악랄하고도 잔인무도하다. 무장항쟁이 일어난지 一년동안에 二만명이상의 인민이 피살되었으며 그중에는 항쟁부대에 밥한그릇을 준「혐의」로 학살된 로인들과 녀학생들도 수많이 들어있다. 제주읍을 중심으로하여 그들은 소위 제一선, 제二선, 제三선의 경계망을 느리고 제一, 제二선부근은 주민들이 무장항쟁부대를 원조하는「혐의」가 있다하여 전체 면가와 학교를 방화 소각하여버렸으며 따라서 이 부근에는 단一명의 주민도 볼수가 없는것이다. 매국국회의원 주기용의 보고에 의하면 이리하여 소각된 가옥은 一만六천一백七十七진에 三만一백六十동이며 이에 따르는 리재민은 八만六천七백九十七명(三월十八일부 합동통신)에 달하며 또 소각된 초 중학교수는 四十여교에 달한다.

그들은 이와같은 초토작전으로써 제주도인민을 모조리 도살하여버리려는 학살정책을 감행하고있다. 극악무도한 박진경대령(朴珍景大領)을 암살한 애국투사 손선호(孫善鎬)동무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기 박진경은 제주도인민들을 무조건학살할것을 명령하였으며 이결과「十五세가량되는 유년이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통곡하는것을 무조건 사살」하였으며「사격련습을 한다고 소 기타 가축을 닥치는대로 죽였다」(四八년八월十五일 조선중앙) 최근 한림면(翰林面)에서 체포된 항쟁용사 五명의 녀학생을 갖은 야숙적 고문을 다한끝에「나와같이 살면 살려주겠다」고 피여 이에불응하자 총살하여버렸다. (三월二十五일 노력자)

이같은 제주도인민들에대한 학살을 일층더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경찰과 국군 및 테로단물을 다수 파견하고있으며 그들을 격려 지휘하기 위하여「국무총리」리범석,「내무장관」신성모,「대통령」리승만, 미군고문 웰터리·하따더통이 빈번히 제주로에

황폐하고있다。

놈들의 이같은 최후발악적 탄압과 학살의 결과 제주도는 완전히 황폐화하고있다。 그 참상은 「나무잣관」 신성모의 시찰담에서만도 넉넉히 엿볼수있다。 즉 「내가있는동안 제주도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말하며 얼굴을 마주보는사람이 없었으며 의례히 땅만 들여다보는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었다。 상점에는 상품이 없고, 시장에는 사람이 없고, 바다에는 고기잡는 한사람의 해녀도 볼수없었다。 왜정시대에는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못했지만 한국의 군경 (軍警) 앞에 왜 고개를 들지못하느냐고 말한적도있다」고 그들 매국도당의 최후발악적 무참한 학살, 초토정책의 결과를 자기자신이 고백하고있다。 (三월二十一일 합동통신)

망국적 리승만괴뢰 「정권」은 그 잔명을 연장 유지하기위하여는 실로 무소불위라 그들은 남반부인민의 탄압 학살의 도살정책과 병행하여 회유, 기만, 매수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있다。

리승만괴뢰정권은 열화같은 남반부 농민들의 토지개혁요구를 기만, 현혹하기 위하여 소위 농지개혁명을 만들고 있으며 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중심구호인 「미군즉시철퇴」에 대한 사회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흉악한 三八도발행위를 야기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소위 「미군철퇴교섭」 「미군철퇴운운」의 데마고기를 류포시키는동시에 한편으로는 그의 졸모 조병옥을 미국에 파견하여 「한미군사협정체결」을 책동하고있다。 즉 워싱톤 四월十二일발 에이·피 통신에 의하면 리승만 망국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미국 회랍간에 체결한것과 류사한 군사협정 체결을 요청」하고있으며 한편 「조병옥은 미국이 대규모적 륙해공군원조를 「한국」에 줄것을 규정한 상세한 제안을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수교하였으며 또 「한국」 군대의 훈련을 지도할 군사사절단을 파견하여달라고 요청」하고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한국정부는 약十만명의 현역으로되는 六개 보병사단과 五만명의 예비병과 약五만명의 경찰을 확립하기위한 충분한 무기와 장비를 원하고있다」

둘째 「한국은 전투기로 구성된 각종의 비행기 약 백대와 三천명의 비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요청한다」

셋째 「해군에 관해서는 잠수함 一척을 포함한 각종의 함선 五十척이상과 一만명의 해군에 대한 무기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숫자는 남조선의 지리적 안전 조건으로 보아서 이것은 대가리에서 발끝까지 철저한 무장을 하게되는 것이다。 농사를 짓고 기계를 돌리고 광산을 개발하여 인민경제를 부흥발전하는 대신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하는 도구인 이 군비는 도대

체 무엇에 쓰자는것인가。 이것을 저들은 발표하기를 「미국과 회랍간의 군사협정과 류사한」 것이라고 서슴치않고 대답하고있다。 악명높은 미국과 회랍간의 군사협정에 의하여 군비원조를 받은 회랍왕당파시스트들은 자기국가주권을 팔고 얻어온 미국무기로써 회랍의 독립과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무수한 애국적 회랍인민을 학살하고있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사실이다。 그러므로 리승만 매국 「정권」이 미국과의 새로운 군사협정으로써 요청하는 이 군비원조의 목적이 또한 남반부에있어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애국인민을 더욱 대량학살하자는데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요, 저들도 이를 숨기지않고 로골적으로 말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리승만은 구라파를 미국에 예속시키기위한 계획인 「마-샬안」과 동일한 「매아더안」을 태평양제국에 실시할것을 제의 (련합신문 四월九일) 하면서 새전쟁방화자들에게 충성을 다하고있다。

× × ×

오늘날 리승만매국도당들은 자기들 일파의 잔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전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공화국남반부를 송두리채 미제국주의에 내주려고 백방으로 시도하며 이를 반대하는 애국인민들을 전대미문의 야수적 탄압과 학살로써 도살정책을 감행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가혹화하기 위하여 무장에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기를 높이들고 김일성수상령도하의 공화국정부주위에 강철같이 뭉친 전조선인민은 조국의 국토완정과 통일독립쟁취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있어 북반부인민은 공화국의 경제적,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닦는 二개년인민경제계획 초과달성을 위한 민주건설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남반부인민들은 미군철퇴실현과 리승만괴뢰「정부」타도를 위하여 영용한 항쟁을 전개하고있다。

절해고도에서 무장유격전을 계속하여 五·十망국단선을 파탄시켰을뿐아니라 지금도 국내외 반동의 간담을 서늘케하고있는 제주도인민들은 리승만 괴뢰「정권」의 「국방장관」 신성모로 하여금 「그들은 (인민항쟁부대) 훌륭한 훈련과 강력한 조직을 가졌기때문에 경험없는 군대의 六천이나 六만을 능히 감당할수있으며 강력한 조직과 민첩한 활동을 하고있다」고 고백케하고있다。 (三월二十一일신문기자회견담)

련합신문 三월十六일보도에 의하면 충북 옥천군 장산면과 전남 무안군 다대면에는 [illegible] 인민해방구가 설정되어 인민위원회가 [illegible] 이 해방지구에는 리승만괴뢰 「정권」의 「군」이 [illegible] 못하고 군경의 힘이 가지도 못하며…… 분전하

별개의 정부가 구성되었다」는것이다。뿐만아니라 지난 四월五일에는 지리산지구 인민무장항쟁부대들에 의하여 전북 장수군 반암면(長水郡반岩面)에서 해방구가 란생되었으며 지리산을 중심으로하는 구례、산청、함양등 제군에 있어서도 여러개의 면들이 해방되어 이 지역들에서는 인민의 손으로 반동분자가 숙청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공화국정부 정강이 실시되고있다。덕유산을 중심으로하는 무주、진거창동 제군에 있어서도 유격부대가 맹렬하게 진출하여 군경의 소위「토벌대」를 위압하며 소탕하면서있다。

미군을 즉시 철퇴케하며 리승만괴뢰「정부」를 타도키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은 북반부인민들의 민주건설에 고무되면서 직접 무장항쟁의 유격투쟁이 거의 남반부전지역에 벌어져 날로 치렬화하여감과 아울러 전체인민의 무진장한 애국적 력량의 창의적이며 조직적인 대중투쟁이 더욱 격화되어가고있다。

삐라만 뿌려도 무조건 사살하라는 전대미문의 야만적 테로 학살의 조건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인천、대구、광주 등지를 비롯하여 남반부전지역에서 삐라투쟁이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고있다。최근 몇개 실례만을 들어도 三·一절 전후의 서울、경북 봉화、의성、경남 통영、함평등지와 三월말에는 경북 경산、청도、포항、경남 사천、창원、동래、경기 인천、소사、수원、시흥、김포、안성동지가 그 대표적인것이다。「미군은 즉시 철퇴하라!」「리승만매국정권을 타도 분쇄하자!」「유·엔신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를 중심으로「민주주의애국자 투옥학살반대!」「량곡강제공출반대!」「북조선과같은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하라!」등등의 구호를 들고 또한 소위「국방군」병사의 가족들에게 아들을 소환하라고 호소하고 있는것이다。특히 五월十一일부「조선중앙일보」에 의하면 김애자(二〇세)、최옥순(一八세)의 두애국녀성은 지난五월八일 오후七시경 용감하게도 서울시내 영화관 단성사내에서 애국삐라를 산포하자 반동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는데 그 삐라내용은「미군즉시철퇴!」「리승만괴뢰「정부」타도!」였었다。

살인경찰의 엄중한 경계망을 뚫고 애국적 인민들의, 봉화시위투쟁도 또한 적렬하게 전개되고있으니 최근의 실례만 보더라도 인천、고흥의 시위、서울 영암、창원、달성、평천、론산、청수、삼척동지의 봉화투쟁을 들수있으며 인민들을 교양 조직하는 군중대회로써 화순과 청도 몇 산청의 실례를 들수있다。화순군의 군중대회에서는「량곡을 절대로 내놓지말자고」결의하였으며 청도에서는·「미군철퇴를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히 투쟁할것과 반동분자를 응징할것」을 결의하여 이를 실천하고있다。

공화국국기 게양투쟁의 대표적 례로서는 三월四일 리승만괴뢰「정부」의 중앙청앞 국기게양대에 공화국 국기가 종일토록 게양된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국토를 완정하고 완전통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계속전개하고있는 영웅적 인민무장항쟁은 문자그대로 남반부전지역에 걸쳐 확대발전하여가고있다。소위 리승만괴뢰「정부」의 호남지구 전투사령관 원용덕의 망국「국회」호남시찰반 신성균 김교중「의원」등과의 회견석상 담화는 이 인민무장항쟁의 확대발전상을 웅변으로 말한다。 즉「전남일대의 일반형편을 볼것같으면 반란군(인민무장항쟁부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A급 민간「폭도」들이 잠재하고있는 지대가 二十八개면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B급이 있는곳이 八十五개면이며 회색분자의 C급이 있는지대가 一백三十여개면이 있는데 三월一일전후를 기하여 이들은 C급이 B급으로 B급이 A급이되어 사상적으로 강화되었다」라고 탄식을 하고있다。(고려통신) 이같이 요원의 불같이 뻗어나가는 인민무장항쟁은 남반부 八도의 三부七十七군二백八十三개면에서 치렬하게 전개되고있으며(二월二十일현재) 인민위원회를 복구한 해방지구가 제주도를 위시하여 전남 구례(求禮) 무안(務安)、충북옥천(沃川)경남산청(山淸)、함양(咸陽)、전북 장수(長水)의 七개지방에 달한다(四월五일 현재)。무장유격대의 항쟁은 반동매국「정부」의 초토보복전과 무차별적「토벌전」에도 불구하고 날로 그 범위를 넓히며 그 투쟁은 치렬화하고있다。최근에는 특히 경남 전남및 충북지방에서「국방군」의 소위「토벌대」를 소탕하여 기세를 떨치고있으며 일익 더욱 전진확대되고있다。

전조선인민의 이같은 영웅적 구국투쟁은 최후단말마적 발버둥질을 치는 리승만 반동진영으로 하여금 점점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게하며 반동자체내부모순을 격화시켜 파멸의 일로를 달리게 하고있는 이지음 공화국남반부 토지개혁법 초안작성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준비위원회결성의 사변은 이에 더욱 타격을 가중하고있다。

공화국정부와 김일성수상주위에 강철같이 단결된 전체조선인민은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한 강력한 세계민주력량의 지지를 받고있으며 새전쟁을 방화하며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반대하여 전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과 튼튼히 손잡고 투쟁하고있으니「인민과 고립되고 나라를 팔아먹는 몇개의 망국노놈들이 동족상쟁과 내란을 부르짖지마는 놈들은 우리공화국 기치하에 접결된 전체인민들의 처단과 심판을 받을 날이 오래지않을것이며 단일 민족의 울구한 력사를 가진 이 강토에서 그들의 자취가 영원히 없어지게 될날이 오래지않을것입니다」라고 신년사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말씀은 머지않아 현실화될것을 굳게 믿으면서 전조선인민은 필승의 자신과 기개로써 만난을 뚫고 적을 무찌르면서 승리에로 더욱 용감히 전진하고있다。

(一九四九·五·二〇)

참고자료

선진사상의 발생 및 발전과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그의 역할

프·브·콘쓰딴찌노브

머 릿 말

결정적이며 「위기적인」 전세계사적 시대들은 사회의식령역에서의 변혁과 사회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의 변경과 다소간이라도 근본적인 「귀중품의 재평가」와 언제든지 관련되었던것이다。이 혁명적 시대들은 인민의 력사、인류력사에서 예리한 사상적 투쟁을 동반하였던것이다。

그것은 례를 들면 고대 노예소유세계가 멸망에 이르렀을때에 새로 발생한 기독교는 고대의 퇴폐하여가는 사교(邪敎)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이 사상적 투쟁은 계급투쟁을 반영하였던것이다。그의 승패는 자명하다。

서구라파에서 十八세기와 그 이후 봉건 사회가 정치의 선진적이며 혁명적이었던 부르죠아지의 숙적을 반대하는 치명적 투쟁을 하였을때 기독교 사상은 계몽자들의 유물론적 및 무신론적 비판의 공격하에서 구축되고 멸망하였다。

성장하고 번영하는 부르죠아지는 봉건전제의 정치적 원칙과 봉건군주주권과 계급적 불평등의 「신적(神的)」기원의 원칙에、리성(理性)과 「인간의 확호한 자연적 권리」의 원칙에대하여 민주주의、자유、평등과 우의의 원칙을 대치하였다。

부르죠아 사상이 봉건 사상을 타승한것은 귀족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승리와 봉건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서 산업 자본주의는 썩어져가는 독점적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로 전환하였다。

현대 자본주의는 보다더 심각화하며 첨예화하여가는 내재적 모순과 피치못할 멸망에로 끌어가는 치료할수없는 내재적 질병을 발로하면서 전반적 위기의 시기를 체험하고있다。물론 자본주의는 속이 썩어진 나무와같이 저절로 멸망하거나 쓸어질것이 아니며 자본주의의 자체가 조성한 혁명적 세력만이 그를 전멸시킬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세력은 우선 로동계급—근로인민의 전위대、세계에 있는 전체 진보적 선진적 인간의 전위대이다。

로동계급은 력사적 투쟁의 활무대에 나섰으며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치하에서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사회주의는 벌써 세계의 六분의 一、쏘련에서 승리하였다。구라파의 제국가에서는 사회주의가 당면 순서로 나섰다。과학적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상 즉 맑쓰—레닌주의의 사상—이것은 가장 진실하고 생활적이며 혁명적인 절대 사상이다。그는 력사적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수백만 인간의 리해관계、기대、사고(思考)、지망을 표현한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의 각처에서 수백만 근로자들을 자기의 편으로 계속하여 쟁취하고 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사상을 반대하여 지금 낡은 세계의 모든 반동세력과 반동과 미개화주의의 모든 옹호자—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공화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소위 사회주의자들、공개적 또는 은폐된 파시스트들、법왕을 수위로한 카톨릭크교도와 프로테스탄트교도、트루맨과 처칠、드·골과 프랑코、장개석과 배빈동이 무장하고 나섰다。

반동은 선진 사회 사상과 정치 리론을 반대한 사상적 공격을 강화하는것과 정치 투쟁들과 동반한다。반동의 사상적 공격은 진보적 세력을 반대하는、사회주의를 반대하는、인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자기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자채로써 해결할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유애호 인민들을 반대하는 그의 정치 투쟁 형태중의 하나이다。

부르죠아 사상가들이 흔히 말하고있는 「정신적 공황」전통적「정신적가치」의「일반적의의」의 상실(喪失)은 즉 인간 두뇌에서의 반영이며 전(全)자본주의 체계위기의 표현이다。

현대 반동분자들이 선진적이요、혁명적인 현대 사상、과학적 사회주의、맑쓰—레닌주의의 차장영향의 여제할수없는 장성을 방지할수있는가? 현대의 계급투쟁과 진보와 반동세력간의 투쟁에서 사상적 투쟁、정치적 사상과 리론의 투쟁이 어떤 의의와 지위를 차지하였는가? 이 투쟁의 전망은 어떤것인가?。

이 문제 또는 그와 상사한 문제들은 현하의 정치적 자변의 의의와 력사적、발전의 전망을 알며

고하는 그 모든자들 앞에서 발생하는바 이것은 사회 발전에서 선진 사상의 역할에대한 문제에 현금의 당면 리해관계를 붙이고있다。

우리 시대—이는 인류사에서 가장 큰 혁명적 시대이다。 쏘련에서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있는 인민은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완결과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전환의 거대한 프로그람을 실현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 발전에서 사회주의 의식, 선진 사상, 맑쓰-레닌주의 리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가?

사회주의사회 발전에서의 사회적 의식 및 선진 사상의 역할은 전(前)사회주의 제도, 발전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특수적으로는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의식—지배적인 사회적 사상의, 역할과 동일한것인가?

이 모는 문제에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할수있게 하기위하여 사회적 사상, 견해, 정치적·리론의 변경이 무엇으로써 조건지어지는가?하는것을 우선 반드시 설정하여야한다。정신적 사회 생활 조성의 원천과 사회적 사상, 사회적 리론, 정치적 견해의 출발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사에서 관측되는 사회 사상, 견해, 리론의 교대에서 일정한 법칙성이 있는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여기에서는 무엇으로든지 제약(制約)되지않는 자유로운 지력(智力)의 역할과 횡포(橫暴)에 모든것이 복종되었는가? 정신적 사회, 생활의 조성원천에 대한 제문제를 관찰하는것만이 사회 발전에서 선진 사상의 진실한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할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상적 투쟁의 진실한 의미를 인식할수 있으며 그의 전망을 볼수 있는것이다。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관념론 학파의 각종 대표자들은 일정한 사회구조를 그에 적합한 사회적사상, 견해, 리론으로서 설명하며 사회의 변경과 발전의 원천은 이 사회적 사상, 견해, 리론의 변경과 발전에서 찾아본다。

관념론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사상과 정치적 리론의 발전은 자립적, 독립적, 자급 자족의 과정인것이다。

즉 헤겔에 의하면 사회적 사상의 변경과 발전의 원천은 신비한 절대리념(絶對理念)혹은 세계정신(世界精神)에 있다는것이다。다른 관념론자들은 그 국가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회 사상을 「민족정신」혹은 「인민 정신」의 신비한 특정의 변경에서 취하였다。 제三자들은 사상의 발생과 변경에 대한 헤겔적 및 인종적 해석을 비과학적 「형이상학적」사상으로서 거부하였다。그들은 사회적 사유(思惟), 사회적 사상, 정치리론의 발전 과정을 「사실적으로」소개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사상과 리론 해석에 있어서 그 국가와 그 시대의 일정한 사유가(思惟家), 사상가, 리론가가 창조하는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정치적, 사회적, 리론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떠한 사상가, 리론가는 왜 사회, 국가, 법률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 리론과 학설을 창조하였는가 하는것을 그 사상가의 지력(智力)의 특질로, 혹은 선행자들에게서 일정한 사상을 모방한것으로, 동시대 사람들의 그에 대한 영향으로 혹은 이 모든 원인을 총합한것으로써 해석한다。이와같이 독히 앵글로·색쏜 국가들에 광범히 전파된 이 관념론적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 사상과 정치 리론 발전과정은 사회적 원인으로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의 범위내에 있는 어떤 다른 제二차적인 요인으로써 결정된다。이런 의미의 관념론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독일에서의 철학 사유 발전사에서 칸트의 철학은 피테의 철학을 산출하였고, 이 철학은 쉘링그의 학설을 생활에로 초래하였으며, 이 모든 철학가들의 학설은 헤겔의 철학 사유의 발생을 결정하였다。

한 사상 체계를 다른 사상 체계에서 취하는 부르죠아 사상가들을 비판하면서 엥겔쓰는 이 사상가(思想家)들은 사상과정의 진실한 동기, 원인을 알지못하면서 그 과정의 허위적이요, 외견적(外見的)인 동기, 재력에대한 관념을 창조한다고 말하였다。사유과정에 대하여 말하게된것만큼 그들은 사상의 내용과 형태도 순 사유—혹은 자기자신의 사유 혹은 자기 선행자들의 사유에서 취한다。 마치 사유(思惟) 자체로서 발생된듯한 사유자료만을 취급하면서 그들은 각종 인간의 활동은 결국 사유를 경유하여 결정된다고 하는것만큼 그는 사유에 근거하였다고 추측한다。

「관념력사잡지」란 미국 철학 잡지의 주필 로벧죠이의 사설은 사상발전에 대한 이와같은 관념론적 견해의 실례중의 하나로 될수있는것이다。

이 론문에 로벧죠이는 사회적 사상의 인식, 그의 발생 조건과 서로 엉크리는것과 발작용의 발도에 대한 인식, 사상이 상상과 정서(情緖)와 품행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해—이 모든것은 력사의 중추적이요, 가장 생명적인 부분이라고 썼다。

로벧죠이는 사상발전에서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리론을 반대하였으며, 사상 발전을 사회적 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의향을 가진 리론을 반대하였다。 이것은 사상의 발생발전에 대한 대표적인 관념론적인 견해였다。

로벧죠이는 사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든것을

타산하였다。그는 도덕적 표준에 대한 철학적 및 과학적 사상의 영향, 과학에 대한 문학의 영향, 반대로 문학에 대한 과학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나, 중대하고 결정적인—사상사가 사회 물질 생활 조건 발전사에의 종속성, 사상사는 곧 계급 투쟁의 반영과 표현이란—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요인을 부르죠아 사상가 로벤죠이는 보지못하며 보려고도 하지않았다。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관념론자들은 팟쇼 사상의 발생을 해석하려고 기도하면서 그의 근원을 마키아웰리, 루텔, 헤겔, 홉쓰, 쳄바렌 학설에서 찾아본다。그러나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사회 사상의 진실한 사회적 근원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체계하에서와 부르죠아 사회와 그 계급의 현실적 생활 조건에서 공개하기를 겁낸다。구체적으로 팟쇼 사상에대하여 말하게된것만큼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현대적 계단과 제국주의와 반동, 적 팟쇼 사상의 중요한 고무자, 창조자, 전파자로써의 반동 부르죠아지사상과 련계를 맺을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

팟쇼 사상가 자신이 사람을 증오하는 자기의 리론을『우수한』인종의 신비한 특징에서—독일 이태리 또는 일본 민족의『민족 정신』에서『취한 것』이다。그런데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근본적이요, 중요한 팟쇼 사상의 공통성은 이 반동적 제국주의 사상의 실제적인 사회적 지반을 폭로한다。

사회 과학의 과업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권력이 지력(智力) 위에서 일정한 사회적 사상, 견해, 정치, 리론, 종교학설, 도덕 원칙밖에서 발생하였으며, 널리 전파되었으며, 획득하였는가 하는것을 해석하는데 있다。

이것은『인민 정신』의 신비적 특성으로도, 공상적인 인종의 특성으로도, 어떤 사상가 혹은 정치 활동가의 지력의 특성으로도 해석하지 못하는것이다。

철학 사유(思惟)의 최고 문제도, 경제 리론도,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엄밀한 과학 체계도, 세계에대한 인간의 공상적, 종교적 견해도—모두다 사회의 물질 생활의 조건에서 해석되며, 계급 사회에서는 우선 계급 관계에서, 계급 투쟁에서 찾아내는것이다。

『만일 자연, 실재, 물질적 세계가 一차적이고 의식과 사유는 二차적이며, 파생(派生)적이라면, 만일 물질적 세계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 현실이고 의식은 이 객관적현실의 반영이라면, 사회의 물질적 생활과, 그 존재도 또한 일차적이되며, 그 정신 생활은 이차적이되며, 파생적이되며, 또 사회의 물질적 생활은 인간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는 객관적 현실이며,』

사회의 정신적 생활은 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며, 존재의 반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되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정신적 생활의 형식의 원천, 사회적 사상, 사회적 리론, 정치적 견해, 정치 기구의 발생의 원천은 사상, 리론, 견해 및 정치기구 자체가운데서 탐구할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제조건가운데서 이 사상, 리론, 견해 및 기타가 그의 반영인 사회 존재가운데서 탐구해야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사회의 존재여하에,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여하에, 그 사회의 사상, 리론,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구들이 상응하는것이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五四五페지)

사회적 의식, 사회적 견해와 물질적 사회 생활 조건, 우선 물질적 부(富)의 생산 방법과의 직접 관련과 의존성은 인간의 활동이 아직 사회 생활 재생산의 유일한 과정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아직 계급이 없었으며 인간의 특별한 그루빠 즉 정신 로동의 독점자들이 없었던 때인 인간사회 발전의 이른 계단에서 특히 명확하고 직관적이었다。그때에 사회적 사상과 관념의 산생은 물질 생산의 과정에 직접 얽히었으며, 그의 불가피의 모멘트와 면(面) 중의 하나를 구성하였다。이 력사적 발전 계단에서 인간의 사유와 의식은 사회적 물질 생산과정에 부종되었으며, 그 물질생산은 생산 과정에서 인간 간에 자어진 그 관계와 또한 사회와 자연간의 관계를 직접 반영한다。

물질적 사회 생활 조건의 발전에대한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사상의 종속성은 사회 발전의 고급계단—분업, 정신적 로동과 육체·로동의 분리, 정신 로동 자체내의 차별, 지배계급의 사상과 리론의 창조자, 특별한 사상가의 분리가 발생되는때에는 복잡하여진다。

계급과 지배계급의 사상가들이 출현되면서 이 사상가들의 두뇌에는 물질적 사회 생활로부터의 사상적 과정의 자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곡된 관념이 발생하였다。이 환상(幻想)의 원천은 사회적 분업과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를 표시하는 육체로동에 대한 정신 로동의 지배인것이다。

물건이 눈의 망막(網膜)에 반영되는것은 그의 물리학적 구조로 해석되는것과같이 존재와 의식, 사회 사상과 물질생활의 조건, 이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놓는 관념에 관한 인간의 의곡된 관념은 그의 깊은 원천으로 물질적 인간 생활의 생산과정의 성격과 물질의 관계로써 상품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출하는 사회적 관계의 착란성과 복잡성 및 계급의 적대성에 기초한 사회 생활 조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맑쓰 이전에 포이엘바하와 기타 유물론자들은 종교 세계를 지상(地上)의 기초에 귀착(歸着)시켰고 종교적 본질을 인간의 본질에 귀착시켰다。그러나 왜 이렇게된다는것은 맑쓰주의가 처음 해석하였다。맑쓰는 이렇게 썼다。온갖「……사회 생활은 본질에 있어서 실천적인 것이다。리론을 신비주의에로 유혹하는 모든 신비성은 인간의 실천에서와 이 실천을 인식함에서 자기의 합리적 해결을 찾아내는것이다」(맑쓰 포이엘바하에 대한 론강「류드비흐·포이엘바하와 고전 독일 철학의 종말이란 엥겔쓰의 저서」一九四〇년판 제五九페지에서 취한 인용문)

인간을 활동에로 고무시키는 그 모든것은 어떻게든지 인간의 두뇌와 그의 의식에 반영된다。활동에로 고무시키는 원인이 의식에 반영되는것은 다소간 진리가 될수도 있고 허위가 될수도 있으며、명확하게 될수도 있으며、착란하고 공상적이 될수도 있다。이것은 환경、인간의 생활 조건、사회 발전의 력사적、계단에 의존된것이요、계급이 발생된때로부터는 계급 관계의 성숙성、계급의 처지와 생활 조건、계급적 의식의 발전 수준에 의존된것이다。

사회 발전의 시초계단 즉 원시 시대의 인간은 자연의、노예였고 자연 법칙과 자기신체 구조를 아지못하였을 때에 공상으로써 종교와 주위의 세계 및 인간 자신에 대한 의곡된 관념이 발생하였던것이다。

고대 노예소유제도의 세계에서 자연 과학、철학、예술、문학의 맹아가、발생하였다。그런데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되며 그들간의 투쟁으로 인하여 철학에서는 二개의 방향으로 즉 유물론과 유심론의 방향으로 투쟁이 진행되었다。문학과 예술에서도 또한 반동 세력과 진보 세력의 투쟁은 반영되었다。

중세기의 서구라파에서 지배적 사상 형태는 카톨릭크교와 신학(神學)이었다。종교는 모든 기타 사회 의식 형태 즉 도덕、정치적 리론、법학、예술、철학을 자기에게 복종시켰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새로운 계급적 관계에 기초하여 사상적 상부구조의 더 복잡하고 거대한 체계가 성장하였다。

봉건적 소방분립주의(小邦分立主義)、고립성、제한성과 달라서 부르죠아 시대에는 생산과 교환 발전에 의하여 그 국가 전체 지역의 련락과 민족의 호상간 다면적인 련락 및 다면적인 의존성이 설정된다。

「이것은 물질적 생산이나 정신적 생산에 동등하게 관계된다。부분적 민족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는 일반적 소유로 된다」(맑쓰 엥겔쓰「공산당

선언」一九三九년 로문판 三二一페지)

봉건 제도 시대에 있어서 경제 령역에서와 역시 사상 령역에서 상대적 부동성과 침체성이 특징으로되었다면、부르죠아사회 개화기에서의 부르죠아 시대는 생산력과 교환의 급격한 발전과 응고되고 침체된것을 파괴하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생산에서의 부단적 변혁、모든 사회관계의 계속적 진동、항구적 불확고성과 운동은 과거 모든 시대로부터 부르죠아시대를 구별한다。모든 응고되고 녹이 쓴 관계는 그와 동반한 관념과 견해를 창조한 세기와 더부러 파괴되며 새로 발생된 모든것은 마비되기 전에 피폐하여진다。모든 봉건계급적인것과 침체는 소실되며、모든 신성한것은 더럽게되며、마지막으로 인간도 전전한 안목으로 모든 생활 상태와 자기의 호상관계를 관찰할 필요에 이르고 있다」(맑쓰 엥겔쓰「공산당 선언」三一페지)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생산력 발전 과정은 정지되지않는다。반대로 그는 더 급격하고 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생산력 발전이 고의적으로 지체되며、부패되어가는 경향은 독점 자본의 지배와 관련하여 더 성장하는 단계가 나타난다。

경제에서와 계급간―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의 모순은 첨예화되어진다。이것은 부르죠아 사상의 모든 체계에서 반영된다。여러 국가의 선진적 혁명적 부르죠아지는 그의 소년기에 있어서는 유물론、무신론、진보적 정치 사상을 설교하였다。그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신비론、몽매주의、제국주의적 강탈、인간증오심을 설교하고 있다。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사적 소유、착취、근로자의 압박에 기초한 부르죠아 사회는 당연하고 확고하고 영구하고 오직 그럴듯하고 오직 합리적인 사회라고 언제든지 간주하였다。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부르죠아 사회의 실제적 본질은 계급위에 서고 있는「전인민적」「전민족적」기관으로 묘사하면서 엄페하며 가장하는것이다。부르죠아 사상은 막대한 다수 주민에 대한 한줌도 못되는 소수 분자들의 압박과 한 민족이 타민족을 압박할것을、설명하며 변명하고 있다。

그런까닭에 부르죠아적、제국주의적 사상의 중요하고 불가결의 특징은 인종적 및 민족적 배타성、「우수」하고「렬등」한 인종、전세계를 지배하게된 인민과 민족、민족적 노예의 멍에를 메고있게 자연적으로 예정되었고 독립적 관리에는 무능력하고「특출한」민족의「지도」가 요구되는 인민과 민족에대한 반동적 리론인것이며。

이「리론」은 영국인이 인도와 비르마와、아프리

카에서의 식민지 략탈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그들의 세계 지배에 대한 지망을 변명할 사명을 가진것이다。

동물학적 배외주의, 민족주의, 민족과 인민간의 적개심에 대한 설교, 세계를 재분할하며, 전 인민을 노예화하며, 전멸할 목적을 가진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변명, 인민들에게서 민족적 독립의 박탈—이것이 현대 부르죠아 제국주의 사상의 의의이며 본질이다。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례를 들면 히틀러 숭배자—영국의 풀러 장군—미국 경제학자 자유주의자 체이스 등등) 자기들의 문헌에서 일체전쟁을 목리로서, 생산 기계의「정상적」기능의 수단으로서, 전반적 취업의 보장 수단으로서, 사회의「정상적」활기있는활동의 표현으로서 선언하고있다。

잔학(殘虐), 인간증오, 식민인종주의는 자기의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표현을 팟쇼 사상에서 찾아내었다。 이 팟쇼 사상의 반동적 특징은 일정한 정도로 모든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현대 사상에 특유한것이다。

민주주의, 인간성, 자유, 공정, 전반적 복리에대한 위선적 짖거림은 부르죠아지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를 박멸하며, 인민의 의지를 강탈하며, 그들의 독립과 주권을 박탈하는것에로 향한 강도적 제국주의 정책을 은페하는것뿐이다。이 관계에 있어서 특징적인것은 희랍, 인도, 인도네시아, 비로마, 중국, 기타 국가들에 관한 영, 미국의 정책인것이다。

자유의 원쑤로 선포된자들은 자기를 「자유당」이라고 현재 자칭하며, 공화국의 원쑤들은「공화주의자」들의 관의(寬衣)를 입고 나서며, 진보의 원쑤들은 자기 당을「진보당」이라고 자칭하며, 인민의 원쑤는 자기 당을「민주주의」혹은「인민」당이라 자칭하고있다。

전체 현대 부르죠아 사상을 관통하는 위선과 허위는 여떤 부르죠아 사상가와 정객의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 자체와 그의 내재적 모순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현대 부르죠아 사회의 위선과 허위의「리론적」표현은 위선자, 신비주의, 비개화주의의 정신으로 철투(滲透)된 현대 부르죠아 관념론 철학이다。

부르죠아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적 소유의 지반위에서 전체 부르죠아 사회를 무자비한 전투장으로 전확하는 상품 경제와 경쟁의 지반위에서 성장한 캐인주의이다。

부르죠아 경제 학자와 시인, 사회학자와 정론가들이 찬양하는 소위 자본주의적 기업심은 다른것이 아니라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부르죠아 사상의 중요 원칙을 반영하는「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것이다。부르죠아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이루어지는것이다。네가 노예가 되든지, 네가 노예소유자가 되든지, 네가 나를 압박하든지, 내가 너를 압박하든지—이 야수적 법칙에 의존되었다。

프리드리흐·엥겔쓰는 이렇게 썼다「다윈은 경제학자들이 위대한 력사적 쟁취라고 찬양하는 자유경쟁과 생존경쟁은 동물계의 정상적 상태라고 증명한것은 인간에 대한 특히 그의 동향인(同鄕人)에게대한 어떤 비참한 풍자문을 썼다는것을 그는 알지못한다。계획적 생산과 소비가 실시되는 사회적 생산의 의식적 조직만이 사회적 관계에서 기타 동물의 위에 인간을 제고시킬수있는것이다。그것은 독특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생산이 그를 제고하였던 까닭이다」(맑쓰 엥겔쓰 전집 一四권 四八八폐지)

부패하여가는 사회 사상으로서의 부르죠아 사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새것, 선진적인것, 진보적인것에 대한 증오심으로 침투(滲透)되었다。동 및 동남 구라파 제국가들에서의 새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사상가 및 정치적 대리인들의 적의적 관계는 이 증오의 표현중의 하나인것이다。

부르죠아 사상은 모든 수단으로 퇴폐적이며, 반동적인것을 옹호한다。그는 과거에로 돌아선다。그것은 미래가 부르죠아지에게 아무러한 위안도 약속하지않는 까닭이다。각종의 새로운 사회적 사변은 부르죠아지의 멸망이 가까워 온다는것을 그에게 통고하는바 이것은 부르죠아 사상을 규정하는 특징중의 하나를 구성하는 그 암담한 비관주의를 심각하게하는것이다。 력사는 현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개의 대립적 사회 제도와 두개의 대립적 사상의 실례에서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사상이 물질적 사회 생활의 조건에 의존하였다는 맑쓰 학설의 특히 확신적이요, 직관적인 증거를 주었다。

로동계급의 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에서 발생되며, 부르죠아 사상의 직접 대립성으로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배적 사상은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과학적 방법과 지식으로 쏘베트 인간을 무장시키는 맑쓰주의—레닌주의이다。

쏘베트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생산 방법의 승리와 착취 계급—자회주의에 적대되는 사장 전파자 및 반대자를 청산한 뒤에 종결적으로 확립되었다。

로동 계급과 전체 쏘베트 인민의 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사상은 자기의 본성에 의하여 혁명적이다。그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본성, 새 사회주의 사회의

혁명적 본성을 반영한다。그는 자본주의—인간에 의한 인간의 각종 압박과 착취, 각종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사상에 대하여 적대적이다。그는 로동계급의 독재를 위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모든 근로자의 수령으로서의 로동계급의 근본 과업을 과학적으로 립증한다。

사회주의 사상은 전투적 당성의 정신으로 침투(滲透)되었다。그는 쏘련에서 실현된 철두철미한 쏘베트 민주주의를 반영하며 옹호한다。그는 쏘베트국가가 실천하고 있는 모든 인종, 민족, 종족의 평등, 우의, 친선을 옹호하며, 과학적으로 립증한다。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 특징은 쏘베트 애국주의이다。「쏘베트 애국심의 힘은 인종적 혹은 민족주의적 편견을 그의 토대로 삼는것이 아니라 그의 쏘베트 조국에 대한 심절한 충성과 신염, 쏘련의 전민족 근로자들의 형제적 친목을 토대로 삼는데있다。쏘베트 애국심에는 민족들의 민족적 유습과 쏘련내에 있는 전 근로자들의 총 생활상 리해관계가 조화적으로 련쇄된다。쏘베트 애국심은 우리 나라의 전 민족과 국민을 분렬시키는것이 아니라 유일한 형제적 가정에 단결시킨다。이에 쏘련의 민족들의 깨뜨리지못할 또는 일층더 튼튼하여지는 친목의 로대가 있다。이와 동시에 쏘련의 민족들은 타국 국민들의 권리와 독립을 존중히 여기며 또는 여러 린국과함께 평화스럽고 친목하게 생활하기에 준비되었음을 항상 표시하고 있다」(쓰딸린「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에 대하여」一九四六년판 一六〇—一六一 폐지)

쏘베트 사회 발전은 쏘베트 사회의 물질 생활 조건의 변경과 경제 생활의 과거 전(前)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생산 방법의 승리에 의주하여 인간의 심리, 그의 풍습, 관습, 세계관에서 근본적 변혁이 진행된다는것을 표시하였다。개인 경제의 지반위에서는 농민의 개인 심리를 변경시키지못하는것이다。오직 팔호조적 사회주의적 로동만이 농촌에서 집단주의 사회주의 섬리를 산출할 수있다。

쏘베트 사상은 우리 사회에서 인민의 원쑤와의 투쟁에서 불쉐위끼당 정책의 의식적 영향하에서 발전 견고되었다。이 정책은 쏘베트 제또의 생활적 기초이며 그는 쏘베트 애국심을 견고히하며 더한층 제고하며 쏘베트 사회의 도덕상 정치상 통일과 제민족의 친선의 견고성과 공산주의 건설에로 나가는 길에서 우리의 전진의 성공을 보장한다。

사회주의 조건에서 인간은 가장 고귀한 자본인 것이다。쏘베트 인간이 질박(質朴)한 로동에서 우리

사회주의 사회와 국가가 유지되는것이다。쏘베트 인간—이는 새 사회주의 생활의 창조자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세계관의 전파자이다。

부르죠아 사상과 반대로 사회주의 사상은 깊고 과학적이다。그는 신비주의, 철학적 관념론, 미신, 몽매주의에 적대된다。그는 창조력과 자유로운 쏘베트 인민의 위력, 전세계에서 맑쓰—레닌주의 사상의 승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념을 불어넣는다。

사회주의 사상은 우리 인민을 대담성과 용감성, 기식자(寄食者)에 대한 증오심, 집단주의와 우의적 호상원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과계, 높은 사상성과 원칙성, 설정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정신의 기력과 견인지구성으로 교야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우리의 사회 생활을 반영하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로 지향한다。그의 과학적으로 립증된 락관주의와 전투적인 당성은 수백만 근로대중에게 위력한 영향을 주고있다。

이 사상의 위력과 쏘베트 인민에 대한 그 영향의 심도는 전 세계가 히틀러 독일을 반대한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기에 보았던것이다。이 전쟁에서 쏘베트 인민이 발휘한 위대성과 고결성(高潔性), 용감성과 대담성, 조국애와 대중적 영웅성은 우리 사회주의 사상의 본성과, 그의 동원력, 조직력의 실제 표현이다。

미국 철학가이며 사회학자인 하롤드·테일러는「철학과 세계적 질서」란 론문에 쓰기를 서구라파의 철학은 지(智)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상실하였으며, 이 철학은「공간에서 돌아가고 있는 미묘한 수정 바퀴(輪)나, 그렇지않으면 사건의 바퀴와 접속할 능력이없는것이다」라고 하였다。테일러는 로써야 사람만이 철학적 확신과 실제적 견인지구성을 달성하였다고 시인하게 되었던것이다。테일러는 부르죠아 사회의 실제적 견인지구성을 보장하기에 가능한 새 철학을 창조할 필요에대하여 고려하였다。「세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총명하게 동작하기위하여 一, 신임할수있는 사회적 철학 二, 동작할수 있는 정치적 철학을 반드시 창조하여야 할것이다」라고 그는 썼다。

「새」철학 체계를 제마음대로 만들어보려는 이 무효한 시도는 우선 전체 부르죠아 사상의 위기이다。관리(管理)에있어서 총명성을 보장하며 혁명적 동작의 희망있는 과학적 기초로 되는 철학이있는것이다。그러나 로동계급만이, 진보적 세력만이 그를 리용할수 있으며 그에 의지할수 있는것이다。이 철학을 맑쓰—레닌주의라고 칭한다。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적대적인 반동 사상, 도덕, 견해, 리론, 철학체계 전부가 어 부적합하고 쇠약적인 사상, 도덕, 리론, 철학체계를 산출하는 자본

주의 제도를 전멸하는것과 관련되었다는것을 력사적 실천이 표시하였다。

사상의 상대적 독립성에 대하여

이와같이 사회적 사상、정치적 견해、리론、사회적 의식의 각종 형태는 인간의 물질 생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며、한사회 제도의 범위에서와 특히 한 사회제도에서 다른 사회 제도에로 전환할 때에 인간의 물질생활 조건의 변경에 적응하여 변경되는것이다。이와함께 리념、사상 형태 발전에서 상대적 독립성도 념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도덕、법률상 규범、정치 리론、철학、예술、혹은 종교에 대하여 론급한다면 이 사상적 형태중의 각개 사상의 발전은 각개 그 계단에서 직접 혹은 결국 물질적 사회 생활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이와함께 이 의식 형태는 호상 영향을 체협하며、이 외에도 또한 그 분야에있어 선행한 시대에 선행한 세대의 인간들이 축적한 그 사상적 자료와 관련하여 발전되는것이다。각개 경제학적、철학적、사회학적 사회 리론은 이런 또는 저런 방법으로써 선행자들이 창조한 사상 환(環)에 접합(接合)한다。이것은 새 정치 리론、과학、혹은 철학 체계가 부정(否定)적으로、비판적으로、또 선행한 사상적 체계、정치적 리론、철학적 학설로 진출하는 때에도 있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특히 한 시대로부터 다른 시대에로 여러 세기간을 계속하여 유전하는 태고(太古)의 사상을 가진 종교 사상 부면에 관계되는것이다。

이렇게 고대 사교(邪敎)와의 투쟁에서 발생한 기독교는 자신이 사교의 내용중에서 많은것을 상속으로 받았으며 로마 노예소유제 사회 붕괴 시대의 요구와 기독교 전파자、새 계급의 요구에 적당하게 그의 모양을 변경한것이었다。

루텔과 그다음 칼빈이 기독교 카톨릭크 정교와 절연하며 시초 기독교에 상고(上告)하던 때인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하였던것이다。

다른 사상 형태도 역시 자기의 사상적 내용의 상속성을 어느 정도로 보존하는것이다。새 계급—부르죠아지의 루넷쌍쓰 시대에도 그의 대표자들은 사상의 령역에서 봉건 관계를 반대하여 중세기적 환상(幻想)을 반대하여 봉기하면서 자기의 안목을 고전적 유물에、고전적 문학에、예술에、철학에 돌리었던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유물의 사상과 형상을 부활하면서 루넷쌍쓰 시대의 인간들은 새 시대의 요구에 적당하게 모양을 변경하였던것이다。이것도 역시 사상은 사회생활 조건에 의존되였다는것을 중시하는것이다。그러나 고전적 유물、문학、예술、혹은 철학을 모방하며、부활할수있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그 사회적 관계는 반복하지 못하는것이다。여기에서 사상이 사회적 생활을 창조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이 사회적 사상을 창조한다는 그 진리가 또다시 표시되는것이다。

「모든 죽은 세대(世代)의 전통은 몽마(夢魔)처럼 산 세대의 두뇌를 끌어당기고있다。인간이 자기와 환경을 개조하며 이미 있어보지못한것을 창조함에만 열중할때、혁명적 위기의 시대에 그들은 비겁하게 주문(呪文)에 매어달려 과거 정신의 원조를 호소하면서 그에서 명칭、전투적 구호、복장(服裝)을 모방하는바 이 고색이 창연한 복장으로、이 모방한 언사로 세계사적 무대에 새로 출연하려는것이다。이렇게 루텔도 사도(使徒) 빠벨로 변장하였고 一七八九—一八一四년 혁명도 로마 공화국의 복장과 로마 제국의 복장을 번갈아 입었고 一八四八년 혁명은 一七八九년과 一七九三—一七九五년의 혁명적 전통을 모방하는것에서 더 나은것을 찾아내지 못하였……로마 제국의 준엄한 고전적 전설에서 부르죠아 사회의 검투사(劍鬪士)들은 자기들 투쟁의 부르죠아적 제한된 내용을 엄폐하며 위대한 력사적 전통의 최고정점에서 자기의 령감(靈感)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리상、미술적 형태、환상을 찾아내었다」(맑쓰 선집 제二권 一九四一년판 二五三—二五四 페지)

오직 사회주의 혁명만이 과거 환상의 부활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것만이 과거의 사상과 견해와의 근본적 파열을 표시한다。사회주의 혁명은 자기의 시가(詩歌)를 과거에서 취하는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서 취한다。

사상 발전과정의 복잡성과 물질적 사회 하부구조에 사상의 의존성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락후된 국가들이 사상 분야(특히 철학、정치 리론、문학 발전)에 있어서 더 발전된 국가들을 종종 앞서가는 거기에서 나타난다。十八세기에 자본주의적으로 가장 발달되었던 영국에서 당시 뿌리박고 있던 신비주의와 종교적 위선에 반하여 불란서는 선진적、물질적、무신론적、정치적 학설이 만발하는 국가로되었던 것이다。十九세기 중엽에 독일에서도 그러하였던것이다。그때에 그가 불란서와 영국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락후하였음에 불구하고 위대하고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맑쓰주의의 조국이었던것이다。이것은 十七세기의 영국에서보다、十八세기의 불란서에서보다、十九세기 二十년대로부터 독일은 가장 성숙된 조건에서 진행되여야할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전야에 처하였던것으로 조건부되었던것이다。혁명적 로동운동의 중앙은 그

때에 독일에로 이전하였던것이다 十九세기 상반기에 경제 관계에서 락후하였던 농노적 로씨야—참을수 없는 경제 정치적 압박의 국가, 모든 활기적이요, 진보적인것을 질식시키던 국가, 자유, 정치, 사유의 조그마한 표현이라도 박해하던 국가—는 문학 분야에서 저명한 명인 그리보예도브, 뿌쉬낀, 레르몬또브, 고골, 뚜르게네브, 꼰차로브, 게르첸, 벨린쓰끼, 도브로류보브, 체르늬쉡쓰끼, 톨스토이의 조국으로 되었던것이다. 로씨야의 예술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예술에서의 이 위대한 현상이 실천에 나타난것은 첫째로 로씨야 선진 계급의 민족적 자의식을 성장시킨 一八一二년의 승리적 조국 전쟁의 원인이요, 둘째로 로씨야에서 선진 세력의 투쟁, 짜리제도를 반대한, 농노제도를 반대한 인민의 투쟁이 원인이 되었던것이다.

레닌주의의 조국은 로씨야—즉 영국과 미국, 독일과 불란서보다 자본주의적으로 적게 발전되었으나 세계 제국주의의 모순의 결절처로된 국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한 국가, 모든 모순을 혁명적 방도로 해결하기에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트를 목하에 가지고있은 국가가 되었던것이다.

레닌주의는 그의 조국이 로씨야이라 할찌라도 그의 내용과 그의 본질에 의하여 국제적 현상이다.

레닌주의는 로씨야와 세계 문화의 최고 성과이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시대의 맑쓰주의이다.

이와같이 이상에 론술한것으로부터 어떤 사회적 사상 체계와 어떤 사상 형태를 범속한 맑쓰주의자들처럼 생산력 수준, 그 국가의 경제 수준에서 구출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정한 사회적 사상, 정치적 리론, 철학적 체계의 발생 조건을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계급들의 생활 조건, 그들의 관계, 그들간 모순의 예리성과 성숙성, 그들 투쟁의 긴장 정도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계급 관계, 그들간의 투쟁은 다만 생산 방법 및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 모순과 충돌로서 해석되는것은 물론이다.

사회적 의식의 계급적 특성

우리는 사회적 사상, 의식의 형태, 혹은 맑쓰의 표현에 의한 각이한 시대의 「사상 구조」에 대하여 벌써 언급하였다. 경제 부면에서나 일반적으로 사상 부면에서 일정한 특수성은 각개 사회 구조와 각개 시대에 특유한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상에 전적으로 고유한 일반적 제 특징에 불구하고 계급 사회에서 사상과 사회적 리념은 그것이 그 사회적 계급의 처지와 리익을 반응하며

표현하는것만큼 계급적이 되는것이다.

적대되는 계급으로 나누어진 사회에 있어서는 계급밖에선 사회적 의식과 계급밖에선 사회적 사상, 초계급적 이데올로기는 있을수 없다. 도덕, 법률, 정치적 리론, 철학, 예술, 문학의 초계급적 성격에 관한 부르죠아적 철학과 사회학의 학설, 이것은 허위이다.

그 사회의 지배적 사상은 언제든지 지배 계급의 사상이었던것이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지배 계급의 사유(思惟)는 본질상 지배적 사유이다. 즉 사회의 계급적 물질적 세력으로되는 그 계급은 동시에 그의 지배적 정신적 세력이된다. 자기의 지배하에 물질 생산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계급은 그 원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생산 수단도 처분하며 그 까닭으로 정신적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자들의 사유(思惟)도 동시에 그에게 일반적으로 복종된것이다. 지배적 사유는 본질상 지배적 물질적 관계의 리상적 표현인것이다……」라고 맑쓰는 썼다. (맑쓰 엥겔쓰 전집 제四권 三六—三七 폐지)

지배 계급의 계급적 사상은 정신적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그중 예술, 문학, 도덕, 과학, 철학, 종교에 침투하는것이다.

노예소유제도의 지배적 사상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반영하며 노예제도는 자연적 현상이요, 자연 사태에 해당하다고 광포하는 노예소유자 계급의 사상이다. 쁠라톤과 아리스토텔은 노예는 그의 천생으로 노예라고 가리키었다. 노예는 노예적 생활 양태, 근육 로동에 천연적으로 미리 지정된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노예소유자는 천연적으로 지배와 철학, 정치, 예술에 종사하라고 미리 지정되어있다고 한다.

봉건사회 조건에서 지주, 토지소유자의 사상—기독교(카톨릭크교와 정교)—은 농민에 대한 봉건 농노주의 지배를 반영하였고 그 지배권을 신성화하고 확인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죠아 계급의 사상이 지배한다. 부르죠아 사상의 기본 형태는 정치적 사회적 리론이며 해당한 법률적 리론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는 자기 지배의 사상적 무기로서 종교도 거절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는 근로자를 순종, 복종 시키기 위하여 종교를 정신적 굴레로 리용하는것을 강화하는것이다.

적대적 계급에 기초한 모든 사회에서는 사회적 본질에 의하여 동일한 사회적、사상, 정치적 견해가 있을수없다. 모든 계급사회에서는 어데에서든지 계급의 대립성과 그들 투쟁의 표현으로서 대립적

사회 사상, 견해, 사회적 리론이 발생하였다. 계급
적 모순은 사회적 사상의 모순과 일치한다. 반동
적 사상은 반동 계급의 립장과 리익을 반영한다.
선진 혁명 계급의 립장과 리익에는 선진 혁명적
사회사상과 리론이 일치된다.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 압박자들과 피압박자들,
진보적 세력과 반동적 세력의 계급투쟁이 진행되
고있는 그곳에는 어디에서든지 그 투쟁의 사상적
반동과 표현으로 사상, 견해, 세계관의 투쟁이 있
는것이다.

이 계급투쟁의 표현중의 하나는 고대 철학에서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이었던것이다. 중세기에서
는 지주 봉건의 사상인 공식적 카톨릭크교와 대
립하여 피압박 계급의 사회적 불공정성을 반대하
는 항의의 특별한 종교적 형태로서 소위 프로테
쓰탄(異教)을 창조하였다.

일찌기있은 부르죠아혁명, 독일에서의 농민전쟁
(一五二五년)및 十七세기의 영국 부르죠아 혁명
등은 종교적 기치하에서 진행되었으며 크롬웰의
혁명군은 국왕군과의 전투에로 종교적 찬송가의
음성하에서, 진출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벌써 十八세기 말의 불란서 부르죠아
혁명은 사회발전의 보다 더 성숙된 조건하에서 진
행되었던것이다. 여기에서 계급적 모순의 첨예성은
격렬하였고 그 때문에 종교적, 봉건적 의식 형태
와의 단절은 보다 더 급진적이었던것이다.

十八세기 불란서에서 봉건사회의 사상이 카토리
치즘이었던것만큼 새 선진적 혁명적 계급—부르죠
아지—는 봉건지주와 전제주의와의 충돌에로 나서
면서 토지소유에서와 국가 구성에서 봉건질서를
반대하여 이 질서를 표현하는 사상으로서의 카토
리치즘을 반대하여 예리한 비판을 돌리었던것이다.

무기의 힘과 혁명적 폭력의 방법으로 정치와
경제에서 퇴폐된 봉건관계의 비판에로 넘어가기전
에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선진 사상가들을 가지고
비판의 무기를 경제 정치 립법 및 사상방면에 보
존되어있는 중세기적 관계에 대하여 돌리었던것이
다. 카톨릭크교에 대한 유물론자—十八세기 계몽자들
의 비판은, 모든 퇴폐된 봉건사회제도를 반대한
투쟁의 시초요, 초보였던것이다.

바스찔의 습격은 봉건제도와 그의, 정치적 상
부구조—전제정치의 사상적 요색의 습격을 선행한
것이다.

로씨야에서 사회적 사유(思惟)의 전 력사는 또
한 계급 투쟁을 반영하는 진보적 사상과 반동적
사상과의 투쟁으로 충만되었다. 농노제도와 짜리제도
를 반대한 계급투쟁의 표현은 라지세브와 제까브
리스트(十二월당)들의 사상이요, 혁명적 민주주의

자 벨린쓰끼, 체르니쉡쓰끼, 도브로류보브의 사회
정치적 사상이었다.

게르첸, 벨린쓰끼, 체르니쉡쓰끼, 도브로류보브의
저서에 제시된 로씨야의 고전적 유물론적철학은
로씨야와 서구라파의 반동적 몽매주의, 승려주의, 관
념론을 반대한것이었다.

세계력사, 부분적 국가의 력사, 사회적 사유의
력사, 취중 철학, 사회적 사상, 정치 경제학, 문학과
예술사를 계급투쟁사 밖에서, 반동 세력을 반영
하는것을 박대한 모든 진보적 세력의 투쟁 밖에
서, 지배 계급을 반대한 피압박 및 피착취계급의
투쟁 밖에서 인식할수 없는것이다.

철학에 대하여 말하면서 브·이·레닌은 이렇게
썼다. 「철학에서의 당적 투쟁, 결국에 있어 현
대 사회의 적대 계급의 경향과 사상을 표현하는
투쟁은 경험비판론의 인식형이상학적 번쇄(煩瑣)
철학의 밖에서 찾아내지않으면 안되는것이다. 새로운
철학은 二천년전과 같이 역시 당적이다. 학자선생님—
협잡꾼(아는체하는)적 새별명과 무지한 비당성으로
은폐되는 당적 투쟁은 사실상 유물론과 관념론을
말하는 것이다. 관념론은 원만히 무장하고 막대한
조직을 가졌으며, 대중에 대하여 부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철학적 사유의 조그마한 동요라도 오
직 자기에게만 리롭게 취하는 신앙철학의 세밀하
고 정제한 형태이다. 경험비판론의 객관적 계급적
역할은 일반적으로는 유물론을 반대한, 특수적으로는—
사적 유물론을 반대한 신앙철학의 투쟁에서 전적
으로 그에 봉사하는것이다」(「레닌전집」十三권 二
九二폐지)

선진 사상과 반동사상과의 투쟁의 진실한 의미
와 성격을 계급투쟁의 밖에서, 반동세력을 박대한
진보적 세력의 투쟁 밖에서 인식할수는 없는것이
다. 반동세력의 사상가들은 민족, 인민, 「우수한 종
족」의 명의로 나서면서 자기의 탐욕적 리익을
비당성, 초계급성, 객관성, 민주주의의 기빨로 은폐
하려고 시도한다.

전인민의 리익의 표지자로서 선진 계급이 나서며
이, 계급과 그의 사상가들은 자기의 리익을 전민
족, 전인민의 리익과 성실으로 동일시하는 시기가
력사에는 때때로 있는것이다.

「……과거 지배하던 계급의 자리에 자기를 세
우는 온갖 새 계급은 자기의 파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리익을 전 사회 성원의 공통 리
익으로 묘사하게된다. 즉 공통성의 형태를 자거의
사유(思惟)에 전하며 공통성을 유일하게 리성적
이요, 공통적 의의있는것으로 묘사할것을 리상적으
로 표시한다. 혁명을 지향하는 계급—그가 계급을
중오한다는 벌써 그 한가지로—은 지초부터 계급

으로서가 아니라 전사회의 대표자로서 나선다…」(맑쓰 엥겔쓰전집 六권 三八페지)라고 맑쓰는 썼다。

봉전제도를 반대한 투쟁의 시기에 있어서 제국가의 선진 부르죠아지는 전사회의 명의로 나섰다면 지금 그의 계급적 리해관계는、 사회의 리해관계와 사회 발전의 요구와의 불상용적 모순에 처한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시에 부르죠아지는 여려국가들에서 민족적 리익의 배반자로 되였던것이다。 크비슬링그는 제자본주의국가 부르죠아 정치활동가들에게 있어서 공칭 명칭으로되였던것이다。 불란서、 회랍、 유고슬라비야、 체코슬로바끼야、 루마니야、 불가리야 등등 국가들에서 부르죠아지는 자기 국가의 독립을 팔아먹었고 히틀러 독일에게 자기인민과 민족적 주권을 팔아먹었던것이다。 현하 회랍、 중국、 기타 국가의 반동 부르죠아지는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고있다。

오직 로동계급만이 二차 세계대전의 곤난한 시기에도、 전후 시기에도 인민의 리익의 철두철미한 옹호자로、 자국의 독립과 주권을 위한 회생적、 투사로 나섰던것이다。 국제주의 사상의 당연한 구현자로서 로동계급은 영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민족적 주권의 옹호자로、 투사로 나서고있다。

「선진 사상의 발생조건과 사회 발전에 있어서 그의 역할

사회적 사상、 정치적 철학적 리론、 파학、 문학 예술은 계급적 성격을 띄였으며 계급의 관계를 표현하며 계급 투쟁에서 사상적 무기로 되는것이다。

반동적 사상은 반동 계급의 립장과 리해관계를 반영한다。 이 사상과 리론은 착취제도를 신성화하며 대중에 대한 사상적 압박、 정신적 부패와 매혹(魅惑)의 목적에 봉사한다。 반동적 사상과 견해는 사회 발전 행정을 채연시킨다。

반대로 혁명적 선진적 사상、 정치적 철학적 리론은 선진 계급의 립장과 리해관계를 반영한다。 그는 대중을 동원하며、 단결하며、 조직하며、 대중에게 투쟁 목적을 지시하며 뢰폐한 세력을 반대하여、 퇴폐한 사회를 반대하여 몇천만 대중을 통일된 투사군으로 단합시킨다。

새로운 선진적 혁명적 사회적 사상이 어느때에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가? 그것은 물질적 사회생활 발전 과정이 새로운 력사적 과제를 당면순서로 제기하는 때이다。 낡은 사회의 품속에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력과 물질적 수단이 성숙되였을 때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생산력이 생산력 발전에 대한 질곡로

변화된 퇴폐한 생산 관계와의 불상용적 충돌에로 들어가는 때、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충돌이 사회혁명의 필연성을——조건 지을 때이다。

물질적 사회생활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력사적 과업은 혁명적 투쟁이 없이는、 낡은 세계를 박대하는 선진 계급의 투쟁이 없이는 해결될수없다。 그런데 선진 계급의 세력、 인민의 세력을 단합하기 위하여 인민에게 명확한 투쟁목적과 과업을 지시하여야하며、 올바르고 정확한 투쟁 표어를 주어야한다。 선진 사상과 사회적 리론은 이 투쟁목적과 과업의 표현이요、 근거이다。

봉전제도를 박대한 투쟁에서 여려 국가들에서 혁명적 부르죠아지는 철학적 유물론과 무신론、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선진리론같은 예리한 사상적 무기를 만들었다。 十八세기 불란서에서도 이렇게 되었던것이다。 불란서와 구라파의 봉건 귀족 반동은 전제제도、 종교、 관념론의 기치하에서 불란서 혁명을 반대하여 나섰던것이다。 칸트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의 독일 관념론적 철학은 불란서 혁명파 그의 공화주의、 유물론、 무신론에 대한 이 봉전 귀족적 반동의 표현중의 하나인것이다。

그러나 불란서 부르죠아 혁명을 반대한 구라파의 반동파 부르본가(家)의 부활도 불란서를 봉전제도에로 돌아가게는 하지못하였던것이다。 자본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한것이었다。

구라파에서 十九세기의 대부분은 불란서 부르죠아 혁명사상의 기치하에서 지나갔다。 구라파의 제국가는 점차적으로 자본주의 도정에 들어섰으며 부르죠아 민주주의 사상、 자유、 평등、 우의의 표어는 선진적 인간의 지력(智力)을 획득하면서 점차적으로 지배적이 되었다。

의식령역에서와 사상령역에서의 전환은 혁명에 대한 정치적 계급적 전투에 대한 서막으로써 봉사한다。

十九세기 三十년 및 四十년대에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들에서 력사적 활무대에 프로레타리아트—자본주의를 박멸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창조할 계급이 나섰다。

로동계급의 립장과 투쟁의 리론적 표현이요、 그의 세계사적 역활의 과학적 기초는 맑쓰주의이였던것이다。 맑쓰주의는 부르죠아 사상、 부르죠아적 관념론적 철학、 정치 경제학、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극복하는 기초 위에서 발생하였다。

맑쓰주의는 선진적 인민의 선진적 사상이 제기하는 제문제、 우선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에 해답을 주었다。

그런고로 맑쓰주의는 보통 철학적 학설이 아니며 또는 다른것과같이 사회적 리론중의 하나인론

단 아니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 대중의 학설이며 그들의 전투적 기치이다。 맑쓰와 엥겔쓰는 보통 새 철학적 학파의 창시자일뿐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성장 견고하여가는 생기발랄한 프로레타리아 운동의 활기있는 수령이다。

맑쓰주의 리론은 력사에서 처음으로 현대의 가장 혁명적 계급—프로레타리아트의 앞에 사회발전 법칙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법칙의 지식과 과학적으로 기초된 투쟁의 최후목적—공산주의에 근거한 력사적 발전과 의식적 혁명적 활동의 과정에 대한 의식적 영향의 가능성을 공개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관념론을 격파하면서 그를 최후의 비호처—력사령역에서—로부터 구축하였고 「진리、정의」 등에 대한 관념론적 추상적 인식으로부터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소부르죠아적 및 부르죠아적 공상적 사회주의의 각종 학파와 경향의 무성과를 폭로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은 자기의 력사적 리론의 중요원칙 맑쓰주의의 적들이 인식하지못하였으며 부정한 물질적 사회 생활 조건의 역활을 결정하는 원칙을 특별한 힘으로써 강조하였다。

그런데 사회의 경제는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와 사회적 의식의 각종 형태가 서고있는 하부구조일뿐이다。 이 상부구조와 사회적 의식 형태는 한번 발생되면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며 (선진 사상과 선진적 정치제도) 혹은 그 발전을 체연시키며 장애하면서 (반동 사상과 반동적 정치제도) 자체가 상호작용에 참가하며 그를 발생한 경제적 하부구조에 반(反)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맑쓰와 엥겔쓰는 로동운동과 사회 발전에서 선진 리론의 막대한 역활을 언제든지 시인하였으며 그들 전생애를 부르죠아 사상의 포로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를 해방하는일에、과학적 사회주의와 로동계급의 사상을 각방면으로 강구하는 일에、로동계급을 계급적 사회주의 의식으로 각성시키고 교양시키는 일에 바치었다。

一八四三년에 맑쓰는 「헤겔의 법률 철학 비판」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물론 비판의 무기를 무기에 대한 비판으로 교환하지못한다。 물질적 세력은 반드시 물질적 세력으로 정복한다。 그러나 리론은 그가 대중을 쟁취하는 때에만이 물질적 세력으로 되는것이다」 (맑쓰 엥겔쓰전집 一권 四〇六페지)

그 저서에 맑쓰는 이렇게 썼다。 「철학이 프로레타리아트에게서 자기의 물질적 무기를 얻은것과 같이 프로레타리아트도 철학에서 자기의 정신적 무기를 얻었다……」 (동서 四一二페지)

맑쓰주의의 적들은 사적유물론을 경제적 유물론

과 동일시하면서 의식의 역활과 사상의 역활의 저하(低下)를 사적 유물론에 돌린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하여 투쟁하는 경제적 유물론은 그것이 사회 생활을 맑쓰주의적으로 인식함에 대한 속(俗)된 부르죠아적 만화이다。

로동운동에 경제적 유물론을 적용한다는것은 로동운동의 자연발생성 앞에서 굴복하는것이요、혁명적 리론의 역활을 저하하는것이요、혁명적 계급투쟁을 거절하는것이요、그 투쟁을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트레드유니온적 투쟁으로 끌어가는것을 의미한다。 이 견해는 우선 독일사회 민주주의자들에게 널리 전파되었다。 베른슈타인주의는 혁명적 맑쓰주의와 로동계급의 근본 목적 즉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거절하는 표현중의 하나이었다。 그 주의는 로동운동을 부르죠아 사상에 복종시키려는 사회민주당 령수들의 지망을 반영하였다。

十九세기 九十년대 중엽에 로씨야에서는 경제적 유물론의 정신에서 맑쓰주의에 대한 속악(俗惡)화와 범속화는 합법적 맑쓰주의자와 그다음 멘쉐위크—경제주의자들의 선구자—들의 문헌에서 나타났다。

경제주의자들은 자연발생적 로동운동 앞에 굴종하였으며 그들은 로동자들의 중요한 리해관계가 주인파의 경제 투쟁에 있다고 인정하였으며、까닭에 정치적 투쟁을 그들은 로동립법을 위한 트레도유니온적 투쟁에로 끌어갔던것이다。 경제주의자들은 정치적 계급투쟁으로부터、자기들의 거절을 경제는 하부구조요、정치는 경제의 뒤를 따라가는 상부구조라는 맑쓰주의 학설에 대한 허위적 인증으로써 립증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제주의자들、그들 뒤를 이어 멘쉐위끼는 물질적 환경과 생산력이 사회적 발전 도정을 결정한다면 로동계급 자체가 사회주의 사상을 작성하기 전에는 어떤 사상가든지 로동운동을 그의 자연발생적 도정에서 끄집어낼수 없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에서 짜리즘과 자본주의를 반대한 투쟁은 인민적 민주주의적 혁명의 수령으로서의 로동계급으로부터 통일、단결성、조직성、인내성、규률、고상한 각성、영웅성、희생성을 요구하였다。

무엇이 로동계급에게 조직성、통일、단결성의 힘을 줄수있는가? 그것은 선진 혁명적 리론—과학적 사회주의、사회주의적 사상이 줄수있는것이다。

누가 로동계급에게 이 사회주의적 사상 명확한 투쟁목적을 줄수있는가? 그것은 로동계급의 선봉대 및 수령으로서 사회주의적 의식성의 전파자로서의 맑쓰주의 당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은 九十년대의 로씨야에 아직 없었던것이다。 로씨야 사회 민주주의자들 중에서는 경제주의자들로 인하여 수공업적인 조직적 혼란、

사상적 혼란이 지배하였다。 통일되고 중앙집권화된 맑쓰주의 리론의 기초를 창설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것이었던가? 그것은 경제주의자들을 사상적으로 격파하며, 로동계급에게 부르죠아지의 영향을 도입하는자들로 추미주의자들로써 그들을 폭로하며, 새 형(型)의 맑쓰주의 당의 사상적 기초를 창설할것이다。

이 과업을 브·이·레닌과 이·브·쓰딸린이 실행하였다。레닌의 저서「무엇을할까?」와 쓰딸린의 로작「당내의 의견불일치에 대하여 간단히 론함」「「사회민주주의자」지에 주는 대답」등 국제적 맑쓰주의 서적에 처음으로 로동운동에서의 사회주의의 의식의 역활 문제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주었던것이다。브·이·레닌의 저서는 로씨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로동운동의 당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었던것이다。그 저서는 맑쓰주의와 사적 유물론의 발전에서 획시기적 의의를 가진다。레닌의 저서「무엇을할까?」와 쓰딸린의 로작「당내 의견 불일치에 대하여 간단히 론함」에는 맑쓰주의 당의 사상적 기초의 연구와 그의 근본 목적, 과업, 방도, 루쟁 형태의 기초가 론술되었던것이다。「무엇을 할까?」의 저서에 레닌이 제기한 문제는 투쟁의 중심에 서있었던것이다。

경제주의자들과 멘쉐위끼는 브·이·레닌이「맑쓰주의를 의곡하였다」고 레닌을 론고하려고 시도하였다。「무엇을 할까?」란 레닌의 저서를 제二차 당대회에서 옹호하던 쁠레하노브는 그다음 자기의 분파적 론문「로동계급과 사회 민주주의 인테리겐챠」를 가지고 나섰다。이 론문은 쁠레하노브가 로동운동의 성숙된 과업, 사적유물론의 가일층 연구, 맑쓰주의 사상의 위대한 조직적, 동원적, 변혁적 역활에 대한 학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것을 표시한다。쁠레하노브의 론문은 그가 앞을 내다본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았으며 그 자신이 경제주의자들의 진영에서 헤매였다는것을 표시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은 대중을 쟁취하면서 대중을 단결하며, 그들을 조직하며, 투쟁의 길을 밝혀주며, 목적과 투쟁의 전망에 명확성을 주며, 투쟁에서 힘과 확신을 준다。이것으로서 과학적 사회주의와 맑쓰주의 리론은 사회주의로 향한 로동계급의 운동을 전적으로 촉진시키며 새 사회주의 사회를 낳는(産) 고통을 감소하며 희생을 더(減)는것이다。여기에 과학적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상과 선진 혁명적 리론의 구현자로서 맑쓰주의 당의 지도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오직 두개의 사상 즉 부르죠아 사상 및 사회주의 사상만이 있을수 있다。부르죠아 사상은 벌써 오랜 기간을 거친것이며

그는 전통의 힘을 가지었다。부르죠아 사회의 전체 생활은 부르죠아의 사상으로 침투되었다。부르죠아지는 인민속에, 그중 로동 계급의 속에 자기 사상을 전파하는 거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 사정에 의하여 부르죠아 사상은 대단히 늦어서 발생된 사회주의적 사상보다 매우 쉽게 전파되며 대단히 광범하게 자연발생적 로동운동을 망라한다。「자연발생적 운동은—사회주의가 없는 운동은—그것이 없이는「바로 부르죠아지의 사상에 복종하는데로 간다는것은 더우기 옳은것이다」부르죠아 사상에 복종한다는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구축한다는것을 의미한다。그것은 그들이 호상 부정하는 까닭이다」(쓰딸린 전집 一권 九六—九七페지)

자본주의에서의 로동계급의 생활 조건은 그를 사회주의에로 자연발생적으로 끌어 올리게하며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함에 있어서 유리한 지반을 창설한다는것도 물론 옳은것이다。그러나 로동자가 사회주의 사상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에 자연발생적으로 인입될것만 아니라 그 당시의 지식의 전체 총화 즉 철학, 정치경제학, 력사, 일반적으로 과학을 소유하여야한다。

자본주의의 발전 법칙, 그의 멸망과 사회주의로 교체될 불가피성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하여야 되는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로동계급은 그런 지식을 소유하며 독립적, 과학적, 사회주의적 사상을 작성할 가능성을 못가지는 그런 조건에 처하였다。이외에도 로동자들은 부르죠아 사상에 예속되고 억압되고 있다。

경제적 및 정치적 압박을 참지못하여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로동운동은 트레드유니온적 의식의 포로로 남는다。

새계사는 로동 계급이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는 트레드유니온적 의식을 작성하며 직업동맹에로 련합할 필요에 대하여 확신하며 고용주와 또는 로동립법을 위하여 정부와의 투쟁의 필요를 인식하는데까지 도달한다는것을 실증하였다。로동계급에 대한 자기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르죠아지는 사상 선전 수단과 대중에 대한 사상적 영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며 그는 데마고기아를 리용하며, 자기 목적을 가장하며 로동자의 기분에 맞도록, 그들이 사회주의에 자연발생적으로 인입되는데 맞도록 위조하며 반동적 부르죠아지와 및 소부르죠아지의「사회주의」각종 체계(「기독교 사회주의」「페비안 사회주의」「민족 사회주의」「페이보리즘」등등)를 리용한다。

과학적 사회주의—맑쓰주의는 다른 시대, 말하자면 중재기에는 발생할수 없었던것이다。그는 자본

주의가 일정한 발전 계단에 도달하였고 력사적인 자기의 과도적 본성을 더한층 발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 사상의 천연적 구현자로서 로동계급이 력사적 활무대에 출현하는 때인 자본주의 조건에서만이 발생할수 있다。

과학적 사회주의 발생에 대한 문제에서 브·이·레닌과 이·브·쓰딸린은 사상의 발전을 운무 중에서 증발하는 순 사유(思惟)운동 과정으로、관찰하는 관념론을 반대하며 과학적 사회주의 발생과정을 자연발생적 로동운동의 단순한 결과로 관찰하는 범속한 유물론에 대하여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쓰딸린은 이렇게 말하였다。「자연발생적 로동운동과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은 타락하며、로동조합주의적 성질을 가지면서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에 복종한다。 이에 사회주의면 그만이요、로동운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결론을 지을수 있는가? 물론 없다! 다만 유심론자들만이 이렇게 말한다。 경제적 발전이 장구한 시일을 경과한 어느때에가서 불피코: 로동계급을 사회혁명에로 인도할것이며 그에 따라 로동계급을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와 일체 련락을 단절해버리게할것이다。 문제는 이 길이 아주 멀고 고통스럽다는데 있는것이다。

그와 반면에 로동운동이 없는 사회주의는 그것이 여하한 과학적 기초에서 발생하였을찌라도 공허한 문구에 불과하며 그 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에 운동이면 그만이요、사회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지을수 있는가? 물론없다! 보잘것없는 맑쓰주의자들만이 이렇게 해석하는것이니 그들에게는 의식은 그 것이 사회생활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것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이다。 사회주의는 로동운동과 결합시킬수 있으며 이리함으로써 그를 공허한 문구로부터 날카로운 무기로 전환할수 있는것이다」(쓰딸린전집 一권 一〇五페지)、

사회주의의 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의 의의를 저하하며 로동운동을 부르죠아 사상의 권세에 내맡기고 맑쓰주의 당의 역할과 의의를 훼손시킨 경제주의자、멘쉐위끼、기타 기회주의자들의 길로 로동운동이 걸어갔더라면 로씨야에서의 로동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 투쟁의 명확한 목적을 상실한 로씨야의 로동운동은 방황과 무수한 희생을 당하였을것이다。

一九一七년에 로씨야에서 혁명적 정세가 진행될때 十월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승리 조건은 레닌 쓰딸린적 프로레타리아 혁명리론이었으며、부분적으로 떨어져있는 一국내에서의 시초적으로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는 리론이였던것이다。

레닌 쓰딸린 당의 지도와 공산주의에로 향한 우리의 운동을 밝혀주며、볼쉐위끼당의 광명인 맑쓰—레닌주의 사상의 위대한 역할은 쏘베트 국가에서 사회주의 승리의 의무를 위대한 쏘베트 조국의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에게 부담시켰다。

반혁명적 뜨로쯔끼주의 및 一국내에서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리론을 반대하며 원쑤적인 부하린의 맹목적 자연발생적 리론을 반대한 철예한 투쟁이 없이 또한 인민을 미로(迷路)에 빠지게하며、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인민의 신념을 말살하며、투쟁에대한 그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사회주의에 해독스러운 다른 모든 리론을 반대한 투쟁이 없이는 적대되는 계급을 승리할수 없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었던것이다。 위대한 과업을 실행하는것은 명확한 목적과 올바른 투쟁방도와 수단의 선택을 요한다。 영원히 생기를 가진 맑쓰—레닌의 창조적 리론은 그 목적을 명확하게하며 투쟁방도와 수단을 결정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법칙의 지식을 준다。 원쑤와의 투쟁에서 레닌 쓰딸린 당의 위력과 우월성은 그가 선진 사상과 혁명적 리론의 동원적、조직적、변혁적 역할을 올바로 고려하는데 있다。 물질적 사회생활 발전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시키는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근거하여 볼쉐위끼당은 대중을 올바로 지향시키며 성숙된 력사적 과업의 해결에 있어서 그들을 결합하며 동원하며 조직할 능력을 가졌으며 이것으로서 력사적 발전과정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주는것이다。

볼쉐위끼당、브·이·레닌과 이·브·쓰딸린은 맑쓰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혁명적 리론의 의의를 미증유의 고도에로 제고시켰다。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사회주의 사상、과학적 사회주의가 어떤 의의를 가졌다는것은 우리가 월하 영미국 로동운동의 부정적인 실례에서 볼수있다。 앵글로·색손 국가들에서 로동계급은 잘 조직된 직맹을 가지고있다。 영국에는 레이보르당 즉「로동」당까지도 있다。 그러다 이 당은 부르죠아 사회의 확고하고 성스러운 기초 위에 서있다。 정권을 장악한 레이보르당은 부르죠아적 대내、대외 정책을 실시한다。 레이보르당원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에、대한 언사는 대중을 자기의 영향하에 보지하려는 연막이요、방법이다。

레이보르당의 사상적 기초는「사회주의」에 대한 맑쓰이전의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학설의 파편이다。 레이보르당은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에 계급적 평화와 자본주의、소유제의 불가침 원칙과 부르죠아 국가와 그의 제도의 불침범적 보천과 영국 제국주의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식민지 정책을 위하여 서고했다。

레이보르당 정부의 수치스러운 대외정책(희랍、인도네시아、인도 인민에 대한 무력적 억압、서반아에서 프랑코 제도의 지지)은 그것이 부르죠아 정부라는것을 증명한다。

영국 부르죠아지는 레이보르당과 트래드유니온을 정유하여 영국로동계급을 사상적 포로로써 자기 사상의 지배하에 보지하고있다。거대한 식민지령토를 략탈하여 부요하게된 영국 제국주의는 영국 로동계급의 내부에 로동계급에로 부르죠아지의 영향을 인입하는 로동귀족의 견고한 층을 조성한。그 사정이 역시 그것에 방조가되었다。맑쓰—레닌주의가 아니라 레이보르주의가 영국 및 기타 서구 로동자들의 리익을 반영하며 옹호한다는 영국 레이보르당원들과 또는 성숙되고 뿌리박힌 오래리 기회주의자 칼•렌넬의 론단은 첫째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맑쓰—레닌주의 사상의 장성과 둘째로 영국 자체에서 레이보르당 정부의 반(反)로동적 실행으로서 전복(顚覆)되었다。영국 제국주의는 식민지 통치와 수천만 식민지 노예의 략탈에 의거하는것을 여전히 계속하고있다。부리텐 식민지적 제국(帝國)이 현하 모든 혼출(바느질자리)마다 탁탁 터지고 있나는것은 사실이다。제국주의 종주국과 식민지 간의 모순은 성장하고있다。세계 시장에서 영국의 독점적 처지는 미국 제국주의의 팽창으로 더욱 현저히 손상되며 파괴되고있다。미제국주의는 도처에서 부리텐 제국 그의 식민지 령토의 문호를 두드리며 그 문호를 개방하며 특혜(特惠)를 폐지하라고 강요한다。

채권자—국가이던 영국은 채무자로 되었다。이 모든것은 부리텐 식민지제국의 커져가는 붕괴과정과 그의 내재적 모순의 성장과 첨예화를 말하는것이다。이상에 지적한 사태는 수백만 영국 로동자와 영국 로동운동의 모든 진보적 활동가들을 사회주의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리론에로 더 강력하게 추진할것이다。그러한 유일한 과학적 리론은 국제 혁명 운동과 특히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사실로 검열된 맑쓰—레닌주의인것이다。

그러나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로동계급 사상의 강경하고 능숙하고 계통적인 투쟁이 없이는 대중적 로동운동에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입함이 없이는 부르죠아 사상으로부터 영미국 로동계급을 급속히 떼어내는데 이르지 못하는것이다。로동운동에 사회주의 의식을 어떻게 주입시키는가 하는것은 볼쉐위즘이 표시하였으며 브•이•레닌과 이•브•쓰딸린이 표시하였다。

그 소여의 자본주의 국가 로동계급의 백만 대중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성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맑쓰주의 당의 지도자들은 그 국가 특징에 해당하게 그 국가의 구체적이요、생활적인 실례에서 그의 훌륭하고 선진적인 전통을 타사하면서 맑쓰—레닌주의의 가일층 창조적 연구와 구체화가 필요하다。

一八九九년에 레닌은「우리의 정강」이란 론문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맑쓰의 리론을 완결된것으로 보지않는다。반대로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실생활에서 락후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모든 방면으로 더 전진시켜야될 그 과학의 기초만을 설정하였을 뿐이라고 우리는 확인한다。로씨야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맑쓰리론의 자립적 연구는 특히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있다。그것은 이 리론은 영국에 있어서는 불란서에서보다 달리、불란서에 있어서는 독일에서보다 달리、독일에 있어서는 로씨야에서보다 달리 특수하게 응용되는 일반적 지도적 명제만을 주는 까닭이다」(레닌「맑쓰—엥겔쓰 맑쓰주의」一九四一년판一〇七—一〇八 페지)

브•이•레닌과 이•브•쓰딸린은 그러한 맑쓰주의의 창조적 발전의 모범을 주었다。그들은 국제로동운동의 경험과 투쟁의 여러가지 형태에 의거하여 풍부히 하였으며 로씨야에서의 로동운동 경험의 투쟁방법을 종합하였다。

브•이•레닌과 이•브•쓰딸린은 국제 혁명 운동의 경험을 흡수한 볼쉐위즘은 전세계 맑쓰주의 당의 모범이요、사회주의를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된다는 모범이라고 가르치었다。쏘련은 선진 사회주의 제도、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최고형의 문화를 제시하는 국가이며、위대한 사회주의의 사상과 선진 인류의 대표자들의 우수한 의향이 실현된 국가이며、맑쓰—레닌주의가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되었으며、거기서의 발전은 돈주머니의 리익에 복종되는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 수백만 일반 인간의 행복과 복리를 보장함에 복종되고있는 국가이다。

쏘련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로써 전세계 로동계급의 지력에 위력하고 계속 장성되는 영향을 주고있다。전세계 인민의 목전에서 우리 국가는 각종 반동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의 성책으로 되었고 민주주의적 평화、자유、제인민의 독립과 행복을 위한 투쟁의 성색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전쟁의 불속에서와 전설적인 쓰딸린그라드 전의 불속에서 쏘베트 인민은 인간사회의 경탄의 눈앞에서 위대한 거인으로 고철하고 극복할수 없는 위력으로 나섰던것이다。

팟쇼강점자들을 승리한것은 인간의 원쑤—파시즘에 대한 력사에서 보지못한 군사적 승리일뿐 아

니라 쏘베트 사회주의 사상이 꽛쇼 반동 사상을 승리한것이다。

이태리, 불란서, 체코슬로바끼야에서의 공산당 영향의 막대한 장성과 동, 동남구라파 제국가들에서 새 민주주의의 승리와 예속 및 식민지 국가들에서 민족 해방 운동의 강화와 동시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루맨과 처칠을 수반으로한 반동 행군(行軍)—이 모든것은 자본주의 세계인민들에게 대한 진실한 진보적 사상,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의 불잡을수없고 더 성장하는 영향을 확신적으로 증명한다。

미국의 대학교수 쬬지·쥰나는 산프란시스코 대학생들 앞에서 「로씨야와 전세계 문제」란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구라파가 좌익화하였다는것, 그가 「사회주의의 정강의 편으로 변동」하였다는것, 서구라파에서의 공산주의의 위혁은 로씨야의 정책에 직접관계가 없다는것을 말하였다。「공산주의의 위협」은 서구라파 제국가의 자체내에 내포되었으며 곤난한 사회 경제 정치 조전의 결과인것이다。만일 이 조전이 개선되지못한다면 이 국가들에서 공산주의는 구라파 문제에 대한 쏘베트로씨야의 직접 간섭이 없이 승리할것이다라고 하였다。

쥰나는 자본주의 체계의 파산을 사실상 시인하게되었으나 그도 자본주의의 많은 다른 치료자와 의사들처럼 개혁의 원조자에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였다。쥰나는 카토릭크교의 정통적 신앙자로서 세상에서의 모든 불행의 원천은 선과 악에대한 인간의 잘못된 관념과 인간 본성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것이라고 진심으로 언정하였다。

자본주의의 사상가와 개혁주의자들중의 다수가 자본주의의 운명을 막연하게 감각하면서 자본주의를 보존하려고하며 구가 낳는(産) 제모순을 제거하려고 한다。그들은 자본주의적 소유와 경쟁을 보적하며 동시에 「계획」을 실시하며 생산의 무정부성을 제거하려고한다。그들은 생산의 중요 자국으로 자본주의의 리윤을 보적하려고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 간에 모순의 첨예화를 원치않는다。사회주의 사상 영향의 장성은 그들을 놀래우며 미치게한다。그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이없는 자본주의를 소원한다。그러나 이것은 조리에 맞지않는것이다。

자본주의의와 사회주의의 조전에서 의식의 역할

사회주의를 선행한 모든 사회제도에서의 사회발전 과정은 자연발생성을 띠었다。발전의 자연발생성은 다음과같이 규정된다。첫째 어떠한 생산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롭지못한것, 즉

각개의 새 후대의 인간은 선대의 인간이 창조한 벌써 완성된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맞나게 되는것이다。

둘째 로동도구를 개선하며, 사회의 생산력을 변경하며, 발전하면서 인간은 이 변경의 사회적 결과를 인식하지못한다。

로동도구를 변경시키는 인간의 의식은 보통 그들의 일상적 리익의 범위와 로동 생산성을 더많이 달성하며 어떠한 직접적인 목적을 달성하자는 경향의 범위밖으로 나가지못한다。

원시사회 인간은 석기로부터 철기에로의 전환을 더듬어서 실현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킬것이며 노예제도에 문호를 개방한다는것은 아지도 못하였으며 알수도 없었던것이다。

이와 똑같이 十八세기에 영국에서의 증기기관 발명가들도 그들의 기술적 발명이 어떤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로 이른다는것을 예견치못하였다。즉 그들의 경향은 협소한 개인적 리해관계의 범위밖으로 나가지못하였던것이다。그러나 젬쓰·와트의 증기기관은 사회의 부(富)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집적하였고 수십만의 독립적 소 생산자를 파멸시켰고 그들을 프로레타리아에로 전화하였다。

이 기술 및 경제 혁명 과정은 영국의 경외(境外)에로 멀리 나가서 그는 구라파의 전체 국가들과 그다음 미국을 점차적으로 망라하였다。프로레타리아트의 발생과 그가 력사적 무대에 등장하는것은 전세계 력사에서 새 시대를 표시하였다。

로씨야 및 외국의 부르죠아지가 十九세기에 로씨야에 대 기계 공업을 설치하며 짜리제도를 그대로 남겨두면서 생산력 발전에서 이 과정이 어떤 사회적 결과에로 간다는것을 역시 예견하지 못하였던것이다。로씨야 및 외국 부르죠아지의 의식적인 기도는 로씨야에서의 비상한 렴가의 로동력을 리용하며 산업을 발전시키며 국내 시장을 점유하며 거대한 리윤을 얻자는 희망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였던것이다。사실상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도달하였던것이다。그런데 실지에는 이 결과외에 또 한 부르죠아지가 예견하지못한 다른 사회적 결과도 생겨났다。즉 대공업 발전 결과에 로씨야에서 사회적 세력이 재편성되었고 새 계급—프로레타리아트가 장성하였는바 그는 자기의 주위에 농민을 련합하였고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을 성취하였다。

사회학자—관념론자들 그중 마쓰·아들려 같은자와 로씨야에서 마하주의자 아·보고다노브 등은 의식적 및 사회적 개념은 동일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사회성은 의식적인것이 있는 그곳에서만이

발생하며 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지못하다。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은 언제든지 동일할수 없는것이다。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할뿐이다。

인간이 의식적 존재로서 호상 교제한다는 사실로부터 사회적 및 의식적、관념이 동일한것이란 결론을 지어서는 안된다。 다소간 복잡한 모든 사회 제도에서 특히 자본주의 제도에서 인간은 호상 교제를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가 조성되며 이 사회적 관계의 발전이 어떤 법칙에 복종되였다는것을 인식하지못한다고 브·이·레닌은 말하였다。「세계 경제에서 각개 부분적 생산자가 생산 기술에 그가 어떠한 변경을 가져온다는것을 인식하며 각개의 주인은 그가 어떠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교환한다는것을 인식한다。 그러나、이 생산자들과 이 주인들은 이렇게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 존재를 변경한다는것은 인식하지못한다。 ……당신들이 생존하며 주인노릇하며 자식을 낳으며 상품을 제조하며 그를 교환하는것으로부터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사건의 련쇄와 발전의 련쇄가 조성되는것이며 이러한 련쇄는 당신들의 사회적 의식과는 독립한것이며 그것은 아무때도 완전히는 포착할수 없는것이다。

인간의 최고 임무는 일반적 및 기본적 특징에서 경제적 진화(사회적 존재의 진화)의 이 객관적 론리를 포괄하며 이것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의식과 전체 자본주의 국가들의 선진 계급의 의식을 이론리에 될수있는대로 더 명확하고、명백하고、비판적으로 적응시킬것이다」(레닌전집 一三권 二六六페지)

생산의、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인간이 생산 과정을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후자가 인간을 지배하는것이다。 이것은 과잉 생산 공황에서、실업의 막대한 장성에서、인간이 이미 창조한 생산력의 파괴에서 표현된다。

통제와 인간의 의식적 활동 밖에있는 맹목적으로 운동하는 법칙에 자본주의의 경제적 하부구조가 의존된것만큼 인간에 관하여 이 경제 생활의 법칙이 만유인력 법칙과 같이 외부적 강제적이며 맹목적으로 운동하는 력량으로 나타난다。이 과정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부르죠아지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써 종말되었고 종말되고있으며 자본주의의 계획적 경제를 창조하려는 모든 그의 시도는 역시 불피코 참패로 종결되었다。이 모든것은 사회 및 정치 생활 범위에서 정당히 표현되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하부구조는 그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대내 및 대외 부르죠아 정책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한다。

국가 정치 활동가들이 완전히 의식적으로 이 정책을 실시함은 물론이다。 반동 부르죠아지가 그의 계급적 리해 관계를 의식적으로 옹호하며 그의 지배적 처지를 견고히 하기위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완전히 의식적으로 폭발시켰으며 폭발시키고있다。

독일 파시즘、독일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또한 일본 및 이태리 부르죠아지가 제二차 세계대전을 폭발시키면서 그들이 자기 앞에 세웠던 그들의 의식적 목적、그들의 시도에서 크게 오산하였던것이다。 그들은 크게 패배하였던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쟁의 결과에 전패국 진영의 반동자들만이 아니라 영미국의 반동 세력도 오산하였던것이다。 전시에 팟쇼에게 강점되었던 국가들에서의 인민 대중 운동은 주지하는바와같이 새 민주주의형태를 발생케하였으며 사회주의 사상 영향이 광범한 대중속에서 대단히 장성하게하였으며 전세계 인민의 목전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도덕적、정치적 위신이 대단히 성장케하였으며 국제 문제에서 쏘련의 영향을 강화하였다。

전체 자본주의 체계는 제一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은것보다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더 약화되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불유쾌한」결과는 처칠、완덴벨그、달레쓰 등등 현대 반동 부르죠아지의 가장 권위있고 「선견적」인 대표자들의 의도에 들어맞지 못하였던것이다。 부르죠아지와 그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체계와 정책의 모순의 그물에 점점 더 걸리고있다。

부르죠아 사회를 「정돈」하는 문제에서 부르죠아 정치적 경제적 리론은 비교적 장기간 큰 범위에서 올바른 지향을 부르죠아지에게 주지못하며 줄수도 없다。 부르죠아지는 무정부적 맹목성에로 더 깊이 들어가며 또 만일 그가 어떤 가까운 목적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대중에 대한 철면피한 기만과 데마고기아와 가혹한 억압을 질행 하는것이다。

이렇게 부르죠아 사회에서의 생산 발전 법칙과 모든 그의 사회 생활 법칙의 기본 특징은 맹목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력사가 가르치는바와같이 이것은 새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기초로서 새 생산력이 낡은 사회의 품속에서 성숙할 때까지의 일정한 시기까지에서만이 진행되는것이다。

사회의 생산력이 일정한 발전 계단에 도달하며 그가 지금까지 품겨있으면서 발전하던 낡은 생산관계와 충돌될 때、생산 관계와 낡은 지배 계급은 전사회 발전 도상에서 장애물로 전환된다。

이것은 선진 계급의 폭력적 의식적 동작의 불피성과 혁명의 불피성을 초래한다。 이런 전환적 력사의 시기에 「낡은 생산력、관계를 폭력에 의해서

제거할것을 사명으로하는 새로운 사회사상, 새로운 정치기구, 새로운 정치권력의 위대한 역활이 특별히 선명하게 나선다。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와의 충돌을 기초로해서,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요구를 기초로해서 새로운 사회사상이 발생하는것이며, 새로운 사상은 대중을 조직하며 동원하는것이며, 대중은 새로운 정치적 군대로 단결되며, 새로운 혁명적 권력을 창조하며, 이것을 폭력에 의해서 생산관계에서의 낡은 질서를 배제하고, 새 질서를 수립하는데 리용한다。자연발생적인 발전행정은 인간의 의식행동에 양위(讓位)하며, 평화적 발전은 폭력적 변혁에, 진화는 혁명에 양위하는것이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五六一페지)

자본주의 발전의 현 시대는 새로 막대히 발전된 사회의 생산력과 뢰페된 자본주의 생산 관계와의 때 충돌로써 특징지어진다。이 충돌은 미증유의 사회적 진동을 조건지어주며 인민의 무수한 불행을 초래하며 부르죠아지를 반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을 첨예화시킨다。

동시에 전체 진보적 세력과 반동 세력의 첨예한 사상적 투쟁을 폭발한다。대중은 수배만 일반인간 로동계급에게 적대되는 부르죠아 사상와 영향으로부터 더많이 해방되며 맑쓰—레닌주의 사상에로, 더많이 인입된다。부르죠아지와 반동 사상에 대한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의 승리는 불가피한것으로된다。세계사적 경험은 이것을 가르치고있다。쏘련에서 사회주의 승리는 이것을 증명한다。

사회주의에로 전환하는것으로부터 인간사회의 전사(前史)는 끝나고 그의 진실한 력사의 새 페지가 시작된다。사회주의에로 전환하는것으로부터 사회는 그에 적대되며 외부적인 맹목적 세력으로 운동하는 맹목적 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 일발적으로 과학적으로 립증된 계획에 의하여 지도되는 의식적 발전의 왕국에로 비약하는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 과정은 인간을 지배하지못한다。반대로 그가 인간의 리지에 복종되며 물질 행복 생산자의 리익과 전사회의 리익에 복종된다。이 까닭에 금후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그에게 적대되는 맹목적 세력으로 나서지못하며 그 관계는 착취에서 해방된 생산자들의 협조와 호상원조의 선명하고 명백한 관계로된다。생산력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간에 완전한 일치가 설정되었다。사회의 생산력은 악마적 세력으로부터 사회에 충실한 노복으로 전환되며 자기 운동에서 그는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의식과 목적의 통일로 침투된 성원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가진 리지에 복종한다。

유일한 사회주의적 생산 방법과 쏘련에서의 착취계급이 청산된것에 기초하여 쏘베트 사회의 도덕—정치적 통일, 제인민의 우의적 친선, 전체 쏘베트 사람들을 사회주의, 조국애로 련합하며 헌신적로동과 미증유의 영웅적 위업에로 고무시키는 쏘베트 애국주의가 성장하였고 견고하여졌다。이 모든것이 쏘베트 사람들의 고상한 공산주의 의식성의 표현과 사회주의 조건에서 한량없이 장성할 선진 사상의 역활을 증명한다。

선진 사회 사상을 반동 사상에 대치하며 첫째것은 사회 발전 과정을 촉진하고 둘째것은 그에 장애한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사회 발전 과정을 촉진시킴에 대한 선진 사상의 영향력은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전리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대중을 쟁취하였는가, 그가 얼마나 지배적 사상으로 되었는가하는데 또한 우리의 주목을 반드시 돌리어야 할것이다。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의 레닌주의 사상의 창조적 변혁적 역활은 그 뒤에 쏘베트 인민의 련합된 쓰딸린적 친선의 모든 힘과 위력과 새 사회제도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의 전체 영향과 위력이 서고 있다는것으로써 결정된다。

쏘베트 인민은 새 사회의 의식적 적극적 건설자로서 나선다。수천만 인간의 활동은 유일한 목적으로 나가며 그의 인민의 사회주의 국가와 자기의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다。

물론 사회주의 조건에서도 력사적 필연성이 동작하는것은 사실이다。여기에서도 사회주의의 생산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개의 새 후세사람은 그의 선행자들이 창조한것에 반드시 기초할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와작적인 로동자, 끌호즈원, 인테리겐챠는 로동 도구를 개선하며 로동 생산성을 증가하면서 개인적 목적만 가진것이 아니라 우선 전적으로 사회와 리익, 조국의 리익을 타산한다。쏘베트 사람의 로동은 개인적 일로 되지않는다。반대로 그의 본질에 의하여 그는 철저한 사회적 로동이다。자본주의하에서 고통스러운 중하(重荷)로 되었던 로동은 사회주의 조건에서 영예의 일로, 용감하고 영웅적인 일로 전환되었다。

전국가적 계획을 실행하며 초과 실행하는것은 쏘베트 국가에서 정치 문화의 총앙양과 각개 쏘베트 공민의 물질 문화 복리상태의 제고를 표시하는것이다。개인적 및 사회적 리해관계를 조화적으로 결부하며 합리화와 새로운 로동 방법을 적용하며 조국와 앞에서 공민의 임무를 고상한 의식으로 실행하는—이 모든것은 사회주의 조건에서 각재 로동자와 끌호즈원은 그들의 생산 과정에 바친 일정한 재선(改善)와 사회적 결과를 예견

할수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쓰따하노브 운동의 창시자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운동—같은 자들도 이 저명한 창시가 가져온 그 발전력과 그 사회적 의의를 일반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운동은 미상불 저절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기업소들의 관리자측으로부터 조금도 내려누룸이없이 아래로부터 시작된 그 사실이 눈에 띄어보인다。그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어느정도까지 우리기업소들의 관리자들의 의사에 거역되어 심지어 그 관리자들과의 투쟁속에서 발생되었고 또 발전되었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四九七 페지)

쓰따하노브 운동은 발생할수있었고 거의 자연발생적 전파력을 가지게된것은 그가 쏘베트 사회의 모든 발전과정으로서 완전히 성숙되었고 준비되었고 준비되었던까닭이다。(산업 발전, 기술 장성, 로동 계급의 물질·문화 수준 제고) 쓰따하노브 운동은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의 활동으로서 의식적으로 준비되었던것이다。

「기술을 소유하라」는 쓰딸린 동지의 구호는 로동 계급과 꼴호즈 농민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얻었다。새공장 건설의 열의는 새 기술을 소유하는 열의로 보충되었다。

쓰딸린 동지는 전쏘련 쓰따하노브 운동자 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 연설에서 쓰따하노브 운동의 본성을 깊이 과학적으로 분석하였고 새 사회 건설 사업에서와 기사, 기수, 로동을 하는 일군의 수준에까지 로동계급의 문화, 기술 향상 사업에서 그 운동의 위대한 력사적 의의를 분석하였다。공산당(볼쉐위끼)은 대중의 창조적 발의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지도하며 각방으로 원조한다。

자본주의 조건에서 기술 부면에서의 어떤 발명과 생산에서의 어떤 개선은 생산과정에서 구축되는 근로자와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종종 상당한 불행으로 된다。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 부면에서의 새 발명은 가끔 의외의 직접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증명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직관적인 실례는 평화적 목적이 아니요, 인민의 리해관계가 아니요, 세계적 지배를 지망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군벌 도당의 리해관계를 위하여 생산하며 리용하는 원자 에네르기야 발명이 될수있다。

사회주의 사회조건에서는 이와 류사한 과학 기술 발명의 사회적 결과는 절대적으로 제거되었다。사회 발전 법칙의 지식은 볼쉐위끼당에 사회 발전리론을 전적으로 포괄할 가능을 주며 어떠한 사회적 사변의 가까운, 혹은 가장 먼 결과를 예견

할 가능을 준다。그런데 볼쉐위끼당은 보통 예견만하는것이 아니다。(부르죠아 사회에서도 예견하는것이 있을수있다。례를들면 과잉 생산, 공황이 올것을 예견하는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과 우리 국가는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을 지침으로 삼으면서 공산주의 건설 과업에 해당하게 사회 발전의 전체 과정을 의식적으로 지도할 가능을 가졌으며 지도하고있다。

× × ×

사회주의 조건에 있어서도 아직 인간의 의식에 자본주의 관습이 보존되고있다。(부분적 공민들중에 개인적 소유의 경향이 남아있는것, 꼴호즈원, 로동자, 사무원의 락후된 부분의 로동에 대한 불성실한 관계, 부분적 분자들이 사회주의 공동 생활 규칙을 위반하는것, 어떤 학자, 문학과 예술의 대표자들이 외국 문화앞에 아첨하는것, 관료주의 잔재 등등) 이것은 물질적, 사회 생활 조건의 발전보다 대중의 의식이 뒤떨어진다는 일반적 법칙과 련결되었다。사회적 의식 형태는 한번 발생하면 그다음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되며 시간이 갈쑤록 관습의 힘을 가지며 견고화한다。이것은 특히 사회적 존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상적 형태에 관계된다(종교, 도덕 등등)

쏘베트의 실제에서 사회주의 사회 물질 생활 조건의 발전보다 의식이 뒤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자본주의적 포위이다。세계자본주의 제국가의 반동 계급은 쏘련을 반대하는 사상적 전쟁을 진행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잔재를 보지하려고하며, 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성의 역할을 약화하려고, 하며, 우리의 전진 속도를 지체시키려고 하며,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파손하려고 강력히 노력하고 있다。

레닌—쓰딸린 당의 지도를 받는 쏘베트 인민은 자본주의 포위의 위험을 인식하고 볼쉐위끼적 경각성을 발전시키며 제국주의 대리인들 편으로부터의 각종 적의적 행동을 극복하며 우리 대오에서 관대성과 방심의 요소를 청산하며 공산주의 건설의 길로 성공적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모든 자기의 력량을 동원하는데로 자기의 주목을 집중하고있다。쏘베트 인민 앞에 서고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결과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전환을 실천할 과업을 해결하여야할 필요성은 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성의 제고와 인간의 의식에서 자본주의 잔재의 극복을 요한다。각종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잔재와의 중요한 투쟁 방법은 볼쉐위끼적 비판과 자아비판이다。비판과 자아비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부면, 국가 기관, 과학, 문학, 예술—사회주의 사회 생활의 모든 범위에서 부족점을 발로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봉사하고있다。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부족점이든지 쏘베트 사람들에게 발로만 한다면 그들은 그 부족점을 극복함에 즉시에 일치하게 궐기한다。우리에게 있어서 비판과 자아비판은 사업에서의 부족점을 극복하는 위력한 사상—정치적 수단으로、각종 낡은 잔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출현한다。비판과 자아비판—이것은 우리가 경우를 따라 리용하는 부분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발전에서 사회적 여론의 막대한 역활과 력량 및 선진 사회주의적 의식을 반영하는 우리의 발전 법칙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사회주의 의식의 변혁적 역활은 볼쉐위끼당의 지도를 받는 쏘베트 인민이 언제보다도 유일한 목적과 통일된 사회주의 사상과 무한한 조국애—쏘베트 애국주의에로 단결된것과 관련하여 측량할수없이 성장하는것이다。

만일 과거 시대에 인간이 자기앞에 세운 목적에 해당하지않은 결과로 종종 도달하였고 그 달성한 성과는 외견상으로써만 그들의 의향에 부합된다면 사회주의 조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의 의사로 지도되는 사회발전의 계획성의 결과에 우리는 자기앞에 세운 그 목적보다 더많이 달성한다。즉 쏘베트 인민은 예정한 계획만 실행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과실행한다。

인류력사에는 새 생활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수천만인간의 물질적 력량으로 전환된 선진 사상과 선진 리론의 위대한 조직적 및 변혁적 역활과 동등한 다른 실례는 없으며 맑쓰—레닌주의 리론처럼 력사 발전 과정에 그런 막대한 영향을 주는 다른 과학적 리론은 세계에 없으며 없었으며 있을수도없다。이 리론에 기초하여 경제 법칙과 계급 관계에 깊이 침투하는 기초에서 선진 사상의 위대한 역활을 타산하는 기초위에서 쓰딸린 동지와 공산당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쏘련에서의 인민경제 발전의 五개년 계획들을 강구하였다。과학적으로 강구된 계획으로서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은 수백만 인간의 동작을 련합하였으며 세계사적 과업 해결에로 그들의 의사를 지도하였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사상이라도 만일 그를 위하여 대중이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것이다。그 사상이 만일 대중을 쟁취한다면 위대한 력량으로 될것이다。쓰딸린적 제五개년 계획의 사상은 즉、실지 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에 적용된 맑쓰—레닌주의의 사상이다。이 사상은 대중의 의식에 리해되기 쉬운것이며 그들의 두뇌를 파악하였으며 위대한 창조적 창발적 력량으로 전환되었다。맑쓰—레닌주의 리론은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의 리론을 대중에게 경주하였으며 이것으로써

그들의 력량을 수십배로 만들었다。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로써야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고 로써야 인민들이 실천한 사회주의 혁명은 볼쉐위끼 당의 교양을 받은 대중의 위대한 정치적 의식성과 성숙성의 표현인것이다。一국내에서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쓰딸린적 리론을 지도로 삼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에 기초하여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락후성만 퇴치하였을뿐만 아니라 짧은 력사적 기간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현하 우리국가는 새 발전의 령역、사회주의의 전설을 완결하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령역에 립각하였다。우리가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길로 더 전진할수록 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성에 대한 더 큰 요구가 제기된다。

쏘베트 인간의 사회주의적 의식 수준이 더 높을수록 공산주의 건설의 도정에 놓인 모든 곤난을 극복하기에 대중이 준비되었으며 그들의 열성이 더 제고될수록 사회주의의 건설을 완결하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전환할 우리앞에 서고있는 과업을 우리는 더 성공적으로 실천할것이다。

맑쓰—레닌주의는 사회주의의 의식의 최고 형태이다。이 위대한 리론을 소유하는 그는 현재를 깊이 또는 명백히 인식할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할 가능성을 가지는것이다。바로 이 때문에 쓰딸린 동지는 간부들에게 이 과학의 과학을 파악하며 그를 더일층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라고 요구하였던것이다。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을 파악하지못하고서는 공산주의의 사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수없으며 인간의 의식에서 자본주의의 잔재를 성공적으로 극복할수 없는것이다。

인간의 의식에서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대중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강화—이것은 공산주의에로 향한 우리의 전진을 민속케하는 중요조건이다。모든 우리의 사상적 사업은 이 목적에 반드시 복종되어야하며 우리의 사회과학、문학、예술의 각개 작품은 이 위대하고 고귀한 목적에 반드시 봉사하여야 할것이다。

높은 수확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미추린적 과학

이·쓰크보르초브

전후시기의 농촌경리향상방책에관한 전동맹공산당(볼니위끼)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二월결정을 정확히 리해하면서 사회주의농업에 진력하는 사람들은 꼴호즈에서 높은 수확을 거두는데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농업생산의 다수의 가장 중요한 부문에서 전쟁전 수준에 도달하였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릉가하였다。미추린적 과학과 사회주의농업가들의 경험은·꼴호즈농민들에게 전체 과종면적에서 높은 수확을 달성하는 방법을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미추린학설의 힘은 그것이 꼴호즈 및 쏩호즈와 긴밀한 련관성을 가진 점에 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중요한 제과업을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심오한 리론적 제문제를 연구한데 있는것이다」(뜨·드·뢰쎈꼬) 그러므로 一九四八년八월 모쓰크바에서 개최된 브·이·레닌의 이름을 가진 전동맹 아까데미야대회에서 선진적 미추린학설의 계승자들이 이전에 보지못하던 식물, 황금소맥, 대맥, 라맥(裸麥)의 새로운 종류, 꼬끄—싸기자(고무원료로되는 식물—역사)의 거대한 뿌리, 도마도의 놀랄만한 열매를 보여준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그들은 자기들의 과학적 명제를, 꼴호즈와 쏩호즈의 경험으로 또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선진자들의 성과로써 확고히하였다。

선진적 과학의 대표자들과는 반대로 미추린학설의 적들은—즉 모르간주의자들, 멘델주의자들은—꼴호즈와 쏩호즈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들의「리론적」견해를 확인하는 한개의 믿을만한 실례를 가져올수 없었으며 그들은 높은 수확을 주는 한개의 새품종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 × ×

높은 수확을 주는 품종이 없이는 좋은 수확을

거둘수는 없는것이다。만일 렬등하고 적은 수확을 주는 품종이, 깊고 시기에 맞는 경작과 풍부한 비료와 면밀한 손질을 한때에, 그 수확이 가령 한헥따르에 五—六쩬트네르(영국 백본드의 중량)높아진다고 하면, 우수한 정선된 품종이면 二十내지 三十쩬트네르 이상으로 수확을 높일것이다。이렇기 때문에 좋은 수확을 주며 진보된 농업기술을 더욱 반영하는 신품종을 만들어내는것이 농업의 성과에 대해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것이다。

재배식물(栽培植物)의 신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의 농업가들이 도태(淘汰)를 리용한다。파종하기 위해서 가장 알이 굵은것을 선출하고, 메론(양굴)이나 수박의 가장 감미(甘味)가있는 열매의 씨—즉 가장 완전하고 사람에게 필요되는 씨를 보존하여 농업가들은 후대(後代)의 끊임없는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다。그러한 도태를 다년간 계속한 후에는 더욱 가치있는 품종이 조성되는 것이다。

신품종선택의 학자들은 지금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내는데도 도태의 방법을 광범히 리용하고있다。장소에 따라서 식물은 서로 다르다。모든 지방적 표준품종은 대개 참으로 여러가지 식물이 섞이어서 된 것이다。선택자들은 개개의 식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적 좋은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우수한것의 후대를 번식시킨다。이것은 분석 또는 구분선택방법이라고 칭한다。이 경우에는 학자들이 새로운 품종을 창조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품종중에서 가장 값있는 품종을 선출한데 불과하다는것을 용이하게 알수있다。어떤 선택자가 롱담으로 말한바와같이「새로운 품종을 얻기위해서는 그것이 자연에 미리 있어야」하는것이다。신품종을 만들어 내는것이 요행이나, 우연에 의존된다는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명백한 일이다。

우연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적게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다른 방법 즉 합성(合成)또는 결합선택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품종이 다른 두개의 식물을 택해서 그것을 교배(交配)시킨다。그러면 부(父)계와 모계의 성질이 결합된 혼합물 잡종을 얻는다。부계식물은 수확은 많으나 한발에 대한 견인성이 약한데 모계식물은 수확은 높지않으나 그 대신 한발을 잘 견디어 낸다고 가정해보자。이 식물을 교배시킬때 선택자는 그 후대로써 높은 수확을 주는 동시에 한발에 대한 견인성이 또한 강한 식물을 얻을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학자들을 우연성으로부터 해방시키지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연성이 더욱

중가되는것이다。 경험상으로 보면 상이한 특징을 가진 두개의 식물을 교배시킨때에 언제나 요구하는 특질이 결합되고있는 새로운 품종을 얻는다고는 할수없다。수천의 후대식물중에서 겨우 一—二개의 식물이 특정과 성질의 성공적인 결합을 나타내는것이 보통인것이다。이와같이 하여서 이 방법으로 사업할때에는 선택자들이 또다시 우연과 요행에 의뢰하게된다。 만일 이 방법으로 선택자들이 성과를 달성한다면 그것은 한개의 우수한 식물을 찾기위해서 때로는 수만、수십만의 후대잡종식물을 번식시키는 거대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선택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확실한 과학적 방법이 없기때문이요、실천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당한 과학적 태도가 없는때문이다。부르죠아생물학은 선택자—실천자들을 혼란케했을뿐이다。부르죠아생물학은 교배에 의해서 신품종을 얻으려하는 선택자들의 사업을 어떠한 화투놀이와 류사한것으로 되게하였다。화투놀이에서 이기는것이 우연한 일인것과같이 선택자들은 교배에 있어서 다만 우연적인 요행을 기다리지않을수 없는 것이다。 부르죠아생물학의 견지에서 말하면 선택자가 동물과 식물유기체의 유전성을 변경시키는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 × ×

식물의 유전성을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대한 로씨야학자 이·브·미추린이 처음으로 뜻을 두었던것이다。 그는 식물의 신품종、동물의 신종류를 만들어내는 과학적 토대를 작성하였다。이·브·미추린은 식물의 유전적 성질이 환경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된다는것을 확정하였다。

이·브·미추린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파실류(果實類)와 장과류(漿果類)의 고귀한 품종을 만들어냈다。그의 사업의 한실례를 들어보기로한다。

이·브·미추린은「황색 벨플예르」라는 사과 품종을 택했다。이 품종은 알이 굵고 극히 맛이 좋으며 장기간 동기저장을 할수있는 품종이다。그러나 이 품종의 나무는 다만 겨울에 그다지 춥지않은 남방지방에서만 잘 장성한다。 쏘련의 중부지대의 조건하에서는 얼어버리고 마는것이다。「벨플예르」의 꽃들에「끼따이까」종의 화분(花粉)을 수분(受粉)시키었다。끼따이까종은 가장 기후가 준렬한 북부의 조건하에서도 성장할수있으나 그러나 그 열매는 자그마한것이다。

교배한 결과로 얻은 종자에서 나무가 자라 그 혼종사과나무가 생장한지 七년만에 열매를 맺기시작하였다。그 열매는「끼따이까」의 열매보다는 컸으나 모계인「벨플예르」사과 보다는 훨씬 적은 열매이었다。그뿐아니라 그것은 장구한 저장도 할수

없었다。 九월중순까지 저장하니 그후에는 썩어버리었다。아마도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해야할것같았다。보통 선택자들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이·브·미추린은 식물을 선별한것이아니었고 우연을 기다린것도 아니었다。 그의 사업의 표어로 된것은 다음과같다。 즉「우리는 자연에서 은총을 기다릴수는없다。그것을 자연에서 가져오는것—이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이·브·미추린은 심하게 상이한 조건에서 태한 두종의 식물의 교배의 결과 얻은 유년목(幼年木)의 유적전은 확고치않으며 불안정하다는것을 알고있다。그것은 임의의 방향으로 향하게할수 있는것이다。 그는 불확고한 유전성을 가진 유년목을 배양하여 유적적 성질을 개조하기로 결정하였다。이것을 의해서 그는 새로 얻은 식물-가지에 모계의 나무인「황색-벨플예르」에서 가져온 몇개의 접목(挟木)을 실시하였다。접목한 결과 얼마후에는 좀더 알이 굵고、저장할수있는 과실을 얻게되었다。그러나 그 결과는 이 학자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았다。 그는 식물개조를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나무를 더욱 배양하기 위해서 그 가지에 동기의 견인한 저장성을 가진 다른 사과 품종을 접목시키었다。나무는 년년이 변화되었다。몇년후에 접종배양은 끝났다。그렇게해서 엄한에 견디고、알이 굵고、장기간 저장할수있는 열매를 맺는「벨플예르—끼따이까」라는 가장 훌륭한 미추린적 신품종의 하나를 얻게된것이다。이 경우에 이·브·미추린은 멘또—르(감독자)또는 재육목(栽育木)의 방법으로써 유년목의 필요되는 변화를 달성하였다。유년목은 그에게 접목된 오래고、확고한 품종의 접목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라고 변화되었다。

혼종묘목은 무슨 리유로 개변되었는가? 이·브·미추린이 말한바와같이 접지(接枝)할때에 유착(癒着)한 식물은 수액(樹液)을 교환하게되며 이리하여 접지하는 대목도 그가 접지하는 대목변화를 일으킨다。변화의 방향은 쌍방의 식물의 천연적 유전성의 공고성 여하에 달린다。불안정하고 확고하지않은 유전성을 가진 유년목은 확정된 유전성을 가진 구품종보다 훨씬 더욱 용이하고 심하게 변화되며、그때에 그 변화는 구품종 편으로 되는것이다。이것은 식물의 천연적 유전성을 개조하는 미추린의 수다한 방법중의 하나인 것이다。이 학자의 수완에 의해서 식물은 순종하게되었으며、년년이 변화되였으며、인간의 의사에 복종하게되었다。

위대한 이 학자는 유전성을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였다。이·브·미추린은 비단 생세포(性細胞)뿐만 아니라 식물의 매개부분、그의 매개세포가 유

전성을 지니고 있는것이라는것을 확정하였다。 미추린은 두개의 식물을 유착시키였으며 그와 류사한 결합(즉 부포근접—分胞近接)의 방법으로 이종교배(異種交配)에 의해서 얻는 그와같은 잡종을 얻었다。 그 례로써는 「레넷트 베르가모트니—」라는 미추린적 사과품종을 들수있다。 보통 묘목에서 얻은 접목과 「아또노브끼 뿔르또타푼또브이」의 종자에서 자란 유년목에서 얻은 접목을 야생배나무에 접하였다。 그 결과 부포잡종이 된 한나무가 자랐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사과의 맛을 가졌으며 형태는 배와같은 것이다。 미추린의 연구후에는 분포잡종 즉 두개의 식물을 유착시키는 접지에 의한 잡종이 새로운 품종을 얻는 방법의 하나로 되었다。

미추린의 이러한 신품종은 원격잡종(遠隔雜種) 즉 현저한 차이를 가진 두식물의 이종교배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다。 (례를들면 야생형극(野生荊棘)과 재배하는 오얏나무(李) 등) 그러한 식물은 보통 교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간혹 혼종식물을 얻는데 성공한다 할찌라도 그것은 보통 결실이 없는것이다。 이·브·미추린은 교배하지않는것과 결실이 없는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배하기로 지정된 두개의 식물을 미리 접지로써 접근시키었다。 그들의 수액이 교확되고 그들의 성질이 변해졌을때 비로소 그 다음에 오는 이종교배는 소기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브·미추린은 우연성을 고려함이없이 품종을 창작했다。 그는 교배하는 시기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고 잡종후대의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미리 연구하였다。 그는 유년목이 희망하지않는 특성이나 성질로 장성하는것을 불허하고 엄격히 일정한 방향으로만 발육되게 하였다。

이·브·미추린은 근三백종의 새로운 실과 및 장과(漿果) 품종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지금 쏘련의 많은 주에 전파되고 있다。 그의 신품종은 쏘련중앙지대의 과수재배(果樹栽培)를 완전히 변화시키었다。 중앙지대에서 재배되는 미추린적 사과、 배、 오얏、 벗꽃열매는 그 품질에 있어서 남방의 우수한 품종의 실과에 뒤떨어 지지않는다。 동시에 미추린적 신품종은 준엄한 겨울을 잘 견디어내며 높은 수확을 내고있다。

이·브·미추린은 과거의 분포한계(分布限界)보다 훨씬 북부에서 능히 생장하는 포도와 살구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 그는 과수재배를 북부와 동부로 이동하는 방법을 지시하였다。

수많은 미추린학도들은 미추린적 신품종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예전에는 전혀 과수재배라는것을 생각하지도않던 우랄이나 씨비리에서 성과있게 과수를 재배하고있다。 현재에는 우랄이나 씨비리에서도 이미 수천헥따—르의 과수원을 소유하고있다。 남방의 과수재배는 북방으로 이동되고있다。 포도재배의 이동은 특히 모범적인 것이다。 포도재배는 지금 미추린쓰크부근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모쓰크바주의 끌호즈와 솝호즈에도 포도원이 설치되었다。

一九三七년에 께메로브시에 미추린협회가 조직되였다。 현재 이 협회는 十二헥따—르의 과수원을 소유하고있다。 노보씨비르쓰크 미추린협회는 六백명의 성인회원과 二백十二명의 소년 미추린학도가있다。 미추린학도인 프·야·레브추크(노보씨비르쓰끄)는 수종의 사과、 배、 오얏 및 기타 과수의 신품종을 만들었다。 전동맹농업전람회에서 프·야·레브추크의 五품종의 사과와 一품종의 배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라지보쓰토크의 원예가—미추린학도들은 一九四七년도 시전람회에 一五〇종의 각종과실을 출품했는데 그 대부분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품종이였다。 하바롭쓰크의 미추린학도이며 인민교육가인 루까쉐브는 十二종의 배、 七종의 사과 및 一종의 품질 좋은 백색 쓰모르지나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품종은 엄페물이 없이 겨울을 날수있는 것이다。 알따이에있는 「루까쉐브까」 라는 배는 五〇도의 엄한을 견디어냈으며 성장한지 三년만에 결실하기 시작하였다。 루까쉐브의 二종의 배—즉 「재마」 종과 「뿔라」 종은 一九三四년 모쓰크바전람회에 출품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곳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 매년 결실하고있다。

옴쓰크주 하나만하여도 근 三천헥따—르나되는 과수원이있다。 그루지야의 아열대(亞熱帶) 지방에서는 원격잡종의 미추린적 방법으로써 생물학박사 까·예·바흐따제는 예전품종보다 三五—五〇%의 수확을 더 내는 차(茶)의 신품종을 만들어냈다。

지금에 와서는 열성적인 미추린학도가 없는 그러한 곳은 한변강도、 한주도없다。 북극권에서까지도 과수재배를 하고있다。

「내가 六十년동안 일하고있으며 밀접히 대중과 련결된 이 사업은 대중의 사업으로 되었다」 이·브·미추린은 자기가 별세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실생활은 이말을 확인하였다。

× × ×

미추린의 사상、 그의 창조적 견해는 탁월한 쏘베트학자 뜨·드·리쎈끄의 로력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한림원회원 뜨·드·리쎈끄는 미추린의 학설을 심화(深化)하였을뿐만 아니라 발전시키었고 확대시키었다。 그는 부르죠아과학에서 설정되어있던 견해와 명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다수의 과학적 발견을 하였다。 동시에 한림원회원 뜨·드·리쎈끄

의 새로운 창조적 명제는 어떠한것이나 즉시 생활화되는것이 특징적인 것이다。

자기의 과학적 활동의 첫시기에 학사원회원 뜨・드・릐쎈꼬는 대실험의 결과 저명한 식물성장의 계단설(階段說)에 도달하였다。그것은 매개식물의 개별적 성장방식을 정당하게 설명하는 것이다。전에는 어떠한 식물의 성장이라는것은 량적 변화가 집적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것이라고 생각되어왔다。식물의 성장은 그것의 성숙(成熟)과 동일시(同一視)되었다。사람들은 말하기를 식물은 점차로 잎、줄기、꽃이 자란다。즉 종자로부터 새로운 종자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동시에 성숙하며 비약이 없이 점차로 성숙되는것이라고 하였다。

뜨・드・릐쎈꼬는 이 견해의 부정당성을 천명하였다。일년생 재배식물의 례로써 그는 매개의 유기체의 생명속에는 질적이고 돌변적인 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또한 실제로 그것을 볼수있는 것이라는것을 표시하였다。추파소맥(秋播小麥)은 그의 시험장에서 몇년동안 훌륭히 성장하였다。극히 많은 잎이 번창하였다。그러나 이삭이 나오지 않았으며 성숙되지 않았다。그가 그 소맥을 거의 잎의 성장을 제지시킬만한 낮은 온도에 두었을때 얼마후에 급변화가 생기었다。소맥은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종자를 형성하였다。

현재 매개식물은 자기의 성숙과정에서 두개의 계단을 경과한다는것이 확인되고있다。즉 야로위자찌야(催芽過程)와 빛(光)의 과정이다。만일 이 적당한 조건(필요되는 기후、습기、빛)이 없다면 식물은 성숙되지 않을것이며 결실기관을 형성하지 않고 종자를 주지않을것이다。

계단적 성숙의 리론은 농촌경리의 실천과 긴밀히 련결되어있다。그것은 종자의 야로위자찌야방법을 창설하는데로 인도하였다。그 방법은 무엇인가? 만일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숙할때에는 반드시 야로위자찌야계단을 경과하여야한다면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이 계단을 경과하도록 할수는 없을것인가? 뜨・드・릐쎈꼬는 파종전에 종자를 적시고 움터날수있게 하고난후에 식물이 육안으로 겨우 볼수있으리만한 싹(芽)을 야로위자찌야계단을 경과하리만한 조건하에 둬둔다。보통 야로위자찌야하는것은 추파식물이 아니라 춘파식물이다。움이튼 종자는 그늘지고 환기 잘되는 장소에 둔다。

짧은기간에 종자의 파종전 가공의 상기한 방법、다른말로하면 야로위자찌야는 끌호즈와 쏩호즈에서 가장 광범히 파급되었다。조국전쟁전에 벌써 야로위자찌야된 종자가 一천四백 내지 一천五백 헥따ー로에 파종되었다。전쟁후 종자의 야로위자찌야는

또다시 급속히 확장되기 시작하였다。새로운 농업기술적 방법의 그러한 미증유의 성과는 그것이 가지는 높은 효과성과 거대한 유익으로써 설명된다。야로위자찌야되지않은 종자에서 나온 싹은 전지에서 야로위자찌야계단을 경과할때 까지는 성숙되지않으며、이삭이나 또는 전반적으로 꽃이 될 싹이 나오지않는다。이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된다。그런데 야로위자찌야한 종자는 발견에 있어서 지체하지않고 급속히 성숙한다。야로위자찌야는 곡물수확에 있어서 한 헥따ー르당 수확량이 감소되지않으며 그보다 더많이 증가시킨다。야로위자찌야를 리용함으로써 다수의 남방의 농작물을 북방으로 이동하는것이 훨씬 가능하게 되었다。북방에서는 야로위자찌야되지않은 종자에서나온 싹은 성숙하는데 이르지못하고 말지만、야로위자찌야된 종자에서 나온것은 능히 성숙하는것이다。

식물의 계단적 성숙을 토대로하고 뜨・드・릐쎈꼬는 어떠한 종류의 감자든지 급속히 퇴화(退化)해버리는 남부지역에서 감자의 높은 수확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퇴화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으나 허사로 돌아갔다。그중의 어떤사람은 남부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적응하는 감자종류를 만들어야 할것이라고하였다。다른사람은 한발로 인해서 수확이 저하됨을 설명하고서 물을 대인 구역에 감자를 재배하였다。끝으로 셋째사람은 감자의 퇴화의 원인은 보이지않는 해독에 의해서 생기는 특별한 병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과 투쟁할 방도를 찾고있었다。그러나 아무러한 방법도 아무러한 시책도 사업에 도움이 되지않았다。

그때 북부지역으로부터 남부로 종자용감자를 매년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그러나 그 방책을 실천화하는것은 극히 곤난한 일이었다。총계를 해보면 남부에서 감자를 심는 전체면적에 다 심기위해서는 수천 화차의 감자를 운반하는것이 필요하게 되는것이었다。

뜨・드・릐쎈꼬는 이 문제를 극히 간단히 해결하였다。그는 마령서의 퇴화와 그 종자의 품질의 악변은 자라나고있는 어린 마령서에 대한 대단히 높은 여름 기온의 작용으로 발생한다는것을 표시하였다。남부에서는 춘기 파종시에 형성되어가는 감자의 눈(싹)이 높은 기온때문에 수확에 이르기도 전에 움터난다。자라가는 싹의 조직은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로쇠해버린다。그리고 그 로쇠성은 후대에 반영되는것이다。다음 수확에 있어서 감자는 이미 로쇠된 세포로부터 발전될것이다。그러므로 생명력이 짧고 퇴화되는것이다。

어린감자의 로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형

성기간을 선선한 가을로 옮기는것이 필요하다。이것을 위해서는 감자를 봄에 심지 말고 여름에 즉 六월말부터 七월초기에 이르는 기간에 심어야한다。

이렇게해서 감자의 하기파종법이 발생하였다。그 결과 수확은 두배 또는 두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굵고 품질이 좋은 감자의 수확을 보장하였다。이로 인하여 감자의 유전적 특성도 대대로 향상되었다。이렇게 참된 리론은 실천의 길을 지시하였다。

식물성장의 계단설은 일정한 방향을 가진 선택사업의 토대로도 되었다。이전에는 식물의 이종교배를 하기위해서는 다만 식물의 외형에 나타난 특징만을 근거로하고 식물을 택하였다。그러므로 후대에서 요구되는 유용한 특징이 결합된것을 얻는것은 다만 우연한 일이었다。뜨·드·리쎈꼬는 높은 수확을 주는 한쌍의 재태종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것을 기초로하여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서의 춘파소맥의 신품종을 만들어냈다。그는 식물의 계단적 성장을 분석하였다。그리고 선택한 매개식물은 지방적인 천연적 조건하에서 어떠한 특징이 발전되는가를 미리 확정하였다。그와같은 분석은 이 학자로하여금 이종교배를 하기에 적당한 한쌍의 식물을 선택할수 있게하였던것이다。

전에는 선택자들이 잡종식물의 후대중에서 어느때에 적당한 식물을 찾을수없는것인가를 아지못했기때문에 신품종을 만들어내기위한 정확한시기를 지적할수없었다。그러므로 그는 五대나 六대 또는 그 이상의 후대를 연구하였다。그러기위해서는 수년이나 걸렸던것이다。뜨·드·리쎈꼬는 후대의 성질을 미리 알게된 지금에와서는 그가 신품종을 만들어내기위한 정확한 시기까지도 확정할수있었던것이다。

미추린학설을 토대로하고 쏘련에있어서의 선택사업은 점점 더욱 실제적이고 생산성이있게되었다。미추린학설에 의해서 일정한 성질을 가진 신품종을 만들어내기위한 일정된 시기를 미리 확정하는것이 가능하게되었다。

유전성에 관한 미추린의 학설은 한림원회원 뜨·드·리쎈꼬에 의해서 빛나는 발전을 이루었다。뜨·드·리쎈꼬는 유전성을 유기체가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며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일정한 형태로 대응(반작용)하는 그러한 유기체의 특성이라고 본다。

만일 발전하는 식물이 그의 유전적인 천성에 적응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필요되는 그러한 외부적 조건하에 놓인다면 이 경우에는 선대(先代)에있는 바와같은 그러한 천성, 그러한 유전성을 가진 유기체가 발전된다。백화(白樺)나무씨로부터는 그를 낳은 백화나무와같은 천성을 가진 백화가 또 다시 자라난다。

만일 발전되는 유기체가 그의 유전적 천성에 적응하는 그러한 외부적 조건하에 있지않는다면 어떻게될것인가? 그때에는 식물이 후대를 남기지않고 사멸하거나 또는 하는수없이 어떠한 다른 형태로 발전할수없게될것이다。이 경우에는, 식물발전의 형태와 그의 유전성이 변경된다。

뜨·드·리쎈꼬는 례컨대 야로위자찌야계단을 경과하기 위해서는 낮은 기온을 요구하는 추파소맥을 택하였다。기온적 조건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는 그 품종에 대해서 그 특징에 맞지않는 높은 기온하에서 야로위자찌야계단을 끝마치도록 강요하였다。몇개의 세대를 그와같이하여서 경과하는 동안에 뜨·드·리쎈꼬는; 추파소맥을 춘파소맥으로 또는 반대로 춘파소맥을 추파소맥으로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수다한 경험에 의해서 춘파 또는 추파의 유전적 특성은 변화시킬수없는 특성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의 조건에 의존한다는것이 증명되었다。이에 대해서 드·드·리쎈꼬는 개변된 소맥의 동절에 대한 견인성이 엄한에 대해서 가장 견인성있는 추파품종보다 더 견인성이 있는 일이 드물지않다는것을 표시하였다。많은 경우에있어서 개변된 춘파소맥은 유명하고 오랜 추파소맥품종보다도 훨씬 더욱 우수하게 겨울을 견디어내며 다음해에는 더욱 높은 수확을 주는것이다。이로 인하여 식물의 동절에 대한 견인성의 문제는, 전연 다르게 해결될것이다。

뜨·드·리쎈꼬의 이러한 과학적발전은 실천에 대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것인가? 그 의의는 심대한바가있다。어떠한 유기체의 유전성이라는것은 외부환경의 작용을 받아 형성되는것이라는것을 경험이 확실히 보여주었다。그러므로 례컨대 높은 수확을 주는 구역에서 난 종자는, 품종은 동일해도 수확이 불량한 구역에서 모아온 종자보다도 파종시에 더욱 높은수확을 준다는것이 완전히 명백한일로되었다。

첨채(甜菜)의 종자개량에있어서 비옥성이 적은 토양에서 산출된 첨채여 조그마한 뿌리를 종자로 쓰기위해 남겨두는것이 상례이었다。그러한 소자방근(小子房根)은 큰것보다도 해따-르당의 수확이 더 많을뿐만 아니라 소근(小根)은 보관하기 용이하였다。즉 장소를 넓게 잡지않았다。그래서 소근에서 나온 종자는 큰뿌리에서 나온 종자보다도 그 유전적 천성이 나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되었던것이다。뜨·드·리쎈꼬의 과학적 명제는 그러한 결론을 완전히 배척하는것이다。

뜨·드·리쎈꼬는 종내부(種內部)의 투쟁과 경쟁에 관한 부르죠아생물학자들의 오유와 해독을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또는 저러한 종의 개체간의 상호관계는 그종의 발전에 대해서 적당한것이라는것을 표시하였다。이 과학적 명제를 그는 즉시 실천에서-

확인하였으니 꼬끄—싸기자의 자방파종(子房播種)을 재의하였던것이다. 一九四八년에 몇곳의 꼴호즈작업조는 자방파종을 적용하여 한헥따—르에서 꼬끄—싸기자를 때 쩬트네르까지 산출하였다. 그 수확은 꼬끄—싸기자의 보통적(자방이 아닌) 파종을 한 구역보다 十배나 더많은 수확을 얻었다. 재배하는때 있어서의 재비용은 자방파종을 한때에 二분지一로 축소되었다.

종내부의 투쟁과 경쟁을 거부하면서 뜨·드·뤼셴꼬는 수목의 파종을 수목간의 현저한 간격을 두는 대신에 수목종자의 밀집(密集) 자방파종에 대한 명제를 추진시키었다.

미추린과학의 확고히 설정된 명제의 하나는 식물을 각품종식물의 화분으로 수분(受粉) 시킬때에 식물의 선택능력에 관해서 말하고있다. 이것은 즉 만일 꽃이 주두(柱頭)에 동일한 종의 다른 식물의 화분이 떨어지며는 이 꽃의 자방은 가장 생명력있고, 가장 견실하고, 그 발전조건에 대한 후대의 적응력에 작용하는 그러한 화분을 수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분시에 선택능력에 관한 명제는 여러가지화분이 떨어져 수분되는것이 순전히 우연에 의존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만일 례컨데 우수하고 수확이 높은 라맥(裸麥)의 품종과 나란히 품질이 다소 나쁘고 수확도 적은 품종의 파종을 배치한다면, 그들생각에 의한다면 량호한 라맥의 품종이 불량한 품종에의해서 손상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자용 라맥의 파종은 종자용이 아닌 선별되지않은 라맥에서 적어도 한키로메—터는 떨어진곳에 파종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뜨·드·뤼셴꼬는 수분의 선택능력으로 부터 출발해서 종자용 라맥의 파종을 그와같이 격리시키는것은 필요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로운것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각종 화분이 수분될때에는 라맥은 반드시 그에게 대해서 우수하며 생물학적 관계에있어서 가장 유익한 화분을 접수한다는것을 표시하였다. 그럼으로 라맥의 품종은 반드시 향상될것이다.

그러나 수분시에 식물의 선택능력은 우리에게 대해서 언제나 유익을 주는것은 아니다. 수분시에 이화수분(異花受粉)이 허용되는것은 품종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그 식물의 생물학적 요구와 부합되는 때에만 가능한것이다. 라맥에있어서는 종자가 크고 이삭에 달린 종자의 수효가 많은것이 그들에게 유용한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맥의 품종간에서 각종품종의 자유로운 교배를 할때에도 손상되는일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첨채의 종자개량은 이와는 다르다. 첨채자체를 위

해서는 즉 그의 생물학적 천성을 위해서는 당분(糖分)을 극히 많이 포함한 뿌리는 요구되지않는것이다. 첨채는 천연적으로하면 당분 포함량이 결코 五—六%를 넘지않는것이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첨채뿌리에 당분의 포함량을 제고하는것이다. 만일 당분이 높은 종자용 품종이 당분이 적은 품종 부근에서 생장한다면 우수한 품종은 불량한 품종과 교배할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상을 받을것이다. 그러므로 종자용 첨채는 종자용 라맥과는 달리 반드시 선별되지않은 식물과의 교배를 예방해야하는 것이다.

× × ×

자기의 리론적 명제에 있어서 이·브·미추린은 기본적인 주의를 의식적인 식물개조에 돌리었다. 다른 탁월한 쏘베트학자—브·르·윌랴므쓰는 로씨야학자 도꾸차예브와 꼬스띄체브의 사업을 계승하여 주로 식물의 발전환경을 개조하는 방면에서 사업하였다.

도꾸차예브—꼬스띄체브—윌랴므쓰의 학설 또는 보통 말로 하면 도꾸차예브—꼬스띄체브—윌랴므쓰의 농업종합(農業綜合)은 농업의 순환파종(循環播種) 방식에서 표현된다. 그 속에는 다수의 방책이 포함되어있다. 즉 보호림지대와 수원림(水源林)의 부식, 목초(牧草), 전지(田地) 및 사료(飼料) 순환파종을 실시함으로써 토지를 정당하게 조직하는것, 토양의 정당한 경작방식, 유기비료 광물성비료의 정당한 사용방식, 수확성높은 종자품종의 파종, 관개(灌漑)의 발전 등이다. 이 방식등은 토양과 그의 기본적인 특성 즉 비옥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토대로하고 창설된것이다. 도꾸차예브, 꼬스띄체브, 윌랴므쓰가 토양형성법칙을 밝히고 토양의 비옥성을 창조하고 향상하는 방법을 표시한후에 비로소 그때에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응하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농업방식이 발전될수있었던것이다.

쏘련내각과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에서 一九四八년十월에 쓰딸린동지의 창설에따라 채택된 결정은 쏘련의 초원 및 삼림초원지역에 각종 목초순환파종농업방식을 실시할것을 예견하는것이다. 이 결정은 볼쉐위크적 자연개조의 가장 위대한 계획과 사회주의농촌경리가 한발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것을 표시한다.

미추린의 과학적 명제를 일면으로하고 도꾸차예브, 꼬스띄체브, 윌랴므쓰를 다른면으로해서 상호간 긴밀히 련결되어있다. 이것은 식물을 그가 발전하는 환경과 분리해서는 안되며 수확이 많은 품종을 창조하려면 동시에 그 품종을 배양하는 조건을 향상함이없이는 되지않는다는것도 명백히 말해준다.

목초순환파종농업방식에 관한 학설은 미추린학도를

파 특히 뜨·드·뢰첸끄에 의해서 발전되고 완성되었다。여기에 몇가지 례를 들기로하자。목초순환파종농업방식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개농장이 높은 수확을 주는 목초의 종자를 받을수있는 그러한 다년생초의, 종자파종에 대한 농업기술을 요구한다。높은수확을 주는 류채트니(개자리—풀이름—)의 종자를 얻는것이 가장 곤난한것이다。그리고 이 목초가 없이는 남방에서 목초순환파종을 실시할수없는 것이다。

더우기 개자리의 종자개량에 대해서 적용된 농업기술은 그 종자의 높은 수확을 모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뜨·드·뢰첸끄는 남방에 있어서 종자개자리의 하기파종을 춘경휴경전(春耕休耕田)에 하는데 관한 제안을 가져왔다。수다한 경험은 종자개자리의 하기파종이 이 작물의 종자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이 파종은 곡물밭에(곡물과 함께) 개자리를 보통 봄에 파종하는데 비해서 二、三배나 더욱 높은 수확을 주는것이다。

또 하나의 례를들면 이러하다。동부지방에있어서는 때체로 정당한 로력조직이 그러한것과같이 정당한 순환파종의 실시도 경작되는 농작물의 수를 확장함이 요구되며 특히 춘파작물을 추파곡물로 보충함이 요구되는것이다。최근까지 이 과업은 가장 해결하기 곤난한 문제이었다。왜 그러나하면 례컨대 씨비리에서는 추파곡물 특히 추파소맥의 동절에 대한 견인성이 심히 불량하기때문이다。추파소맥의 파종은 대개 이곳에서는 겨울에 완전히 얼어버리는것이다。一九四二년에 뜨·드·뢰첸끄는 탁월한 과학적 발견을하여 씨비리의 휴경전에서 추파농작물이 사멸하는것은 식물의 뿌리 특히 식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의 총생절(叢生節)에 대한 기계적인 손상으로 인한것이라는것을 표시하였다。토양의 침하(沈下)시에는 다수의 귀렬(龜裂)이 생긴다。그래서 식물뿌리의 문렬과 총생절이 토양으로부터 떼어져나온것을 볼수있는것이다。차디찬 겨울바람이 먼지를 싣고 눈으로 덮이지않은 소맥의 잎을 절단하는것이다。

이러한 불행에서 추파소맥파종을 방어하기 위해서 뜨·드·뢰첸끄는 그것을 휴경전에 파종하지말고 춘파소맥의 수확후의 밭을 갈지않은곳에 그대로 파종할것을 제의하였다。견고하고 기경되지않은 토양은 동결하는 시기에 침하하지않으며 귀렬이 생기지않는다。수확후의 그루터기들은 나온 싹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주며 그뿐만 아니라 식물을 따뜻이 하여주는 첫번에 온 눈을 날아가버리지않게 하여준다。뜨·드·뢰첸끄의 발견에 의해서 준엄한 씨비리의 겨울을 극복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 월동(越冬)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것은 과업의 절반을 해결하였을뿐이다。수확후의 밭에 파종된 곡물의 높은 수확을 보장해야할것이며 특별히 동절에 대한 견인성을 가진 신품종을 창조함이 필요되었던것이다。미추린의 학설은 이 과업들도 해결하였다。현재 수확후의 밭에 파종하는 농업기술은 극히 우수히 연구되어 씨비리곡물연구소농장의 전지에서는 六년동안에 수확후밭에서 추파소맥의 견실한 수확을 얻어 헥따—르당 三十쩬트네르까지의 곡물을 내는 기록적 령역에 다다르고있는것이다。

수확후의 밭에 대한 파종을 연구할때에 수확후의 밭에는 추파소맥뿐만 아니라 춘파소맥도 파종할수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이때에는 겨울동안에 흑수병(黑穗病)의 균사(菌絲)가 완전히 사멸해버리는 것이다。씨비리에서는 춘파소맥의 종자가 극히 자주 이 위험한,병에 전염되는것이다。

정당한 순환파종을 정통하고 농작물의 수효를 확장하는 사업에 있어서,베트비쓰트소맥(대가 여럿으로 된 소맥—叢生小麥—역자)특히 이 농작물을 모쓰크바 부근지대의 순환파종에 인입하는데 관한 뜨·드·뢰첸끄의 연구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모쓰크바 부근에서는 곡물농작물에 대해서 극히 큰 지면을 활당하기가,곤난하다。왜냐하면 모쓰크바부근의 끌호즈에서는 많은 야채와 유우(乳牛)를 위한 많은 사료와 많은 감자를 생산해야 하기때문이다。이 주에 대해서는,많은 수확을 내는 그러한 곡물농작물의 품종을 창조함이 필요된다。그것이 있는 때에는 넓지않은 파종면적에서도 수량이 많은 곡물을 줄것이다。

베트비쓰트소맥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진것이었다。이것은 소맥을 경작하는 가장 남부지대에서 다수로는 쏘련의 령역밖에서 볼수있는것이었다。그러나 아무도 그 소맥을 모쓰크바부근에서 경작할것은 생각조차도 하지않았다。왜 그러나하면 이곳에서는 그 품종이 가장 적은 수확을 주기때문이었다。

뜨·도·리쎈끄가 베트비쓰트 소맥에 주의를 돌린것은 그것이 자체의 구조와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서 한헥따르에서 六〇〇뿌드(一〇〇쩬트네르)로는 그 이상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수확을 낼수있는것이었기때문이었다。적당한 조전하에서는 한개의 베트비쓰트의 이삭(穗)은 十그람까지의 곡립(穀粒)을 낼수있는데 보통소맥은 가장 유리한 경작조전하에서도 二그람이하의 곡립을 가져올뿐인것이다。

뜨·도·리쎈끄의 지시에 따라 이 농작물의 특별한 농업기술이 연구되었으며 지금에는 벌써 모쓰크바부근에서 베트비쓰트소맥이 높은 수확을 보장한것이다。그러나 뜨·드·뢰첸끄는 이에서 정지하지않

않았다. 그의 학도들은 현재 춘파 빼트비쓰트소맥을 개조하여 그의 추파품종을 창조하는데 성공하고있다.

이와같이 미추린적 생물학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높은수확을 주는 소맥을 창조하는 과업을 새울수 있게한것이다.

× × ×

골호즈의 대중은 미추린학설을 쏘베트사회주의 농촌의 광활한 천지에서 생활화하고있다.

청년들, 청년작업조의 지도자들은 미추린—윌랴므쓰—뤼쎈꼬의 학설의 트별히 열렬한 선전자로 나서고있다. 다수의 청년미추린학도들은 자기들의 탁월한 공적에 의해서 가장 높은 표창을 받았다. 그들은 사회주의로동영웅의 칭호를 받았다.

까멘쓰끄—드네쁘로부쓰끄구에 있는 보로찌로브의 칭호를 가진 집단농장의 작업조원인 공청원 아나 오쓰골꼬바는 一九四七년에 자기의 작업조와더부러 한헥따—르에 三六·四쩬트네르나되는 추파소맥의 수확을 거두었다. 아나·오쓰골꼬바는 미추린—윌랴므쓰—뤼쎈꼬의 학설의 열렬한 선전자이다. 따마라슈쭈르꼬청년작업조(뽈레쓰끄주 브라찐쓰끄구「쵸르본나야 니바」집단농장)의 조원(組員)은 미추린학설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다. 이 골호즈의 땅은 소택지인데다 모래땅이였다. 그러나 이 작업조는 혹심한 자연적 조건에 겁을 내지않고 추파작물에 대해서 헥따—르당 평균 三十쩬트네르의 수확을 거어코 내고야말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작업조는 一九四七년평균 三三쩬트네르의 곡물을 산출함으로써 자거의 명예를 실천하였다.

청년작업조조원 므·드·옐레쓰끼흐는 사회주의로동영웅의 칭호를 받았다. 국영선별구(選別區) 오르로브쓰크주 옐찌사후군에 대한 작업을 그는 농업연구소조의 조작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아호호놈 따로노표는 작업조원들에게 [illegible] 척천으로 찌미라제브, 윌랴므쓰, 미추린, 뤼쎈꼬의 저집에서 재료를 강의하였다.

아 작업조는 사업상 어떠한 곤난앞에서도 굴하지않았다. 그 구역에 [illegible] 수년후 휴경전이 경작되지않았을때 이 작업조는 가을부터 농장의 땅을부로 탐색하여 그 형편을 전자적 고쳐놓았다. 한발이 된해에는 이 작업조는 파종한 밭을 다지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습기의 증발을 방지하는 방법—역자) 이 작업조는 헥따—르당 三十一·一쩬트네르의 수확을 거두었다.

미추린학설은 그들이 자기의 방법론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칙위에 두고있기때문에 강력하다. 그 방향은 생활과 사회주의 농촌경리의 실천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학자들 미추린학도들은 골호즈의 시험장 선택자, 선진적 골호즈원들의 경험과 일상적인 련락을 취하면서 작물과 종물의 예동을 개량하며 진흙종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평화있게 일하고있다.

(「볼로도「볼셰위끼」 一九四九년 十一월호에서)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연구자료 (第十七)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에 대하여

쁘·후루쓰또브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전략 및 전술문제에 대한 볼쉐위즘의 력사적 경험 및 국제적 혁명운동의 경험을 천재적으로 보편화한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은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작품으로된다.

이 저서는 一九二○년 六월에 출판되였다. 당시는 구라파 및 아세아의 많은 국가에 있어서 혁명의 앙양기였다.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의 승리 및 외국 무장 간섭 및 국내 부르죠아 지주들의 반혁명을 반대하는 전쟁에서의 쏘베트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운동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쏘베트적 사상은—레닌은 말하였다—지금 비단 선진국가의 로동자층들에게 보급되였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리해하고 있으며 파악하고있다. …쏘베트적 운동에대한 기초는 전극동 및 전아세아에 다시말하면 모든 식민지 인민들속에 구축되였다」 (「레닌전집」 二十五권 三四五페지) 공산당들은 혁명적 앙양의 과정속에서 [illegible] 발생하였다. [illegible] 공산당들의 앞에는 [illegible] 제기되였는바 [illegible] 혁명적 앙양을 리용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illegible] 조직하여야만 되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로 [illegible] 계급투쟁의 전략 및 전술의 지식 [illegible] 인내, 신축성 및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지도하는데 대한 높은 전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산당들은 [illegible] 약하였다. 그들은 제二국제당의 사회—민주주의적 [illegible] 잡혀 있었으며 볼쉐위끼당—세계의 [illegible] 한 경험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illegible]

공산당들은 그가 존재하는 [illegible] 대부분 [illegible]

며 자기를 분리시키는 데로 이르게하는, 많은 중대한, 착오를 범하였다。서구라파의 공상당 대렬에는 공산당을 로동자대중과 친근하게 밀접하게 련결하는것과 그것을 제二국제당의 사회―민주주의적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는것과 정권을 위하여 투쟁을 시작하려는것을 방해하는 「좌익」소아병이 출현하였다。이 「좌익」적 경향(傾向)을 가진자들은 대중적 로동운동과의 련락의 필요성을 무시하였으며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혁명 발전의 객관적 조건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력량과 적의 력량을 엄격히 고려함에 대한 맑스주의적 요구를 간과(看過)하였다。그들은 자기의 행동과 「혁명적」언구(言句)로써 공산당을 섹트주의 및 모험주의의 길에로 밀고갔다。국제적 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의 이 새로운 위기성을 반대하여 그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레닌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이란 저서를 내놓았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이란 레닌의 저서는 공산당을 조직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견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 지도의 원칙적 문제를 과오없이 해결하는 확고한―혁명적이며 능력있는 대중적 당으로 되게하며 직업동맹에 대한 공산주의적 영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 동맹자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계급을 프로레타리아트편에 이끌게하며 공산당대렬의 견고하며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며 모든 이색분자 기회주의자들과의 불요불굴(不撓不屈)한 투쟁을 진행하도록 공산당에 도움을 줄 목적을 가지고있다。레닌의 저서는 모든 공산당의 재산으로서 볼쉐위즘의 전체계―력사의 경험을 소유케하며 자기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이 경험을 리용하며 응용하도록 공산주의자들에게 가르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고하였다。레닌은 강조하기를 임무는 「국제 공산주의의 전술의 어떠한 당면한 난(難)문제에 관련하여 로씨야의 경험을 고려(顧慮)하도록 하는데 있다」라고하였다。

× × ×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은 인류력사에 있어서 근본적 전환과 낡은 자본주의적 세계로부터 새로운 사회주의적 세계로 향하는 전환을 수행하였다。十월혁명은 자본주의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세계자본주의 전선을 격파하고 지구상의 六분지一이나 되는 지역에서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의 지배권을 전복하고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정권을 부여한 위대한 十월혁명은 완전히 세계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레닌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경험을 천

재적으로 보편화하였으며 그의 국제적 의의를 광범한·의의에서, 즉 세계의 모든 나라의 혁명에 영향을 준다는데 있을뿐만아니라 가장 좁은 의미에서, 즉 쏘베트로씨야에서 있은것처럼 국제적 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반복된다는 력사적 불가피성에 있음을 명시하였다。「지금―레닌은 쓰기를―우리는 벌써 매우 상당한 국제적 경험을 가지고있다。즉 이 경험은, 우리혁명의 몇개의 기본적 특징은 지방적 민족적―특수적 로씨야적 의의만을 가진것이 아니라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옳게 확정적으로 말하여 주고있다…로씨야의 모범이 모든나라에 머지않은 장래에 불가피적으로 올 매우 중대한 그 어떤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모든 선진국가의 진보적 로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리해하고있다。더욱 흔히는 리해하고 있다하기 보다도 차라리 혁명계급의 본능으로써 이것을 파악하였고 감득(感得)하였다。이로부터 쏘베트주권과 또한 볼쉐위끼적 리론 및 전술의 기본의 국제적「의의」(협의―狹義―로의)가 나온다」(「레닌전집」제二十五권 一七一―一七二페지) 레닌은 로씨야혁명의 국제적 의의를 리해하려고 하지않은 제二국제당 수령들 즉 독일의 까우츠키、오지리의 오또·바우에르 및 프리드리흐·아들레들과 같은 자들에게 심각한 비판을 주었다。이것을 리해하지못한 그들은 기회주의 사회―변절 및 반혁명의 옹호자로 나섰다。

「경험은―레닌은 썼다―로씨야에 있어서 이미 수행된 프로레타리아혁명에 대한 심히 중요한 몇개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에서 불가피적으로 그것을 수행하게 되리라는것을 증시(證示)하였다」(「레닌전집」제二十五권 一七九페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부르죠아로부터 주권을 전취하였으며 부르죠아적 국가기구를 파괴하였으며 또한 쏘베트에 주권을 넘겨주었으며 지주 및 자본가로부터 생산도구및 생산수단을 탈취하였으며 그를 사회적 소유에로 전환시키였다。낡은 부르죠아적 세계를 과괴한 로씨야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건설에 돌어갔다。쏘베트국가의 모든 력사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회건설은 맹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었다。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경험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평화적으로 과도하는데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전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소탕해버렸다。

레닌과 쓰딸린은 폭력적 혁명의 대변혁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를 확립하기 불가능하며 프로레타리아트는 외국으로부터의 적을 방어하기위하여, 전복을당한 후에도 十배나 더한 반

항을 하는 착취계급을 진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리용하여야만 한다는것을 가르치었다。프로레타리아트는 반드시 농민계급과 전체근로대중을 사회주의건설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또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권을 리용하여야 한다。

쎄・쎄・쎄・르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는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가 없이 또한 부르죠아를 반대하여서 국가를 성공적으로 통치하여 나갈수있다는 것, 그는 부르죠아가 없이 또한 부르죠아를 반대하여서 산업을 성공적으로 건설할수있다는것, 그는 부르죠아가 없이 또한 부르죠아를 반대하여서 전인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지도하여 나갈수있다는것, 그는 자본주의적 포위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 것을 증시(證示)하여 주었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十一판 一七六—一七七페지)

공산당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는 볼쉐위끼의 풍부한 경험을 연구하여야 하며 로씨야 공산주의자의 전술을 자기것으로 만들어야한다。레닌은 볼쉐위끼적 전략및 전술의 가장 중요한 론제(論題)에 주의를 돌리었다。

레닌은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으로써 지도되는 볼쉐위끼당만이 로씨야혁명의 제계단에 있어서 투쟁의 전략적 임무 및 전술적 구호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당만이 이런 또는 저런 력사적 시기에 중요한 타격의 방향을 결정하며 혁명적 력량의 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자기의 예비군을 능숙하게 옴직이며 이런 당만이 자기의 전략적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투쟁할수 있다는것을 증시(證示)하여주었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레닌은 프로레타리아르의 혁명의 승리 및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증시(證示)하였다。볼쉐위크들의 력사적 경험은 비단 주권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뿐만아니라 주권을 보지(保持)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그를 견고히하며 확대시키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당이 필요하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공산당은 —레닌은 말하였다—만약에 그가 참으로 혁명적 계급의 선봉대라면 만약에 그가 그 혁명적 계급의 가장 우수한 대표자들을 자체에 망라하고 있다면 만일 그가 꾸준한 혁명적 투쟁의 경험으로써 단련되고 또한 훈련받은 충분히 자각한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들로써 구성되었다면 만약에 그 당이 자기계급의 모든 실제생활에 자체를 밀접하게 련결하며 또한 이 계급을 거쳐서 피착취대중 전체와 련결하며 이 계급및 이 대중의 충분한 신임을 받게되는 때만—오로지 이러한 당만이 자본주의의 모든 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무자비하고 결정적 최후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를 지도할수 있다는것이다。」(「레닌전집」 제二十五권 三一五페지)

레닌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전투적당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경험의 국제적 의의를 명확히 증시(證示)하였다。

볼쉐위끼당은 맑쓰주의적 리론의 튼튼한 초석위에 발생하였으며 성장하였으며 또는 단련되었기 때문에 주권을 위한 투쟁에로 프로레타리아트를 능히 동원할수 있었다。이것은 혁명적 정세의 복잡한 제조건 가운데서 옳은 평가를 할수있으며 또한 목적 관철의 도상에 가로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정복할수있는 충분한 굴신성(屈伸性)을 가지는 가능성을 그에게 부여하였다。

레닌은 「로씨야는 옳은 혁명적 리론으로서의 맑쓰주의를 반세기동안의 력사에서 참으로 일찌기 듣지못한 고초(苦楚)와 희생, 일찌기 보지못한 혁명적 용감성과 비길데없는 에네르기, 꺼리낌없는 탐색(探索)、수련(修練)과 실망, 검토및 구라파의 경험과 대조하는 실천에 의한 시험을 통하여 신고(辛苦)롭게 얻어내었다」라고 썼다。(「레닌전집」 제二十五권 一七五페지)

레닌은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의 거대한 역활을 천명하였으며 당은 만약에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기계급의 지도적 역활을 수행할수없다는것을 증시(證示)하였다。볼쉐위끼당이 만일에 리론의 연구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또 자기당원의 사상적—리론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지 않았다면 승리는 불가능하였을것이다。

볼쉐위끼당이 승리한 다른 조건의 하나는 그 대렬내의 강철같은 규률이였다。레닌은 한번뿐만 아니라 여러번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는 엄격한 규률과 조직성으로써 자기 수중에 주권을 쟁취할수 있으며 보지(保持)할수 있다고 력설(力說)하였다。

레닌은 「우리 당내에 가장 엄격한 참으로 강철같은 규률이 없이는 로동계급의 전 대중 즉 로동계급중에는 의식있고 성실하고 헌신적이요, 유력한 또 락후한 모든 층을 자기편으로 인도하며 또는 인입(引入)할 능력을 가진자들이 모두가 당에 대하여 가장 완전하게 헌신적으로 지지하여줌이 없이는 볼쉐위끼들이 二개년반은 고사하고 二개월반도 주권을 유지할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지금에는 누구나 다 거의 아는것이다」라고 썼다。(「레닌전집」 제二十五권 一七三페지)

볼쉐위끼당은 규률및 조직성의 화신(化身)으로 되었다。이것이 없이는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수백만대중의 정확한 지도자로서 나설수 없었으며 그

들을 혁명의 승리에로 인도할수 없었던 것이다。볼쉐위끼당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자기투쟁의 전력사 과정에 있어서 고귀한 규률및 조직성 그리고 인내성있는 근로정신을 수백만 대중속에 주입시키었으며 또 주입시키고있다。

당내의 강철같은 규률은 무엇으로써 유지되며 그는 무엇으로써 강화되며 검증(檢證)되는가? 그는 이렇게 유지된다고 레닌은 말하였다。

첫째로는 프로레타리아트 선봉대의 의식과 혁명에 대한 그의 충성과 그의 인내성과 자기희생성과 용감성으로써 되는것이다。

둘째로는 가장 광범한 근로대중과 제일차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대중과 또한 비프로레타리아트 근로대중과도 결합하며 접근할줄 아는것으로써 만일 더 원한다면 어느정도까지 융합(融合)할줄을 아는 것으로써 되는것이다。

셋째로는 광범한 대중이 그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확신하게되는 조건하에서 이 선봉대가 수행하는 정치적 지도의 정당성과 그 선봉대의 정치적 전략및 전술의 정당성으로써 되는것이다。(「레닌전집」제二十五권 一七四페지)

혁명적당을 위하여 강철같은 규률의 필요성을 력설(力說)하면서 레닌은 쓰기를 「누구든지 프로레타리아트당내의 강철같은 규률을 얼마만큼이라도 약하게 하는자는(특히 그의 독재시기에 있어서) 사실상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고 부르죠아지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레닌전집」二十五권一九〇페지)

볼쉐위즘의 모든 력사적 경험은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당이 그가 비판과 자기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의 활동의 오유와 결함을 속이지 않으며 당활동의 오유로부터 교훈을 얻어 인재를 교육하며 훈련하며 제때에 자기의 오유를 정정할줄 안다면 백전백승의 당으로 될수 있다라고 하였다。

「정당의 자기오유에 대한 태도는—레닌은 말하였다—그 당의 진실성에 관한 그리고 그 당이 자기의 계급과 근로대중에 대해서 걸머지는 임무의 실지 수행에 관한 가장 중요하며 가장 확실한 규준(規準)의 하나가된다。착오를 솔직히 인정하며 그 원인을 구명하며 오유를 일으킨 사정을 분석하며 오유를 정정할 수단을 연구하는 것—이것이 진실성 있는 당의 표지이며 당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며 이것이 계급의 그리고 또 대중에대한 교육과 훈련이 되는것이다」(「레닌전집」제二十五권 二〇〇페지) 레닌과 쓰딸린은 가르치기를 비판과 자아비판은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있는 힘으로되며 당의 공고 및 발전의 믿음성있는 방법으로되며 사회주의

의 력사적 임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않는 무기로된다 라고하였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레닌은 오직 모든 표리(表裏)있는 수정과 사회주의자 및 기회주의자들과의 타협할수 없는 투쟁 및 오직 기회주의의 오예(汚穢)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당의 청정(淸淨)만이 정치적 주권의 쟁취 및 사회주의 승리를 근로대중에게 보장해 줄수있다는것을 명시하였다。볼쉐위즘은 로동운동내부의 우익 및「좌익」기회주의를 반대하는—두개의 전선에 있어서 무자비한 투쟁에서 성장되었고 공고히 되었으며 또 단련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의 위대한 공훈은 로씨야 및 세계로동운동 대렬에서 기회주의와의 맹렬한 투쟁을 지도한데 있으며 그들이 참으로 기회주의와 부르죠아와 타협할수없는 혁명적 볼쉐위끼당 맑쓰주의적 당을 창조한데 있는것이다。레닌은 가르치기를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전투적 부대의 련결 및 공고의 위대한 사업은 부르죠아의 영향을 프로레타리아트에 전달하려는 자와의 확실한 분계 및 무자비한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하였다。(「레닌전집」제十七권 一九二페지)、

기회주의와의 볼쉐위끼의 투쟁을 총결산하면서 레닌은 자신만만하게 다음과 같이 썼다。「로씨야에서 볼쉐위크들에게 특히 행복스러운 일이었던것은 그들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위하여 직접 대중적으로 투쟁하기 오래전부터 멘쉐위끼(즉 기회주의자「중앙파」)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또는「좌익」을 반대하는 투쟁을 체계적으로 또한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十五년이란 세월을 가졌던 것이다。구라파와 아메리카에서는 역시 이 사업을「급행군(急行軍)」식으로 실행하여야 될것이다。」(「레닌전집」제二十五권 二四二페지)

레닌과 쓰딸린의 두개 전선에대한 타협할수없는 투쟁과 철두철미한 투쟁 즉 로씨야 및 세계 로동운동의 대렬에서「우익」및「좌익」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또는 멘쉐위끼와 에쓰·에르 뜨로쯔끼주의와 부하린과 및 다른 제국주의의 간첩(間諜)의 폭로 및 파멸은 국제 공산주의적 운동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이란 저서에서 레닌이 토로(吐露)한 천재적 사상은 다른 나라의 공산당으로 하여금 커다란 의의를 갖게하였다。그들은 로씨야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의 경험 및 혁명의 경험을 기초로하여 공산당 사업의 재조직을 촉진시켰다。혁명적 계급의 전위대로서의 당,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 형태로서의 당에관한 레닌의 명제는 오늘에 와서 참으로 현실

적으로 되었다。이 명제들은 자기대렬의 확고부동하게 강화할것을 고려하고있는 전세계의 공산당을 고무시키고있다。

지금 많은 공산당의 당원수가 현저하게 장성하였으며 일방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당과 공산당의 합동이 실현되고있는때 자기의 설지적 사업에 있어서 그를 령도하며 또한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을 반드시 소유하여야할 당에대한 또한 혁명적 리론의 역활에대한 레닌의 교시(敎示)들은 특별히 현실적으로 되었다。우익 및「좌익」기회주의는 외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중대한 위기에 빠지도록 계속 노력하고있다。기회주의와의 투쟁은—그의 전투적 임무는 전세계 공산당을 원조하는 불쉐위끼의 투쟁 경험이 해결한다。

불쉐위끼당의 력사는 자기의 대렬내에서 기회주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없이는, 자기 대렬내에서의 투항주의자들을 섬멸함이 없이는 당은 자기 대렬내의 단결과 규률을 보전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조직자이며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역활을 다할수없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자로서의 자기의 역활을 수행할수없다는것을 가르친다。불쉐위끼당의 거대한 경험은 자기 대렬의 통일을 위하여 또는 통일을 위한 투쟁속에서 전세계의 공산당을 위하여 풍부한 교훈을 준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독재, 계급문제 및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근본적 문제를 론술하였다。

레닌은 가르치기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계급투쟁의 종결인것이 아니라 새형태로서의 그의 계속이다 라고하였다。「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레닌은 말하였다—보다더 강한 적(敵)즉 그 적의 반항은 그가 전복됨으로 말미암아(비록 한나라에 있어서라도)十배나 더하여지고 그리고 그의 세력은 다만 국제적 자본의 위력과 부르죠아의 국제적 련결의 력량과 견고성에만이 아니라 관습(慣習)의 위력 및 소규모적 생산의 위력에도 있는 부르죠아를 반대하는 새 계급의 가장·격렬한 가장 용서없는 전쟁이다。」(「레닌전집」제二十五권一七三페지) 레닌과 쓰딸린은 가르치기를 소상품경영은 꾸준히 매일 매시간마다 자연생장적으로 대중적 규모로써 자본주의와 부르죠아를 산출하는 까닭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는 계급투쟁은 소멸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첨예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레닌은 력설하기를 부르죠아에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영구하고도 꾸준한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그러므로 이 투쟁은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당으로부터 인내성 규률성 견인성 불굴성 및 의지의 통일을 요구한다。『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레닌은 썼다—낡은 사회의 위력 및 전통을 반대하는 류혈적(流血的)또는 비류혈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의 강력한 투쟁이다。수백만 또는 수천만 대중의 관습의 위력은 가장 무서운 위력이다。투쟁속에서 단련된 강철같은 당이 없이는, 그 계급의 모든 진실한 자들의 신임을 받는 당이 없이는, 대중의 지향(志向)을 살피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줄아는 당이 없이는 이러한 투쟁을 성과있게 수행할수 없는것이다。」(『레닌전집』제二十五권一九〇페지)

레닌과 쓰딸린은 끝까지 유일하고 철저한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전근로자 및 피압박자의 지도자이며 수령이라는 것을 한번뿐만 아니라, 수차 력설하였다。「피압박 계급들의 모든 운동 및 모든 혁명의 경험과 전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은—레닌은 말하였다—오직 프로레타리아트만이 분산되고 락후한 근로자 및 피착취 인민층을 련합시키며 또한 그들을 끌고 나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레닌전집』제二十四권一四페지)

레닌은 강조하기를 아직 계급으로서의 부농이 남아 있는 까닭으로 지주 및 자본가들의 근절은 전체 착취계급의 근절을 의미함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였다。구축(驅逐)할수도 없으며 진압할수도 없으며 참으로 계속적이고 꾸준하고 심중한 조직사업에 의하여 개조하며 재교육할 필요가있는 많은 수효의 소상품 생산자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농촌경리에 있어서는 아직 자본주의의 뿌리들이 남아있는 것이다。근로 농민계급과 전근로대중들을,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 인입(引入)하여야한다。이것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임무중의 하나이다。

정권을 쟁취한후 제기된 가장 곤난한 이 임무를 당은 자본주의가 산출한 개인경제의 소소유적 농민경제의 길로부터 농촌경리의 집단화방법으로 사회적, 끌호즈적, 사회주의적 길로 이행하는 방법으로써 빛나게 해결하였다。

사회주의적건설에 대한 불쉐위즘의 풍부한 경험은 인민 민주주의국가의 공산당을 위하여 특수한 의의를 가졌다。맑쓰—레닌주의는 가르치기를 모든 민족들은 똑같이 또는 같은 방법으로써는 사회주의에로 넘어갈수는없다고하였다。민주형태에 있어서와 사회적 생활의 각종 령역의 사회주의적 개혁

의 속도에 있어서의 특징으로써 규정될수있다。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발전의 일반적 제합법칙성이 발전을 정지시킨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인민민주주의 국가의 매개국가가 자기 독단적 방법으로써 사회주의로 넘어가며 특별히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불가리야 유고슬라비야 기타등등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특별한 길이 있다는것을 단언하는것은 전혀 옳지못하다。이러한 견해는 불쉬위즘의 경험의 국제적 의의를 거부하는것이다。레닌과 쓰딸린은 가르치기를 불쉬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경험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것은 전세계를 위한 공통한 의무적 합법칙성을 가지는것을 확인한다고 하였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는 다만 엄격한·계급투쟁에 있어서와 다만 착취계급의 폭력적 분쇄와 그의 반항의 진압의 결과에 있어서와 다만 낡은 사회적 관계의 결정적 파괴및 새 사회주의적 관계의 창조의 방법에 의하여서와 다만 낡은 국가 정권기구의 파괴 및 새국가 정권기구의 창조 대규모적 공업 은행 철도운수 및 다른 경제의 지도부의 국유화 방법에 의하여서와 다만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전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방법에 의하여서만이 성공적으로 진행할수있다。사회주의에로의 성공적 전진은 다만 로동계급이 사회의 국가적 지도를 수행하는 그때라야만 가능하다。쏘베트국가에서 이 모든것은 빛나게 진행되었다。그러므로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여러국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진행되며 또 진행되고야 말것이다。

정치적 및 경제적 정책에 있어서와 차이는 다만 형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본질—자본주의 청산 및 사회주의 확립에도 있는 것이다。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리론과 실천의 망각은 맑쓰—레닌주의의 과괴에로 또한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진영에의 타락에로 불가피적으로 인도하는것이다。이 실례로는 쩌또의 민족주의적 구루빠적 정책 및 실천이다。맑쓰—레닌주의의 원칙으로부터 리탈한 그는 그의 내부적 적의 대표자들 앞에서 유고슬라비야의 근로자들을 무장해제의 길로 또한 민족주의의 길로 이끌고있다。쩌또의 그루빠는 유고슬라비야 공화국의 기본은 농민들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국가지도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핵심적 역할을 부인하고 있다。이 기회주의적 그루빠는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에 있어서의 평화와 유일「민족적」전선에 있어서 착취자와 피착취자들의「련합」을 설교하며 계급투쟁이 없이 사회주의의 건설의 가능성、사회주의에 착취자들의 평화적 생존의 가능성에 관하여 허위설교를 진행하고 있다。이 궁정(肯定)들은 맑쓰—레닌주의와는 아무러한 공통성을 가지지 못하며 또한 쩌또 그루빠의 민족

주의적 인민과적 부농적 당의 진영으로 변화하는 것을 증명한다。

× × ×

「공산수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이란 저서에서 레닌은 대중의 장악에 대하여서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지도에대한 불쉬위끼당 전술의 특수성을 보여주었다。독일 및 영국에 있어서의「좌익」공산수의자들은 종파적 정책을 수행하면서 합법적 및 비합법적 투쟁형태의 배합과 투쟁의 각종형태를 습득하는것이 공산당에게 있어서 의의 있다는것을 리해하지못하였다。그들은 직업동맹에 있어서의 공산수의자들의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 관계를 가졌으며 부르죠아국회에 참가하는 필요성을 경시하였다。

불쉬위끼전술의 특성중의 하나는 그들은 꾸준히 대중과의 련합을 확대하며 공고히하며 대중의 정치적 활동성을 제고시키며 그들을 자기 적에 대한 타협할수없는 정신으로써 교양하며 대중을 가르쳐며 그들께서 배운나는데 있다。

「선봉 하나만 가지고서는 승리할수없는것이다。아적전계급이 아직 광범한 대중이 선봉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들이 선봉에 대하여 호의적 중립을 지키며 진지에 나서지 않는때에 다만 선봉하나만을 결정적 전투에 내세우는 것은 미련한 일일뿐아니라 또한 범죄(犯罪)일것이다。그런데 참으로 전계급을 근로자들과 또는 자본의 압박을 받는 참으로 광범한 대중을 이러한 진영에 나서게 하기위하여서는 이것을 위하여서는 한갖 선전 한갖 선동만으로써는 불충분한것이다。이것을 하기위하여서는 그 대중 자체의 정치적 체험이 필요한것이다。이러한것이 위대한 혁명의 모든 기본적 법칙인것이다」(「레닌전집」 제二十五권二二八페지)

레닌은 지시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대중이 있는곳에서 사업을 하여야한다고 하였다。「아무리 반동적인 기관、단체、조직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프로레타리아트적 또한、반(半)프로레타리아트적 대중이 있기만하면 그곳에서 꾸준히、완강히、기운있게、인내성있게 선전하며 선동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거대한 난관을 극복할줄 알아야 하는것이다」(「레닌전집」 제二十五권 一九六—一九七페지)

직업동맹은 당을 근로대중과 결속시키는 도구이며 당의 지도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실현하는 도구인 인전대(引傳帶)중의 하나이다。레닌은 반동적 직업동맹 및 그「결백(潔白)한」직업동맹의 창조로부터의 출발에 관한「좌익」공산주의자들의 구호에 대한 반맑쓰주의적 본질을 폭로하였다。레닌은 공산당들은 직업동맹의「반동」을 무서워하

제말며 또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적업동맹에서 사업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시하였으며 이리함으로써 그의 지도하에 자기 영향을 집중시키며 대중의 정치적 교양의 학교로 또한 공산주의의 학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것을 호소하였다。

이 레닌주의적 지시를 발전시키면서 一九二五년에 쓰딸린동지는 력설하기를 만약에 공산당들이 혁명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질로 능력있는 대중적 힘으로 되는것을 원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직업동맹의 선두에 서야하며 그를 대중의 정치적 교양학교로 전환시켜야만 한다고 하였다。「……당시 서구(西歐)공산당의 기본적 임무는—쓰딸린동지는 썼다—직업동맹 운동의 통일에 관한 투쟁을 전개시키며 끝까지 끌고나가며 전체 공산주의자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직업동맹에 들어가게하며 거기에서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단결사업에 대한 계통적 인내성있는 공작을 진행하며 또 이리함으로써 공산당들이 직업동맹에 립각할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에 있다」(「레닌전집」제七권 一〇六폐지)

레닌과 쓰딸린은 직업동맹을 당으로부터 대중에로 향하게하는 가장 중요한 인전대로 또는 공산주의의 학교로서 주시(注視)하였다。만약에 그가 사업으로부터 직업동맹과의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다면 볼쉐위끼당은 프로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지도자로써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이란 자기 저서에서 레닌은 정권쟁취 전후에 있어서의 직업동맹과의 관계에대한 볼쉐위끼적 전술의 기본적 명제를 보편화시키었다。이 보편화는 지금 직업동맹 일반맹원대중을 쟁취하는 일상적이며 또는 군센사업으로서나 직업동맹의 사상적및 정치적 지도를 달성하게 노력하는것과 직업동맹 내부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사업과 군센 사업을 진행한계하는 필요성앞에 나선 전세계 공산당들에게 거대한 지도적 의의를 가지게한다。

대중지도의 볼쉐위끼적 전술의 특정중의 하나는 볼쉐위크들이 가지고있는 그의 경험과 볼쉐위끼적 구호의 정당성에 있어서 대중을 확신시키는데에 있다。레닌은 대중의 의견과 지향(志向)을 고려할줄 모르며 또 원하지않는「좌익」공산주의자들의 의회정치관계를 엄격히 비판하였다。의회정치는 자기를 다살았다고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레닌은 물었다。그리고 대답하기를 물론 정당하다。그러나 다만 전세계적—력사적 의의에 있어서만이 그렇다。그러므로 부르조아적 의회정치의 세대는 十월혁명시기트부터 끝났으며 새새대—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제대가 돌아왔다。로씨야에 있어서의 쏘베트정권은 부르죠아적 의회정치에 력사적 판결을 주었으며 또한 이

견지에서 부르죠아적 의회정치는 력사적으로 제외되었다。그러나 이 실천적 실현이 있기전까지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대중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아직 오늘의 부르죠아적 의회정치의 종국적 파괴에대한 필요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부르조아적 의회정치는 다만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력사적으로 근절되고 있었지만 아직 대중의 의식속에서는 근절되지 못하였다。

의회내외에서의 투쟁방법의 리용에대한 볼쉐위끼적 전술의 정형을 명시하면서 레닌은 부르죠아적 망상(妄想)을 근절하는데 인민대중을 어떻게 원조하여야단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긴요성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있는 정치적 경험을 어떻게 확인시키는가를 공산당들에게 가르쳐주었다。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계급투쟁의 모든 형태를 소유하여야하며 또한 항상 한형태로부터 다른형태로의 극히 민속하고 불의적인 교체를 준비하여야만 한다는 사상을 전개하였다。그들은 반드시 의회내적 및 의회외적 합법적 및 비합법적 투쟁형태를 련합시킬줄 알아야만한다。

레닌은 혁명적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의 융통성、적(敵)진영에 있는 모든 모순을 혁명의 리해관계에 리용하는 능숙과 또한 동맹자들을 끌어오는 능숙을 가르쳤다。「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이란 저서에서 레닌은 타협에대한 볼쉐위끼당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무엇이 있든간에 타협을 거절하려는「좌익」을 비판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즉「국가와 국가사이의 보통 전쟁중에 가장 격렬한 전쟁보다 백배나 더 곤난하고 장구하고 복잡한 전쟁인 국제부르죠아지를 전복하기위한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조종을 할것과 적들사이의 리해상 모순을 리용(비록 일시적 리용일찌라도)할것과 가능한 동맹자들(비록일시적이요、튼튼치 못한 불안정한 조건하의 동맹자일찌라도)과 협의하며 타협할 것을 미리부터 거부하는것—이것이야말로 한없이 가소(可笑)로운 얼이아닐까?」(「레닌전집」제二十五권二一〇폐지)

전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독단론과 낡아빠진 형식주의로부터 경계시키면서 레닌은 당의 정책에 있어서 고정적인 방책(方策)은 있을수없다는것을 교시(敎示)하였다。볼쉐위크들은 첫째로 계급투쟁 절개의 리익에서부터 출발하며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둘째로 당의 행동과 렴시적 동행자의 그 착오의 비판을 구속하지 아니하며、셋째로 로동계급을 다수쟁취할것을 보장하며 당의 전여을 공고화하며、넷째로 당의 사상적 양보의 국산을 위하여 나가지않는 이러한 타협의 찬동자로써 출현하였다。레닌은 력설하기를 모든 타협들이 종

종 있으며 이런 또는 저런 타협을 포함한 구체적 조건과 정형을 분석할줄 알아야한다」라고하였다。공산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리해관계에서 체결한 타협을 기회주의와 내통주의를 표현하는 타협으로부터 엄격히 구별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레닌은 요구하였다。볼쉐위끼당 력사중의 실례로써 레닌은 사회주의의 적(敵) 진영에 있어서 모순을 어떻게 리용하여야하며 프로레타리아트편에 동맹자를 어떻게 끌어들여야만 하는가를 보여주었다。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기보다 더 강한 적을 승리하는것은 오직 최대한 노력을 다함으로써만 될수있는 것이요, 그리고 적들사이에 있는 비록 사소한것일찌라도 온갖 알륵과 여러나라의 부르죠아지사이와 각개국내의 부르죠아지의 상이(相異)한 그루빠 및 종류사이에서 생기는 비록 사소한것일찌라도, 그 온갖 리해관계의 대립과 또 림시적이며 동요하는 불견고한 믿음직 못할 조건일찌라도, 대중적 동맹자를 얻을수있는 비록 사소한것일찌라도, 온갖 가능성을 다 반드시 가장 주밀하게 가장 용의주도하게 가장 신중하게 가장 능난하게 리용함으로써만 될수있는것이다。이것을 모른다면 그는 맑쓰주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학적 현대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조금치도 리해하지 못하는 자이다」(「레닌전집」제二十五권 二一〇페지)

타협의 원칙적 허용성을 확인하면서 볼쉐위끼당은 항상 과거와 현재를 물론하고 사상적 타협에로 나가지 않았으며 또한 나갈수 없었다。볼쉐위크들은 항상 누구앞에서라도 맑쓰—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다。

× × ×

현대의 력사 특히 위대한 十월사회주의혁명 시기로부터의 모든 발전은 오직 맑쓰—레닌주의학설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를 위한 리상이며 오직 볼쉐위즘이 프로레타리아트와 피압박대중에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 구출될수있는 길을 지시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사상들은 인민대중의 의식속 깊이 침투되고있다。공산주의는 아무 거침없이 자기의 진로를 전진하고있다。「공산주의는—레닌은 썼다—참으로 사회생활의 각방면으로부터 생장하며 그의 맹아(萌芽)는 어디든지 반드시 있는것이요,「전염(傳染)」(부르죠아지와 부르죠아경찰놈이 탐내어 사용하는 그들에게 가장「유쾌스러운」비유를 그대로 쓴다면)은 심체 내부에 매우 뿌리박아 침입해 들어가서 전신체를 전체로 휩싸버리고있다。설혹 특별한 주의로써 침입하는 한 구멍을「막아」놓는다 하더라도—「전염」은 예기도 하지않았던 다른구멍으로 찾아들어가는 것이다。

생명은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것이다。」(「레닌전집」二十五권 二三五페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레닌은 자본주의의 파멸과 공산주의 승리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자본주의체계는 벌써 자기를 흡진(吸盡)하였으며 자기세대를 끝마치고있다。十월혁명을 승리한후 세계는 새것으로 되었다。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는 볼쉐위즘을 반대하여 뢰성(雷聲)과 뢰광을 방사하며 성장하는 공산주의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갈망하고있다。그러나 레닌이 명시한바와같이 공산주의를 질식시키지못한다。부르죠아지가 갈광질광하며 정신이 빠지도록 발악하며 지내떠들며 어리석은 짓을 하여 볼쉐위끼들에게 대하여 미리 복수하느라고 수백, 수천, 수만의 내일의 볼쉐위끼들과 어저께의 볼쉐위끼들을 살륙하기에 힘쓰라고하라—부르죠아지는 그렇게 하면서 력사상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은 모든 계급들이 행동하던바와같이 행동하고 있는것이다。공산주의자들은 어떻든지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것임을 알아야한다。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혁명적 투쟁에대한 위대한 열정을 미쳐 날뛰는 부르죠아지의 광포에 가장 랭혹하게 가장 랭정하게 타산하는것과 결합할수 있는것이다。(또한 결합하여야 할것이다)」(「레닌전집」二十五권 二三五페지)

여러나라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는 선동과 류혈적방법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을 분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령도자를 없새려고 시도하고 있다는것은 주지하는 바이다。그러나 아무 거침없이 공산주의는 전세계 각국내에서 단련되며 성장되며 그의 뿌리는 근로대중의 의식속 깊이 침투되었으며 추격들을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강화시킨다。전세계 공산당의 숫자적 성원과 권위의 거대한 성장은 이것을 증명한다。외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 수는 현하 一천五백만이상에 달하고있다。공산당의 숫자적 성원의 장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실례가 말하여 준다。즉 체코슬로바키야에 있어서는 제二차세계대전전까지는 八만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백三십五만명(인민—사회당과의 합동)이며 이태리에 있어서는 一만五천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二백二십八만三천명이며 중국에 있어서는 약 六십만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二백七십만명이다。공산주의자들은 전민주의적 력량과 반제국주의적 력량의 선두에 서있다。현하 공산주의는 현실적 력량과 또한 장성되어가는 력량으로된다。브·므·몰로또브는「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모든 길이 공산주의로 향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쎄·쎄·쎄·르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평화적 위

력이 호르는 중심지로 되였다。 제二차세계대전의 총결산에서 전세계 정치지도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정세 및 독립적 국가의 상태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정치적 력량의 새로운 배치를 창조하였다。 만약에 제一차세계대전결과에 우리나라가 一九一七년十월에 로씨야에서 자본주의체계로부터 제국주의전선을 파렬시키었다면 제二차세계대전의 결과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체를 확립하는 중앙 및 동남구라파의 많은 제국가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전선이 파멸되었던것이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가일층 강화되었다。

二개의 기본적 진영이 편성되었는바 즉 이는 북미합중국을 선두로하는 제국주의적 또한 반민주주의적 진영과 쏘・써・쎄・르를 선두로한 반제국주의적 또한 민주주의적 진영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자본주의 위력의 약화 및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계속적으로 첨예화되어가는 환경속에서 공산당앞에는 새로운 임무들이 제기되였다。

× × ×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이란 레닌의 저서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있다。 이는 맑쓰주의의 전체 보물창고와 그의 혁명적 병기창고에의 고귀한 공헌으로된다。

이 저서에서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계급투쟁의 혁명적・지침의 법칙들을 창조하였으며 국제적 공산주의 운동의 긴급한 임무들을 밝히였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공산당의 투쟁진로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혁명의 기본적 법칙의・본질과 볼쉐위끼원칙의 본질을 해명하였다。 저서는 맑쓰주의적 전략 및 전술문제에대한・볼쉐위즘의 많은 재능의 경험을 보편화한 천재적 로작으로써 현대적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모든 자기의 현실적 의의를 보전하고있다。 만국의 공산주의자들은 현대적 로동운동의 가장 긴요한 문제에 대한 지침적 지시들을 레닌의 저서에서 찾았다。

프로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령도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전략 및 전술의 기본적 문제들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이란 저서에서 레닌에 의하여 탐구되었으며 바로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전략 및 전술에 관하여」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략 및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 「十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 및 기타 다른 이러한 저명한 로작으로 쓰딸린에 의하여 더 발전되었다。 프로레타리아트계급투쟁의 전략 및 전술문제에대한 레닌과 쓰딸린의 위대한 리론들은 과학적 공산주의의 진리의 최고전당으로 들어갔으며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그의 투쟁에서 전공산당을 위한 생기있는 지침의 원천으로된다。

(「몰로도이볼쉐위끼」 一九四八년十五호)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十八)

우경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쏘련볼쉐위끼공산당

선 엽

쏘련볼쉐위끼공산당의 력사는 맑쓰―레닌주의의 순수성과 사회주의적 혁명을 지도하고 방향을 지어주는 력량으로서의 당의 통일의 보존과 공고화를 위한 당의 철두철미한 투쟁에 대한 교훈적인 례를 많이 주고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언제나、 지적하기를 로동계급의 당은 기회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없이는、 자체대렬내의 투항자를 분쇄함이 없이는 자기대렬에서 단일한 조직과 규률을 보장할수 없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조직자―지도자로서의 역활、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자로서의 역활을 수행할수 없다고 하였다。 볼쉐위끼당의 내부생활의 발전―이는 당내의 기회주의적 그루빠 즉 「경제주의자」、 멘쉐위끼、 뜨로쯔끼스뜨、 부하린파、 민족주의편향자들에 대한 투쟁과 분쇄의 력사이다。

쏘련내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여 당내에서 싸운 기회주의적 투항자의 그루빠의 하나는 부하린―뤼꼬브의 반당 구루빠였었다。 부농분자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반레닌적 투항자 그루빠의 사상적 분쇄와 조직적 고립화는 국내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에 과한 레닌―쓰딸린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며 쏘련내의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이었다。

쏘련과같은 거대한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란 것은 대단히 곤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볼쉐위끼당은 아주 짧은 기간내에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미 一九二七년 제十五차당대회에서 쓰딸린은 쏘련의 공업화부면에 있어서의 거대한 재성과를 지적하였고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지도적

렵장을 앞으로 확대하고 공고화할 필요성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었던 농업의 락후성은 사회주의적 공업의 앞으로의 발전을 제약(制約)할 위협을 주고있었다。 이것은 산업과 농업이 각각다른 경제적 기초위에 립각하고 있었다는것으로써 설명되었었다。 즉 산업에 있어서는 이미 그 당시에 사회주의적 생산방법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농업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락후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던 소상품적 개인농업이 아직 우세하였었다。

볼쉐위끼당은 쏘베트국가가 사회주의적 산업과 개인농업생산이라는 각이한 두개의 경제원칙에 립각할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보고 있었다。 과업은 분산된 소규모의 농촌경제를 사회주의적 대규모생산의 궤도로 옮기는데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부농분자는 쏘베트정부의 재정책에 더욱더 대립하기 시작하였고 꼴호즈에 합동되려는 빈농—중농층의 지향을 각방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부농은 적지 않게 저장해 두었던 잉여곡물을 쏘베트국가에 판매할것을 대중적으로 거부하게되었다。 그들은 꼴호즈의 성원과 농촌의 당과 쏘베트의 일군에 대해서 테로를 감행하게되고 꼴호즈와 국가의 곡물수집소에 방화까지하게 되었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당출판사판 五〇八페지)

쏘련볼쉐위끼공산당 제十五차대회에서는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에 지도되고 쓰딸린의 지시를 실현하면서 농업집단화를 각방으로 전개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볼쉐위크들의 당은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로동계급은 농촌의 빈농층에 립각하여 중농과의 동맹관계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농촌의 부농층에 대한 광범한 공격을 전개하였다。

一九二八년 국내의 계급투쟁이 첨예화된 사태속에서 부하린—리꾜브의 반당그루빠—부하린、리꾜브、똠스끼를 수반으로하는 자본주의 복구자들은 진출하게되었다。 그들은 부농층을 로골적으로 옹호하여 나섰고 그들은 곡물수매시기에 있어서 부농을 반대하여 당과 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비상대책의 페지를 요구하였다。 우경 투항자들은 꼴호즈를 반대하고 쏩호즈건설을 반대하여 진출하였다。 그들은 쏘베트국가가 이 건설에 지출하는 자금은 「바람에 흩어질」 것이란것과 사적 개인농업이 국가에 곡물을 보장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도하였다。 우경기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의 소멸이라는 자기들의 낡은 부하린적 「리론」 즉 부농이 사회주의로 평화적인 변생을 한다는 「리론」을 표면에 끌어내었다。

당의 원쑤들이 증명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급투쟁은 더욱더 완화되고 소멸될것이고 계급적 원쑤는 사회주의에게 자기의 진지를 투쟁없이 자발적으로 넘겨주고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변생」하리란 것이었다。

바로 그것으로써 투항자—부하린과들은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관하여서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학설과 최종적으로 결별(訣別)하였다。

우경기회주의자들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꼴호즈와 쏩호즈의 건설을 반대하여 나서며 「사유재산에 기초하고 항상 매일 매시간 자연발생적으로 대중적규모에서 자본주의와 부르죠아지를」(레닌전집 제二十五권 一七三페지) 발생시키는 개인농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싸웠다。 부하린—리꾜브의 반당그루빠는 농민은 동종(同種)의 사회계급이 아니고 빈농 중농 부농이란 각종 사회그루빠로 구성되고 있다는 레닌의 명제를 수정하였다。 기회주의자들은 농민의 이 그루빠들간의 사회적 구별을 무시하였고 그것으로써 농촌의 근로자들과의 로동계급의 동맹을 파탄하는데로 사태를 진전시켰다。

레닌과 쓰딸린은 루차 강조하기를 당은 지도적 역활이 로동계급에 속하여 있고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반대하는 방향을 가진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결성강화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 계급 근절의 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경 투항자들은 로동자 농민의 동맹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역활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책」을 론증하기 위하여 농촌발전에 있어서의 「자연 발생운동」이란 반동리론을 가지고 나섰다。 그들이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던것은 만일 예전에 자본주의의 제조건하에서 농촌이 자연발생운동에 의하여 도시의 뒤를 따라갔다고 하면 사회주의의 제조건하에서는 농촌의 소규모의 개인농들은 「자연 발생운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도시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당과 쏘베트국가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하여 배려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였다。 즉 농촌은 자체가 도시의 뒤를 따라 사회주의에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쓰딸린은 레닌주의를 반대하는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이 적대적 공격을 폭로하면서 지적하기를 예전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농촌이 자연발생운동에 의하여 도시의 뒤를 따라갈수 있었던 것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기초가 다같이 생산도구와 수단에 대한 사유였던 까닭이라고 하였다。 쓰딸린은 말하기를 그러나 쏘베트조건하에서는 이런 발

전은 불가능한바 그 리유는 도시의 경제적 기초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이고 농촌에서는(집단화 이전에는) 농민의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촌이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로 갈수있는 것은 다만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적 생산방법의 보지자(保持者)이고 사회주의적 도시가 근로농민의 경제를 사회주의적 템포로 개건하는데 있어서 그들에게 열성적이고 전면적인 원조를 준다는 한가지 필수적 조건밑에서만이다。 불쉐위끼당은 바로 이 길위에 올라섰으며 근로농민에 대한 전면적인 원조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쏘련농촌의 사회주의적 개편의 경험을, 통하여서 레닌—쓰딸린당의 정책이야말로 유일하게 옳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위에 지적된바와 같이 우경분자들은 쏘련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대한 열렬한 반대자로 나섰다。 一九二七—一九二八년에 당은 농업발전에 있어서의 곤난성과 사회주의적 산업발전 템포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에 직면하였다。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급속화하고 그것으로써 농업의 락후성을 청산하기위하여 불쉐위끼당은 사회주의적 공업의 발전 템포를 급속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 길로서만이 농민경제의 집단화와 대규모적 끌호즈의 농업생산의 기술적 장비에 있어서 최대한의 원조를 농촌에 보장할수 있었던 것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가이 썼다。「농업개혁의 열쇠로 되는것은 우리공업발전의 급속한 템포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十一판 二四三폐지)

쓰딸린의 주창에 의하여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혀과 사회주의적 국가측으로 부터의 농민에 대한 원조의 제공의 근간(根幹)이었던 농기뜨락또르 지정소들이 전설되었다。

부하린—리꼬브파의 투항자들은 당이 사회주의적 공업 특히 공업부문의 발전의 급속한 템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이런「정책」은 농업의 집단화를 파탄시켰는바 그 리유는 중공업 없이는 도시는 근대적 농업기술을 농촌에 공급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복구자들의「정책」은 쏘베트나라가 장기간 경제적으로 약하고 기술적으로 락후하고 공업적으로 발달된 자본주의 제국가에 의존한 나라로 남아 있도록 하는것이었다。 자본주의제국의 포위속에 있는 사회주의국가의 방위력은 훼손될번하였다。 쏘베트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단기간내에 실현한 레닌—쓰딸린당이 얼마만큼、예견(豫見)적이었던가는 력사가 보여준바이다。 파시스트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쏘베트국가는 강하고 간지(奸智)있는 원쑤의

완전한 분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무력에 보장하였던 것이다。

계급투쟁이 첨예화되었던 一九二八—三〇년의 정세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비단 농촌에서 뿐만아니라 도시에서도 쏘베트정권을 훼손하려고 시도하였었다。 쏘련사회주의산업이 석탄생산 야금 및 기타 부면에 있어서의 부르죠아적 기술자들의 해독적(害毒的) 파괴사업은 바로 이 목적들을 추궁하는 것이었다。 조사자료가 보여준바에 의하면 산업의 해독자들은「기업의 전(前) 소유자인 로씨야및 외국자본가와 외국 군사간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산업의 성장을 조지시키고 쏘련에 있어 자본주의의 재흥을 용이케 할것을 목적으로하였다。 해독자들은 석탄의 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탄항채굴을 부정당하게 수행하였다。 그들은 기계와 통풍기를 파손하고 광산을 파괴하려고 항내、공장、발전소의 폭발 방화를 조직하였다。 해독자들은 로동자의 물질적 생활상태의 개선을 고의로 방해하고 로동보호에 관한 쏘베트법률을 고의로 위반하였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당출판사판 五〇九폐지)

볼쉐위끼들의 당은 이 사실들을 폭로하는데 관련하여 로동계급출신으로부터 새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광범한 계획을 작성하였고 로동계급과 로동계급의 당 및 직맹 조직체에 대하여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시킬것을 호소하였다。 우경 기회주의자들은 당시 로동계급출신의 새 간부들을 양성하는 방향을 가진 당정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은 직맹사업의 재건의 필요성을 부정하였고 국가기구 및 직맹기구내의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을 반대하여 나섰고、부르죠아적 요소와 부패한 요소들을 동기구에서 숙청하는 것을 파탄시키려고 지향하였다。

사회주의적 사회를 지도하고 방향지어주는 력량으로서의 당자체를 공고화하고 당에 잠입하고 관료주의화한 요소를 당에서 숙청할 목적에서 중앙위원회는 프로레타리아당은「기회주의적 요소들을 자체에서 숙청하는 것으로써 공고화된다」는 유명한 레닌의 지시로부터 출발하여 당대렬의 숙청을 실시하려고 결정하였다。 우경 기회주의자들은 이 중요한 대책들에 대하여서도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은 확언하기를 숙청의 결과로 당의 청원이 감소되고 이것은 당의 지도적 역할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학설」에 의하면 만일 당이 자기 대렬내에 적대적 요소들을 남겨두면 당은 보다 강하고 보다 사업능력이 있게될 것이고 사회주의적 건설 사업을 보다 훌륭하게 지도할수 있게된다는 쉠이었다。 당은 당내의 적대적 요소들의 옹호자들인 기회주의자들을 폭로하고 숙청하였

다。 이것은 당대렬을 한량없이 공고화하였고 맑쓰—레닌주의의 백전백승의 기빨의 주위에 더한층 공산당원들을 결속시켰다。

당과 일체 로동자 조직체의 공고화와 사회주의적 건설에 대한 지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졌던 것은 당이 전개한 비판과 자기비판이었었다。 볼쉐위끼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각방으로 전개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진척시킬수도 없었고 부르죠아적 해독분자들의 일체기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할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당은 이 강력한 무기를,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로 근로대중을 더한층 광범하게 끌어넣고 사업상의 결점과 과오들을 적발하고 제때에 제거할수 있었다。

우경기회주의자들은 당시 다음과 같은 맑쓰—레닌주의의 유명한 명제 즉 「만일 당이 비판과 자기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이 자기활동의 오유와 결함을 겉발림으로 속여 넘기지 않는다면, 만일 당활동의 오유로부터 교훈을 얻어 인재를 교육하며 훈련한다면, 만일 당이 제때에 자기의 오유를 정정할줄 안다면, 당은 불패의 것이 된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당출판사판 六二八페지) 당은 우경투항자들의 이 란동적 공격도 폭로격퇴하였다。

아는바와같이 비판과 자기비판은 낡은 잔재를 극복하는 수단이며 전진운동의 조건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사회주의적사회의 위대한 추진력이다。 공산당은 비판과 자기비판에 의하여 쏘베트인간들에게 새로운 감정과 자기안도와 교만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교양하였고 또한 교양하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제문제에 있어서도 우경분자들은 투항주의적 견지를 취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세력을 과대평가하였고 계급투쟁의 첨예화와 자본주의의 잠정적 안전을 동요시켰던 자본주의 자체모순의 장성과 첨예화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본주의 제국내의 프로레타리아운동의 력량과 앙양되는 혁명운동의 력량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켰고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간의 계급적 모순의 상용성을 지지하는 편에 서 있었다。 그들은 공산당 대렬내에 사회민주주의적 견해를 선전하였고 부석하였다。

위대한 쓰딸린에 의하여 지도되는 볼쉐위끼당은 우경기회주의자들의 부농적 본질을 제때에 식별하였고 자본주의의 복구자들로서의 그들을 분쇄하였다。 농업집단화의 결과로 우경기회주의자들의 사회적 지반이였던 부농층은 계급으로 보아 완전히 청산되었다。 그것으로써 쏘련을 반대하는 자기의 파괴사업에 있어서 부농층과 그들의 밀정층들인 부하린—뤼꼬브파의 투항주의자들에 의거하려고 시도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계획들이 파탄되었다。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편향을 제때에 분쇄함으로써 국내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성공적 실현과 농업의 집단화와 쏘련내의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을 보장하였다。

부하린—뤼꼬브파의 「편향분자들을」 폭로하고 쏘련내의 「우경」 및 「좌경」 자본주의복구자들을 최종적으로 분쇄하는데 있어서의 훌륭하고 결정적인 역할은 쓰딸린에게 속하고 있다。

一九二九년 중앙위원회의 四월총회에서 쓰딸린은 우경주의자들의 견해의 사상적 기초를 적발하였고 그들의 부농적 본질을 완전하게 밝혀주었다。 당은 이미 그 당시 당대렬에서 제명되였던 뜨로쯔끼파들과 우경주의자들이 합작한 리면공작을 폭로하였다。 당은 우경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 정책은 부하린 뤼꼬브 똠스끼 및 기타 인물들에 대하여 슬픈 결말이 알려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우경 투항자들은 자기들의 파괴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一九二九년十一월 당중앙위원회 총회는 당내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과는 상용되지 않는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견해의 선전을 인정하였다。 우경분자들의 두목들은 당시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것을 위선적으로 성명하였다。 그러나 훗날 판명된바와 같이 그들은 책략을 썼던것이다。 즉 그들은 당증을 수중에 보존하고 정치적 표리부동의 길위에 올라섰고 파괴사업을 계속하였다。 부하린파는 깊은 지하운동으로 물러가 뜨로쯔끼스뜨들과 당파 쏘베트인민의 기타 원쑤들과 물러관계에 들어섰다。 一九三七년에 쏘베트인민의 저주받은 원쑤들과 외국 부르죠아정보부의 밀정으로 변하고만 부하린—뜨로쯔끼 투항자들의 변절적 반혁명적 활약의 제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들 인민의 변절자와 반역자들에 대한 소송수속은 부하린파들과 뜨로쯔끼스뜨들은 레닌—쓰딸린당과 쏘베트국가의 파괴 쏘련국방의 파괴, 사회주의의 전과의 소멸, 국내에서의 자본주의 질서의 복구를 자기들의 목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쏘베트재판의 결정에 의하여 부하린—뜨로쯔끼의 반혁명 그루빠의 지도적 핵심은 유죄의 선언을 받았고, 또한 근절되었다。 쏘베트인민은 부하린—뜨로쯔끼도당의 분쇄를 찬동하였다。 一九二八년에 레닌—쓰딸린당의 정책과 쏘련내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여 나선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수치스러운 길은 이러하다。

우경을 반대하는 투쟁력사는 볼쉐위끼당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기간을 연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하고 인민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편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제국의 혁명적 맑쓰—레닌주의적 당들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건설에 있어서의 쏘련공산당의 막대한 경험, 로동계급을 지도하고 방향지어주는 력량으로서의 당자체와 근로자들의 국가의 건설과 공고화의 경험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형제적 제당의 성파적 투쟁을 한량없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국제보도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불란서 로동계급

지금으로부터 약 十八개월전에 불란서로동총련맹은 마—샬안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성명을 발표하였었다。

불란서근로자들은 벌써 그때에 미국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고안된 마—샬안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를 설정하기위한것이며 또한 쏘련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를 반대하는 제三차세계대전을 준비하기위한것임을 똑똑히 알았다。

이 十八개월동안에 불란서로동총련맹은 매 걸음마다 전쟁준비에 있어서의 새로운걸음을 의미하는 불란서정부의 시책들을 항상 폭로하였다。독일문제에대한、소위『구라파동맹』문제에대한、또는 북대서양조약에대한 정부의 결정들에 대하여 그러하였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독일의 운명은 一九四五년의 얄타 및 포츠탐협정에 의하여 규정되었다。얄타와 포츠탐에서는 나치스의 희생이되었던 모든 국가는 배상에대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이 결정되었다。불란서는 나치스 독일에 의하여 받은 손실에대한 배상을 독일 서부점령지대에서 적당히 물수하거나 또는 국외에있는 독일예금을 물수하는 방법으로 받을것으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란서는 이기간에 그가 응당 받아야할 배상 총액의 一%밖에는 받지못했다。더우기 미국당국은 불란서가 나치스독일에 점령되었을때 나치스독일도배들에 의하여 미국점령지대에 반출된 五만대의 기대(機台)를 불란서에 반환하는것을 거부하였다。

공적 인사들이 확인한바와같이 미국당국의 이 거부는 독일군수공업을 분쇄하지않으려는것이다。사실에있어서 문제는 미국자본가들과 서구라파 자본주의제국가의 충복들은 전쟁준비를 위하여 루—르의 공업잠재세력을 부흥시키려하고 있다는데 있었으며 또 현재도 그러한것이다。

얄타 및 포츠탐결정에 의하여 루—르는 반드시 쏘련 미국 영국 및 불란서의 공동관리하에 있어야한다。만일 불란서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고려할것같으면 그는 포츠탐협정의 실행을 요구하는 쏘련제의를 지지하여야할것이다。이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쏘련과 불란서는 四표중에서 二표를 가질수있을것이다。그러나 불란서 통치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六개국 런던협정에 의하여 쩡긴 위원회에 루—르의 순전히 불가능한『관리』를 위임하는데 찬성하였다。그런데 六개국 런던협정에 의하여 쩡긴 위원회에서 불란서는 전체 十五표중에서 단지 三표만을 가지는것이다。

이것이 있은 직후에 크레이 및 로—벨트손장군이 발표한 법령제七十五호는 불란서로하여금 독일공업잠재세력의 부흥을 통제할 모든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해버렸다。동시에 독일 대독점자본의 부흥 및 四대강국의 합의된 결정에 의한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서부독일에서의 강철생산등이 해결되었다。더우기 루—르공업은 사실에있어 히틀러가 지지하였으며 자금을 대준 전 나치스도배의 수중에 다시금 떨어지고있다。

불란서는 독일침략으로부터 혹심한 고난을 받았다。그럼으로해서 불란서인민들은 루—르가 강력한 전쟁병기고로 부흥되며 독일의 재군국화가 로골적으로 실시됨으로써 불란서를 다시금 위협하는것을 불안을 가지고 보고있는것이다。이밖에도 불란서인민들은 첫차례로 부흥시킬것으로 되어있는 루—르공업의 부흥이 불란서경제의 부흥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는것을 알고있는것이다。

불란서로동총련맹은 불란서를 파국으로 인도하는 정부의 이와같은 정책을 철처하게 폭로하고있다。

이와같은 과단성을 가지고 불란서로동총련맹은 침략적 서부군사동맹(이 결과로 훤덴브로에는 외국참모부가 창설되었다)을 폭로하였다。또한『방위보장』이라는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으나 사실에있어서 쏘련을 반대하는 침략조약인 북대서양조약도 폭로하고있다。

불란서로동총련맹은 군사예산의 축소와 월남에있어서의 살륙적 쟁의 급속한 중지도 요구하고있다。

최근 불란서로동총련맹은 평화산업부문의 군비생산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불란서로동총련맹은『군수품생산이냐 실업이냐』하는 디렘마앞에 로동계급을 서게한 정부의 기도에 대하여 결정적인 [illegible]격을 주었다。불란서로동총련맹은 자기 산하의 모든 단체들에게 회합에서、군중대회에서、출판물을 통하여 또는 행정기관과 의회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들을 폐쇄하려는 임의의 기도와 평화적 생산품생산을 군비생산으로 전환시키려는 기도를 반대할것을 호소하였다。

작년 十월에 진행되었던 불란서로동총련맹 제二十七차대회는 유·엔총회 파리회의에서 쏘베트대표단이 제의한 제안들、즉 五개강국의 군비 및 군사력의 三분의一 축소와 원자무기금지를 지지하였다。그때로부터 불란서로동총련맹은 불란서정부가 이 제안에 동의하여 一九四四년 十二월에 체결한 동맹 및 호상원조에 관한 불—쏘조약을 준수할것을 두차 요구하였었다。

불란서로동총련맹은 평화와 민주를위한 투사들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하는바 이 운동은 정치적 철학적 및 종교적 신념의 여하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불란서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흥할것을 지향하며 공정 자유 및 평화의 유일한 리념에 의하여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단합하고있다。불란서 로동총련맹은 평화옹호세계대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매개 직업동맹들의 회합들에서 불란서의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은 전쟁의 위험을 반대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평화를 옹호하는 진보적 세력을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단합할 필요성에 관하여 성명하고있다。작년 十一월에 진행된 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사들의 전국대회사업과 최근 끝난 평화옹호세계대회사업은 불란서에서 광범한 반응을 받았으며 로동총련맹은 이를 광범히 선전하고있다。

불란서인민대중의 통일은 날로 단련되고있다。이 견고한 통일의 뚜렷한 시위의 하나는 최근의 대과업、특히 一九四八년말의 탄광부들의 파업시에있어서 농민 수공업자 및 소상인들의 로동계급에 대한 태도에있어 표현된 련대성(連帶性)이였다。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사들의운동은 불란서인민들의 통일의 로대를 더욱더 확대케하였다。

이와같이 전쟁을 바라지 않는 인민들의 장성되는 세력을 불란서정부는 고려하지않으면 안되게되였다。

一九四九년六월十일 인쇄
一九四九년六월十五일 발행

「근로자」제十一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 집 인 김 성 룡
인 쇄 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 (二〇번)

제ㄱ—13097

九四七년八월二十일 제三종우편물인가제

근로자 一九四九년 제一一호

로동신문사